Ⅲ 歴史 遺跡地

1. 烽燧臺址

1) 概 要

봉(烽, 횃불)과 수(燧, 연기)로써 급한 소식을 전하던 전통시대의 통신 방법을 '봉수(烽燧)'라고 한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불을 피워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빛으로 신호를 하였다. 우역제(郵驛制)와 더불어 신식우편(新式郵便)과 전기통신이 창시되기 이전의 전근대국가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통신방법이었다.

봉수는 중국 주나라시대부터 시작하여 전한(前漢)시대를 거쳐 당나라 시대에는 완전히 제도화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가락국(駕洛國)의 시조 수로왕의 치세 중에 이미 봉화를 사용하였다고 『삼국유사』에 전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상으로 우리나라 봉수제의 확실한 출발은 고려 의종 3년(1149)에 서북면병마사(西北面兵馬使) 조진약(曺晉若)의 상주(上奏)에 의하여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빛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세종 때 정식으로 봉수제도를 마련했는데 평시에는 횃불을 한 개, 적이 나타나면 두 개, 적이 국경에 접근하면 세 개, 국경을 넘어오면 네 개, 접전을 하면 다섯 개를 올리되, 구름이 끼이거나 바람이 불어서 연락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봉졸들이 차례로 달려서 보고하는데, 서울에서는 오원(五員)이 병조에게 보고하고, 지방에서는 오장(伍長)이 관할 진장(鎭將)에게 보고하였다.

봉수대에 소속된 인원은 남산에는 군사 4인, 오원 2인, 연해와 변경 지방은 군사 10인, 오장 2인, 기타 내륙지방에는 군사 6인, 오장 2인을 배속했는데, 이들은 봉화대 근처의 거주자라야만 했다. 또 봉화대에 배속되는

봉군은 다른 군역에 종사할 수 없고 오직 망보는 일에만 종사케 하였다. 봉수의 간선(幹線)은 직봉(直烽)이라 하여 동북은 경흥(慶興), 동남은 동래(東萊), 서북은 내륙으로는 강계(江界), 해안지방으로는 의주(義州), 서남은 순천(順天)의 5개처를 기점으로 하여 서울의 목멱산(木覓山, 남산)을 종점으로 하였다. 봉화가 서울에 연락되면 병조에서는 사람을 지정해서 다음날 새벽에 승정원(承政院)에 보고하여 이를 임금에게 보고하고, 만약 급할 때에는 밤중이라도 즉시 보고케 하였다. 그리고 봉화대는 표주(標柱)를 세워서 경계를 설정하고, 거짓 봉화나 단순한 방화를 막론하고 그것이 경계선의 100보 이내에서 일어났을 때에는 병조에서 단속케 했으며, 100보 외에서 일어났을 때에는 해당 진영에서 단속케 했는데, 이들은 대개 사형에 처해졌다. 또 봉화대 근처에서는 무당이나 토속에 의한 잡신 제사를 일절 금했다.

2) 始興의 烽燧臺址

(1) 吾叱哀 烽燧臺址

· 소재지 :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당봉



오질애봉수대지. (우측 산 정상이다) 1995.

오질애 봉수는 정왕동 오이도 안말과 가운데 살막에 걸쳐 있는 당봉(堂峯) 정상으로, 현재는 국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이에 관한 문헌으로 『세종실록지리지』 권148, 지리지 15, 「안산군 봉수조」에, "봉수가 두 곳이니, 오질애(吾叱哀)는 군 서쪽에 있다. 남쪽으로 무응고리(無應古里)에 응하고, 북쪽으로 인천 성산(城山)에 응한다. 무응고리는 군 서쪽에 있는데, 남쪽으로 남양 해운산(海雲山)에 응한다(烽燧二處 吾叱哀在郡西 南准無應古里 北准仁川城山 無應古里在郡西 南准南陽海雲山)"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어 중종 35년(1530)에 발간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9, 「안산군 봉수조」와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 권2, 「안산군 봉수조」에, "오질이도 봉수는 남쪽으로 남양 해운산에 응하고 북쪽으로, 인천 성산에 응한다(吾叱耳島烽燧 南應南陽海雲山 北應仁川城山)"라고 되어 있다. 처음에는 오질애봉수라 불렀다가 그 후(1530년 이전) 오질이도 봉수로

개칭되었음을 알 수 있고, 아울러 이 시기에 무응고리 봉수는 폐치되었음이 확인된다. 무응고리 봉수는 옷애봉수의 동쪽으로 지금의 안산시 신길동 능길 뒷산에 위치한다. 무응고리는 그 후 봉홧불을 뜻하는 적길리(赤吉里)로 개칭되었는데, 1914년 일제가 부·군·면을 통·폐합할 때, 신각리(新角里)와 적길리를 합하면서 '신(新)'자와 '길(吉)'자를 취해 신길리(新吉里)로 지명을 택했다. 무응고리 봉수터는 1988년 시화지구토취장에 편입되자 곧 그 흔적조차 없어졌다.

위 기록에서 보이는 옷애(오질이도)봉수는 조선시대에 설립된 것이라기보다는 고려시대부터 존속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이곳의 지리적 위치가 왜구와 침입로와 연계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외곽지역으로 국방상의 요충지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안경비를 위하여 특별히 설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봉수는 『신증동국여지승람』 발간 이후 『여지도서(輿地圖書)』가 발간된 1759년 사이에 정왕동 봉우재 뒷산인 정왕산(正往山)으로 이전되었다. 그 이전 시기에 대하여 동서(여지도서)에 "…금이우차(今移于此)"라는 기록으로 보아 『여지도서』의 발간 연도인 1759년에서 머지않은 시기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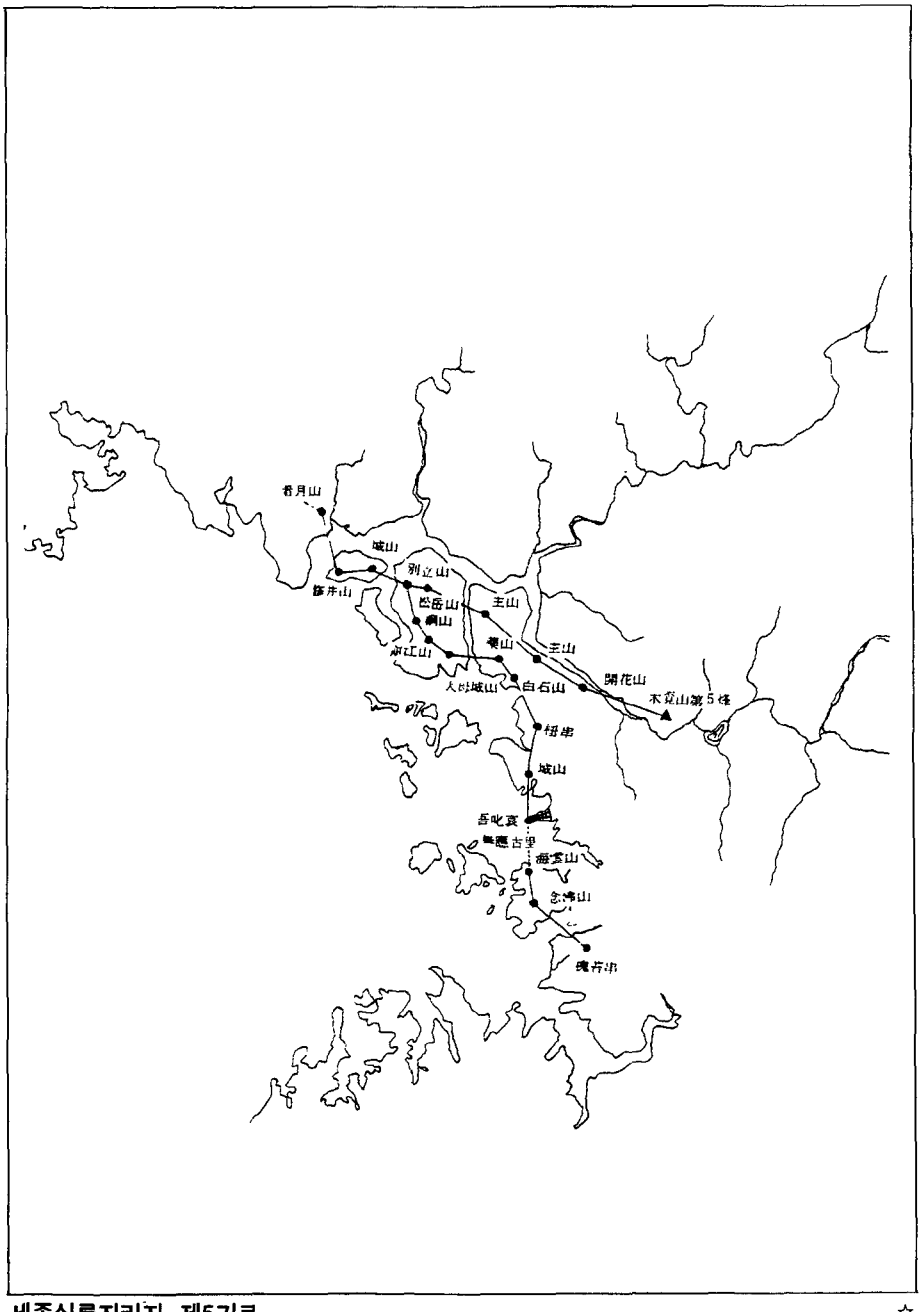
<참고문헌>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東國輿地志』, 『始華地區開發事業區域地表調査』, 『始興郡誌』 上.

(2) 正往山烽燧臺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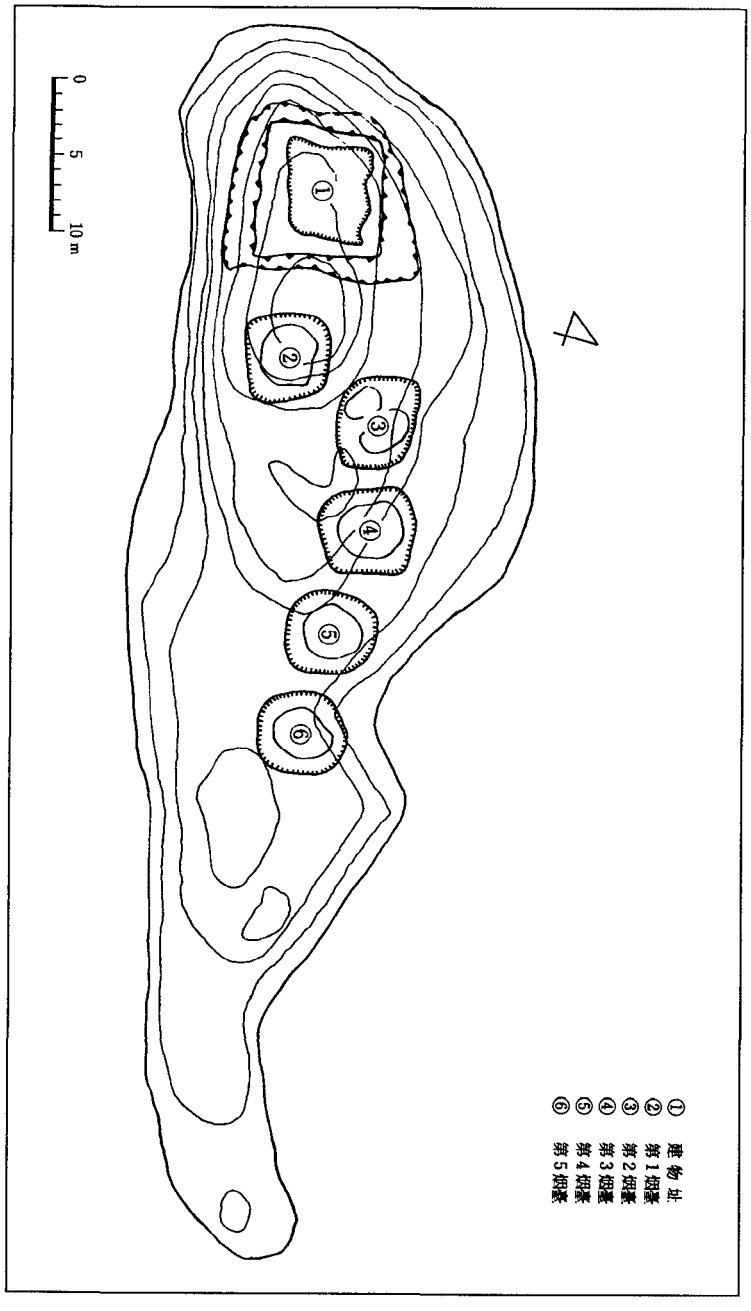
· 소재지 : 시흥시 정왕동 옛 정왕산(또는 봉화산 · 봉우재산)

정왕산 봉수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왕동 봉우재 뒷산(정왕산 또는 봉화산, 봉우재산)에 있었다. 정왕산 봉수에 관한 문헌으로 영조 35년(1759)에 발간된 『여지도서』 「안산군 산천조」에 "정왕산 군 서쪽 30리에 봉수가 있다(正往山 在郡西三十里 烽燧在址)"고 기록되어 있고, 이어 동서(『여지도서』) 「봉수조」에 "正往山烽燧 舊在吾叱耳島 今移于此 南應南陽海雲山 北應仁川城山"이라 하여 그 명칭은 정왕산 봉수인데 옛 오질이도에 있었던 것을 얼마 전에 옮긴 것으로 남쪽에서 남양 해운산에 응하고, 북쪽으로 인천 성산에 응함을 밝히고 있다.

오질이도 봉수를 정왕산으로 옮긴 이유에 대한 언급이 없어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오질이도의 위치가 해안 도서에 위치하고 있어 안개 등 기상적인 요건으로 전라·충청도에서 올라오는 서해안의 정황을 남쪽



세종실록지리지. 제5거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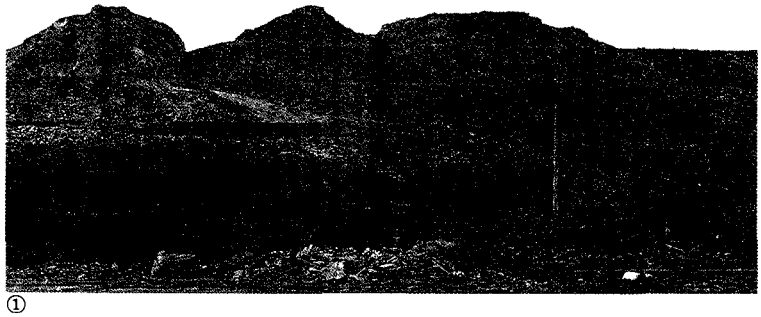
정왕산봉수 평면도. ☆

해운산 봉수로부터 전달받아 북쪽 성산 봉수로 전달하는 데 많은 불편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정왕산은 해발 115m의 산봉으로 이곳에서 주변을 관망할 때 화성군 해운산과 인천 성산을 남북으로 바로 볼 수 있어 안개 등 기상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달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정왕산 봉수는 전라·충청도의 해안으로부터 올라오는 정황을 한성에 전달하는 봉수의 기능을 유지했으나, 고종 31년(1894) 갑오개혁을 계기로 전국에 있는 봉수제를 폐치할 때 함께 종말을 고하였다.

정왕산 봉수의 봉수군(烽燧軍)의 규모는 『여지도서』「군병조」에 보면 "봉수군 25명, 별장 감관(別將監官) 합하여 6명"이라 하여 모두 서른한 명임을 밝히고 있으며, 『안산군읍지(安山郡邑誌)』(1866) 「군총조」에서는 "별장 1명, 감관 5명, 봉수군 25명으로 봉수군이 편제되어 있다"고 하여 별장과 감관의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이로 미루어보아 봉수군의 규모는 별장 한 명, 감관 다섯 명, 봉수군 스물다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경기읍지(京畿邑誌)』(1871) 중 『안산군읍지』「군총조」에서는 정왕산 봉수의 봉수군 규모를 "봉대(烽臺)의 책임자인 별장 1명, 감관 5명, 감고(監考) 1명, 그리고 구름이 끼이거나 바람이 불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때 관할 진장(鎭將)에게 보고하는 기능과 더불어 봉수군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오장(五丈 또는 五長, 伍長)이 5명, 봉수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봉수군이 20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위의 기록은 이전의 봉수군 규모에 비하여 이 당시에는 감고 한 명이 증원되어 정왕산 봉수군의 규모가 총 서른두 명으로 증가되었음과 봉수군의 구성이 오장 다섯 명과 스무 명의 봉수군으로 편제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때 감고 한 명이 증원되는 것은 조선 말 병인양요, 신미양요 등 외세의 침입에 의한 위기의식 속에서 봉수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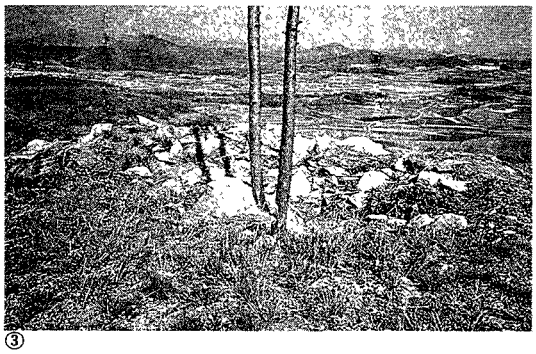
그리고 『안산군읍지』(1899) 「군병조」에 정왕산 봉수의 규모를 총 서른두 명이라고 기록하고, 또 전에 통어영(統禦營)에 소속되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로 미루어보아 지금까지 수원진(水原鎭)이나 남양진(南陽鎭)에 소속되어 있던 정왕산 봉수가 조선 말에 이르러 삼도통어사(三道統禦使)의 지휘 아래 편제되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상의 정왕산 봉수군의 편제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①



②



③



④

① 시화지구 토취장으로 변모되어 가는 정왕산. 1990.

② 정왕산 봉수대지 정상. 1988.

③ 봉수대 건물지. 1988.

④ 정왕산 봉수대지 위치. 연대에 사용되었던 돌. 1986.

正往山烽燧軍規模의 變遷

	刊行 年代	所屬	烽燧軍規模(단위 : 명)					備考
			別將	監官	監考	烽燧軍	計	
輿地圖書	1759 (영조 35)	水原府	6			25	31	
邑誌附事例	1866 (고종3)	南陽府	1	5		25	31	
京畿邑誌	1871 (고종 8)	南陽府	1	5	1	五丈 5 軍 20	32	監考 1명 증원, 烽田 5結, 烽保 75명 지급
安山郡邑誌地圖	1899 (광무 3)	前統禦營					32	
安山郡邑誌	日帝强占期	南陽府	1	5	1	五丈 5 軍 20	32	京畿邑誌 (1871) 그대로 轉寫

*자료 : 『始華地區開發事業區域地表調査』.

봉수대(烽燧臺)의 구조에 대해 『세종실록』 권115, 세종 29년 정묘 3월 병인조의 기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봉수대에는 연대(烟臺)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할 군인(烽卒)을 둔다.

둘째, 연대의 규모는 높이 25척(尺), 주위 70척으로 한다.

셋째, 대하(臺下)의 사면은 30척으로 하고 그 바깥에 깊이와 넓이가 각각 10척인 참호를 판다.

넷째, 참호 밖에 또 길이 3척의 나무를 껍질을 깎아 위를 예리하게 한 목장(木杖)을 박는데 목장의 넓이는 10척으로 한다.

다섯째, 척수(尺數)는 모두 영조척(營造尺)에 따른다.

여섯째, 연대의 상단에는 가옥(假屋)을 조성하여 병기와 아침저녁으로 공급하는 물, 그리고 불을 지필 수 있는 기구 등을 보관한다.

정왕산 봉수도 위의 규정에 입각하여 조성되었음은 1988년 명지대 박

물관(관장 : 신천식)의 현지조사에 의해 유지(遺址)에서 확인되었다. 그러나 당시(1988)의 상태는 거의 붕괴되어 그 원형을 찾을 수 없지만 유지에서 다섯 곳의 연대가 확인되었다. 연대 다섯 곳은 국가의 화급상태에 따라서 거화(擧火)하였던 봉로(烽爐)가 확실하며, 그 배열상태는 건물터를 중심으로 일렬로 각각 1.2m의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가로 5.8m, 세로 4.2m의 규모로 각각 축조되었었다. 그러나 연대의 높이는 이미 연대가 붕괴되어 측정할 수가 없었다. 연대의 상부에는 산 정상의 천연적인 암반을 이용하여 건물터를 축조하였던바, 이것은 위의 봉화대 구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병기 및 기타 기물을 보관하는 창고의 기능을 가지면서 아울러 봉수의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한 봉루의 성격도 지녔던 것으로 생각된다.

건물터는 완전히 유실되어 그 형태를 찾을 수 없었지만, 유지는 높이 2.3m, 가로, 세로가 각각 8.5m, 6.2m로 측정되어 그 규모의 대강을 알려주고 있다. 이로써 정왕산 봉수는 약 100여 m의 산 능선을 따라 전체 60×29m 지역에 연대 5개소와 건물터 1개소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외의 봉수에 관계된 시설, 즉 봉수터 주변의 참호나 목장을 박았던 유지는 봉수의 유실상태가 심하여 확인이 어려웠다. 봉우재마을(烽峴) 주민들에 따르면, "약 30여 년 전(1950년대)까지만 해도 높이 2m 정도의 연대가 남아 있었으나 마을 주민들이 가옥을 신축하거나 아궁이를 수리할 때 연대의 돌을 가져다가 사용하여 지금은 그 흔적조차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변모하게 되었다"고 한다.

봉수의 축조방법은 먼저 산 정상부의 천혜적인 암반을 이용하여 남양 해운산 봉수와 인천 성산봉수에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지형을 이용하였다. 연대의 축조방법은 완전히 붕괴되어 알 수 없으나 건물터의 축조방법을 보아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건물터를 구성하고 있는 돌은 납작한 네모진 돌로 가로 20~80cm, 세로 10~25cm, 넓이 15~30cm 정도의 돌을 축대형으로 쌓아올렸다. 주변에는 가로 20~40cm, 세로 10~20cm, 넓이 10~20cm의 납작한 돌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이 돌은 연대를 구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世宗實錄』, 『始華地區開發事業區域地表調査』, 『始興郡誌』 上.

2. 城址

1) 概要

성(城)은 외적의 침입이나 자연적인 재해로부터 성안의 인명과 재산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인위적 시설을 말하는 총체적인 개념이다. 성은 처음에는 흙을 파서 도랑을 만들거나 흙으로 쌓았으나, 사람들의 지혜가 발달하면서 나무로 만든 목책(木柵)과 돌로 쌓은 석축(石築), 벽돌로 쌓은 전축(磚築)으로 발달되었다.

우리나라의 성곽들은 그 형태로 보면 평면의 모양에 따라 네모꼴·둥근꼴·반달꼴 기다란꼴로 구분되며, 축조된 위치에 따라 평지성·낮은산성·높은산성으로 구분된다. 또 축조한 목적과 기능에 따라 왕궁과 종묘사직을 지키기 위한 도성(都城), 지방의 행정·경제·군사의 중심지인 읍성(邑城), 유사시에 대비하여 방어용·도피용으로 쌓은 산성(山城), 창고를 보호하기 위한 창성(倉城), 군사적 요충지에 쌓고 군인이 주둔하던 진보(鎭堡), 왕이 행차할 때 일시 머물기 위한 행재성(行在城), 국경과 요새지에 쌓은 행성(行城, 장성) 등으로 나누고, 축조에 사용된 재료에 따라서 토성(土城), 토축성(土築城), 석축성(石築城), 벽돌성, 목책, 목책도니성(木柵塗泥城)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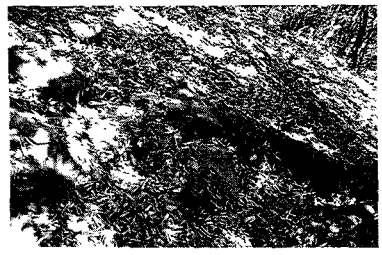
시흥관내에는 산성으로 군자산성(君子山城)이 있었고, 읍성은 안산읍성(安山邑城)이 있다.

<참고문헌> 『國史大事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 君子山城址

· 소재지 : 시흥시 군자동 군자봉 산 22-3

군자산성지는 군자봉 정상부에 있는 산성이다. 문화재관리국이 펴낸 『문화유적총람(文化遺蹟總覽)』에 의하면 군자산성은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군자봉 출토 와편. 1987.

"표고 187m의 독립봉인 군자봉 정상에 있으며 삼국시대 토기편(土器片)과 와편(瓦片)이 산재해 있고 정상부에는 후대에 지었던 성황당(城隍堂) 자리가 있으며, 조선시대에는 봉수로 사용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삼국시대 한강유역과 남양만을 연결하는 교통로를 지키는 요새지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주위는 약 400m, 높이는 약 10m이다."

그러나 군자봉의 실제 높이는 187m가 아니라 199m이며, 또 조선시대에 봉수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하나 군자봉은 봉수로 사용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산 정상부에는 돌과 흙으로 쌓은 길이 400m, 높이 10m 정도의 성축이 남아 있다고 했으나, 이 또한 현재는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곳에서 수습되는 유물로는 다량의 삼국시대 토기편과 와편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정상의 북쪽지역에서는 주로 회색와질토기(灰色瓦質土器)가 수습되고, 서쪽지역에서는 주로 회청색경질토기(灰靑色硬質土器)가 수습되었다.

명지대 박물관(관장 : 申千湜)이 1988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곳에서 수습된 회색와질토기편은 대부분 기복부(器腹部)를 구성하는 편(片)들로 탄알 모양이 시문되어 있고, 토기편의 두께는 3~5mm로 여러 종류를 이루고 있고, 구연부를 올라가는 부분의 두께는 7mm이다. 회청색 경질토기도 역시 구연부는 없고 대부분 기복부와 바닥부분의 편이다. 기복부를 구성하는 토기편의 표면 두께는 5~12mm이고, 바닥면을 구성하고 있는 토기는 표면의 두께가 8mm이며, 바닥면의 두께는 3~5mm이다. 한편 정상의 서남쪽 경사면에서는 토기장경호편(土器長頸壺片)이 수습되었다. 토기의 목부분에는 파상문이 그려져 있으며, 토기 두께는 목부분이 8mm, 표면이 4mm이다. 정상에서는 와편도 많이 채집되었는데, 와편은 몽촌토성(夢村土城)에서 출토되고 있는 와편이나 이성산성(二聖山城)에서 출토되

고 있는 와편 등과 같은 성질의 것이 채집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산성은 백제의 산성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산성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적인 중요성으로 보아 삼국시대 이래로 군사상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특히 남쪽으로 남양만과 연결되어 있어 서해안과 한강유역을 연결하는 요충지였음을 알 수 있다. 삼국이 한강을 두고 각축전을 벌일 때 군자산성을 비롯한 남양만 일대의 산성이나 봉수대의 역할이 매우 컸음은 자명한 이치이다.

현재 남아 있는 삼국시대의 성지(城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군자산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면 삼국시대, 특히 백제의 성지를 연구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 이곳에서 수습되는 토기편과 와편이 초기 백제의 수도였을 가능성이 높은 몽촌토성이나 이성산성의 출토유물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백제사(百濟史)를 연구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漢陽大博物館, 『二聖山城發掘調査報告』·『京畿道百濟文化遺蹟地表調査』, 明知大博物館, 『始華地區開發事業區域地表調査』, 文化財管理局, 『文化遺蹟總覽』, 『始興郡誌』上.

3. 寺址

1) 概要

우리나라의 불교는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 진(秦)나라의 순도(順道)와 아도(阿道)가 불경과 불상을 가지고 들어와 성문사(省門寺), 이불란사(伊佛蘭寺) 등의 절을 창건한 것이 그 시초이나, 시흥지방의 불교전래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전통사찰이 없는데다가 자료 또한 미비하기 때문이다. 다만, 대야동 소재 소래산 중턱바위에 암각된 소래산마애보살입상이 고려 초에 조성되었다는 학계의 고증과, 이 마애보살입상 아래에 있는 대야리사지(大也里寺址)를 1988년 명지대박물관(관장 : 신천식 교수)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절터에서 백제시대 와편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백제시대 창건된 사찰은 분명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로 미루어보면, 적어도 백제시대에는 시흥지방에 불교가 전재된 것으로 보여진다.

읍지, 지리지 등에 기록된 조선시대 시흥지방에 있었던 사찰로는 대야동에 효일사(曉日寺?)를 비롯하여 수암동에 원당사(元堂寺)·정수암(淨水庵, 수암사) 등이고, 그 밖에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안산군조」에 안양산(安陽山)에 수월암(水月菴)이란 암자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찰이 지금의 어디를 지칭하는지 알 수가 없다. 현존 사찰로서 비교적 오래된 사찰은 법연사(法蓮寺)가 있다. 그러나 문헌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각 고을마다 산세를 끼고 많은 절터가 현존한 것으로 보아 시흥지방도 여느 지방과 같이 조선시대에는 불교문화가 융성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참고문헌> 『仁川府邑誌』, 『安山郡邑誌』, 『畿內寺院誌』, 『始興郡誌』 上, 『서울 外廓循環高速道路文化遺蹟地表調査報告書』.

2) 始興의 寺址

(1) 大也里 寺址

· 소재지 : 시흥시 대야동 산 140 소래산



대야리 사지. 1993.

소래산의 명칭은 당나라 소정방(蘇定方)이 이 산에 왔다 갔다 하여 그렇게 불리는데, 산 부근에는 최근에 창건한 내원사 등 사찰이 있다. 대야동 웃대야리에서 하우고개 방향으로 가다가 좌측으로 예비군 훈련장을 지나 산악훈련 코스를 따라가면 레펠 1 훈련을 받는 곳 주변이 '대야리사지'이다. 이곳에서 서쪽으로 50여 m쯤 올라가면 유명한 소래산마애보살입상이 있다.

이 사지에 대해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과 『인천부읍지(仁川府邑誌)』 등에 보면, "소래산에는 효일사(曉日寺)가 있다"고 하였다. 이 효일사를 다시 권상노(權相老)가 엮은 『한국사찰전서(韓國寺刹全書)』 「효일사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 在京畿道仁川 蘇萊山(『東國輿地勝覽』)
- 今廢(「梵宇攷」
- 址在富川郡蘇萊面大也里, 基地平坦約二百步 無一遺物, 但有一基石塔者所謂山主梁默然 大正四年賣却于仁川府居飯田茂登雄, 今在仁川飯田垈內三層石塔, 高十四尺笠幅四尺最下層之笠, 與臺石之間刻, 蔡甲端, 李胃興, 吳聖, 申旭萬, 趙世煥, 趙世彦, 等文字(「寺塔古蹟攷」)
- 傳說云蘇定方建立

「사탑고적고(寺塔古蹟攷)」를 보면, 부천군 소래면 대야리(현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절터에 삼층석탑 1기가 있었는데, 산주인 양묵연(梁默然)이 1915년에 당시 인천에 살았던 일인 이다(飯田茂登雄)에게 팔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 석탑을 찾기 위해 대야동 토박이 한정석(韓貞錫, 1918, 시의원 한종수 부친)이 같은 마을에 사는 연로한 노인의 말을 듣고 자비로 인천을 수차에 걸쳐 왕래하여 탐문한 결과, 1992년 11월경 인천광역시 율목동 어느 교회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참고문헌> 『畿內寺院誌』, 『서울 外廓循環高速道路文化遺蹟地表調查報告書』.

(2) 元堂寺址

· 소재지 : 시흥시 수암동 산 13 · 원당골

현재 이 사지(寺址)에는 축대의 일부와 초석 두 개가 산재해 있으며, 근년에 쓴 3기의 민묘가 있다. 또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석불좌상(石佛座像) 두 구(軀)가 있었는데, 그 중 한 구는 목이 부러져 머리가 목 위에 얹혀 있었고, 나머지 한 구는 머리에 육계(肉髻)가 표현되었으며, 목 아래 부분에는 돌출된 옷주름선이 나타나 있었다. 광무 3년(1899)에 발간된 『안산군읍지』「사찰조」에 "원당사, 수리산에 있다"는 기록과, 현지에서 출토되는 와편(瓦片)의 문양으로 보아 조선조 말까지 존재하다가 일제강점 초기에 폐사된 것 같다.

원당사가 조선시대에는 꽤 유명했던 사찰로 보인다. 즉, 표암(豹菴) 강세황(姜世晃 1713~1791)이 당대 화가인 심사정(沈師正, 1707~1769)과 함께 이곳에 머물며 1762년에 그와 함께 「豹玄聯畵帖」을 그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원당사지는 국방부 소유로 현재 탄약폭파처리장으로 민간인의 출입이 어려운데, 1994년 12월 현지조사 결과 칡덩쿨 등이 무성해 자세한 조사는 불가능하나 경내에 있던 느티나무는 옛 그대로의 모습이다.



원당사지에 있는 느티나무. 1994..

<참고문헌> 『安山郡邑誌』, 『新增東國輿地勝覽』, 『豹菴姜世晃繪畵硏究』, 『畿內寺院誌』.

(3) 秀岩寺址

· 소재지 : 시흥시 수암동 산 4

1992~1993년 베스트셀러 중에 석용산 스님이 지은 『여보게, 저승 갈 때 뭘 가지고 가지』(1992)란 책에 보면 '수암사(秀岩寺)'에 관해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동서 184쪽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서양 사고의 잘못된 부분에 물들여진 사람들에게 용악이란 스님의 얘기를 들려주고 싶다. 용악 스님은 조선조 순조 때 사람으로 함경남도 안변에 있는 석왕사에 머물렀다가 양산 통도사에서 생을 마쳤고, 처음으로 해인사 대장경을 종이에 찍어 책으로 엮은 분으로 기록되어 있다.

스님이 석왕사에 계실 때 일인데, '이월 스물여드레 밤'이 되면 어김없이 꿈을 꾸게 되고, 그때마다 어디론가 가서 차 석 잔과 음식을 대접받고 오게 되는데 매년 되풀이되니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집이 여염집이 아



수암사지. 1994.

닌 수암사라는 현판이 붙은 절집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어느 도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 수 없어 항시 수암사의 알이 머리를 떠나지 않고 있던 중, 어느 날 수암사에서 왔다는 객승을 맞이하게 되고, 바로 꿈속에 찾아가는 수암사의 스님임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그 궁금한 '이월 스물여드레'가 수암사를 크게 중창한 중창주 스님의 제일임도 알게 된다.

제사는 밤 제사를 지내며, 스님이 살아 생전 차를 좋아하셔서 제사를 지낸 후 차 석 잔을 달여 올린다는 사실도 듣게 된다. 용악 스님은 자신이 전생에 수암사 중창주였음을 알게 되었고, 수암사 객승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수암사 중창주의 소원이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영인본으로 엮어 내는 것이었으나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듣게 되는데, 바로 자신이 갖고 있던·평소 생각이요 추진하고 있는 일이었으니, 더 말할 것 없이 객승과 함께 경기도 시흥군 수암리에 있다는 수암사에 들리어 자신의 영전에 제올리고 발원을 한다. 결국 소원을 이루게 되어 대장경 목판을 영인본으로 만들어 통도사와 법주사 등 네 곳에 모시게 되었다…."

그러나 읍지, 지리지 등 옛 문헌에 수암사란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안산군읍지』, 『경기지』, 『경기읍지』 등에 "정수암(淨水菴), 수리산에 있다"는 기록으로 보아 사찰 뒤에 있는 취암(鷲岩)을 수암봉으로 개칭할 때 절이름도 산명을 취해 수암사로 개칭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절의 창사 연도는 알 수 없고, 다만 1899년에 발간된 『안산군읍지』에 "…이미 폐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조선조 말에 폐사된 것으로 보인다. 수암사(정수암)는 수암봉 중턱에 꽤 넓은 평평한 대지에 자리잡고 있다. 앞(전면)은 넓게 트였으나 주위가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전망이 매우 좋은 곳으로 샘터가 남아 있다. 『사탑고적고(寺塔古蹟攷)』에 의하면, 초석과 우물이 있다고 했는데 이 우물이 현 수암봉 약수터인지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으며, 장방형으로 쌓은 석축이 두 군데 있는데 아마도 이곳이 우물자리가 아닌가 추정된다. 또한 무너진 축대흔적이 남아 있어 평평하게 다져진 절터와 함께 이곳이 한때 번성했던 사찰이었음을 알려 주고 있다.

<참고문헌> 『安山郡邑誌』, 『安山邑誌』, 『京畿誌』, 『京畿邑誌』, 『寺塔古蹟攷』, 『始興郡誌』 上, 『畿內寺院誌』, 석용산, 『여보게, 저승갈 때 뭘 가지고 가지』, 1993, 184~185쪽.

(4) 法蓮寺址

· 소재지, 시흥시 조남동 산 1-5

법연사는 효종 17년(1650) 효종비(孝宗妃) 인선왕후(仁宣王后)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한다. 인선왕후는 조선시대 4대 문장가의 한 사람으로 우의

정(右議政)을 지낸 장유(張維)의 딸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자 그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의 법연사(조남동 4)는 본래 장군재 응단말에 있던 기상연구소에서 동쪽으로 약 300m쯤에 위치한 절골(寺谷)에 있었다고 한다. 현재 그곳에는 와편(瓦片)과 주춧돌 등이 산재해 있다. 『기내사원지』 404쪽에 "…법당자리로 생각되는 평평한 곳에는 장씨묘(張氏墓, 장유의 묘를 가리킴)가 있다"는 기록은 오류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장유의 묘는 다른 곳에서 이장된 묘가 아니라 본래부터 현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연사가 언제 지금의 자리(조남동 4)로 옮겨졌는지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다.



법연사.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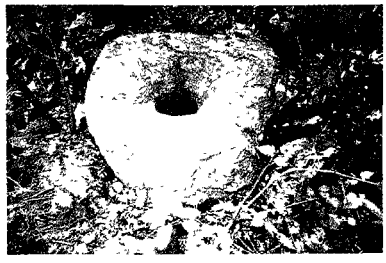
현 법연사는 1927년 최벽숭(崔碧崇) 주지가 중수를 한 후, 1950년 한국전쟁으로 사찰의 일부가 파괴되자 1952년 김대은(金大隱) 화상이 중수를 했으나, 그 후 건물의 노후로 1989년 법당(法堂, 16여 평)을 중수한 데 이어 이듬해 요사채 한 동(2층, 60평)을 신축했다. 법당(대웅전) 중앙에는 1980년대 초에 봉안한 석가모니불이 있고, 그 오른쪽에 지장보살상, 왼쪽에 관세음보살상이 각각 배치되어 있다. 1989년에 봉안된 탱화는 후불탱화를 비롯하여 신중탱화(神衆幀畵), 산신탱화(山神幀畵), 칠성탱화(七星幀畵) 등이다.

<참고문헌> 『용주사본말사지』, 『始興郡誌』 下, 『畿內寺院誌』.

(5) 五子山 寺址

· 소재지 : 시흥시 논곡동 오자산

오자산(五子山)은 논곡동 논줄마을 뒤(서남)에 있는 산으로, 다섯 봉우리의 형상이 마치 다섯 명의 아들과 같다 하여 그렇게 부른다. 마을에서는 보통 오지봉이라고 부른다. 이 오자산을 논곡동에서 바라볼 때 왼쪽에서 두번째 봉우리 중턱에 절터가 있다. 이곳은 원래부터 마을사람들로부터 절터라고 일컬어지던 곳이다. 논줄 아랫말에서 서쪽으로 작은 고개를 하나 넘으면 멍에고개가 나오는데, 이곳에서 다시 서남쪽으로 가파른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논줄마을의 상수원에 이르게 된다. 절터는 이 상수원 바로 위에 있다. 절터 못 미쳐에는 가로 1m, 세로 69cm의 장방형 석물과 그 아래에 거의 비슷한 크기의 요형의 석물이 놓여 있다. 두 석물은 겹쳐져 있는데, 원래는 형상이 많이 변경되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래에 깔린 요령의 석물을 보건대 탑비(塔碑)의 귀부(龜趺)가 아



오자산 사지 돌절구. 1991. ◆

닌가 생각된다. 석물에서 오른쪽(북)으로 들어서면 평지가 나오는데 그곳이 바로 오자산사지이다. 주변에는 축대로 사용한 것으로 생각되는 돌들이 무더기로 흩어져 있고, 아래에는 돌절구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 돌절구는 긴 변의 길이가 97cm이고, 높이는 49cm의 다듬지 않은 부정형의 돌에 구멍을 파서 사용하였다. 절구구멍은 지름이 35cm, 깊이가 25cm이다. 이 절터 너머(서)에 이보다 더 큰 규모의 절터가 또 하나 있다. 이곳에는 축대가 그대로 남아 있고 기와조각도 수습되고 있다. 이 터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때 서편의 절터가 원 사찰이고 오자산사지가 이 절의 암자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두 절을 합한 사역(寺域)은 약 3천 평에 이르는 큰 규모의 사찰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충북대학교 고고미술학과, 『서울外廓循環高速道路文化遺蹟地表調査報告書』, 1991, 153~154쪽.

4. 官衙址

1) 概 要

관원들이 정무를 보는 건물을 통틀어서 관아(官衙)라 하는데, 관서(官署), 공해(公廨)라고도 한다. 관아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존하는 유구(遺構)가 있는 조선시대 관아 건축의 유구를 통하여 알 수 있다. 한양의 도성에는 최고기관으로 의정부(議政府)가 있고, 또 백관을 통솔하는 문하부, 왕궁의 군기(軍機) 및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중추원 등과 이조(吏曹), 호조(戶曹), 병조(兵曹) 등 6조(六曹)가 있었다. 지방에서는 경기도, 경상도 등 8도와 그 밑에 부(府), 목(牧), 군(郡), 현(縣)을 두고, 이곳에 도의 관찰사(또는 감사)가 소관마을을 관할하는 부윤(府尹), 목사(牧使), 군수(郡守), 현령(縣令), 현감(縣監) 등을 통괄하면서 주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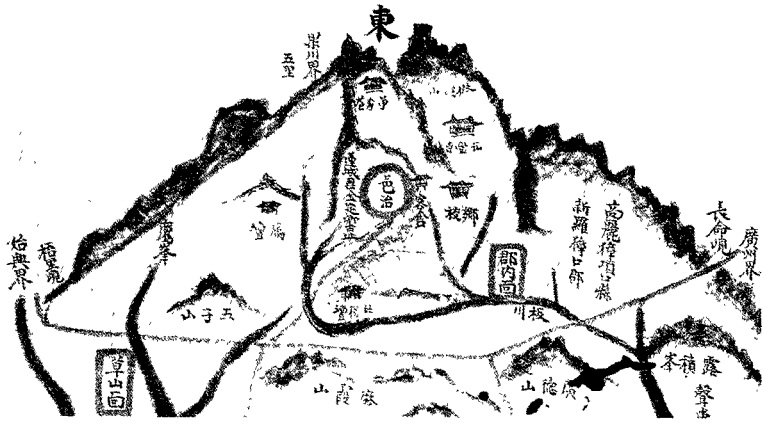
지방관아의 대표적인 것은 현감이 주재하고 있던 동헌(東軒)이고, 현감의 살림채인 내아(內衙)가 따른다. 또한 좌수·별감이 접무하던 향청(鄕廳), 6방(六房)의 우두머리가 집무하던 작청(作廳), 회계사무를 관장하던 공수청(公須廳), 군장교의 장청(將廳), 죄를 다스리던 형방청(刑房廳), 노복들의 관노청(官奴廳), 죄인을 가두는 형옥(刑獄) 등이 모두 갖추어 건립되었다. 그리고 객사(客舍)는 궐패(闕牌)와 전패(殿牌)를 모셔 놓고 초하루와 보름에 향궐망배(向闕望拜)를 하던 곳으로 엄밀히 말해 관아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현재 시흥관내에는 조선시대의 관아가 전무하다. 광복 후에 건립된 면사무소 또는 읍사무소는 1989년 시로 승격되면서 시청사 혹은 동사무소로 전용되었다.

2) 始興의 官衙址

(1) 獐項口縣·獐口郡 官衙址

·소재지 : 시흥시 장상동 노리울(獐谷)



『안산군읍지』지도(고종조)에 나타난 장항구현·장구군 관아지 위치.

장항구현은 고구려시대 안산의 현명(縣名)이며, 장구군은 통일신라 안산의 군명(郡名)인데, 이들의 치소(治所)가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고종조에 발간된 『안산군읍지』나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조선지지자료』(1918) 등의 문헌을 보면 안산군 군내면 장곡(獐谷)으로 기록되어 있다. 장곡은 지금의 시흥시 장상동 노리울마을로,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군내면 장곡리로 불리었던 곳이다. 마을 뒤에 있는 고깔봉에서 마을에 이르는 형세가 풍수로 보아 노루의 입처럼 생긴 노루혈(獐口穴)이므로 '노리울'이라 했는데, 현명도 이에서 유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 장상동(章上洞)의 '장(章)'자도 본래 '獐'에서 유래한 것인데, 후에 '犭'변이 탈락한 것이라고 한다. 더욱이 안산 김씨의 시조인 김긍필(金兢弼, 金肯弼)과 그 아들 은부(殷傅), 손자 경덕국사(景德國師)·충찬(忠贊)·현종의 비인 원성(元成)·원혜(元惠)·원평(元平) 왕후와 문종(文宗), 덕종(德宗), 정종(靖宗) 등이 모두 이곳 출신이며, 그 후손인 안산 김씨(또는 연성 김씨) 또한 많이 살고 있는 점으로 보아 장



『안산군읍지』 지도(1899)의 안산읍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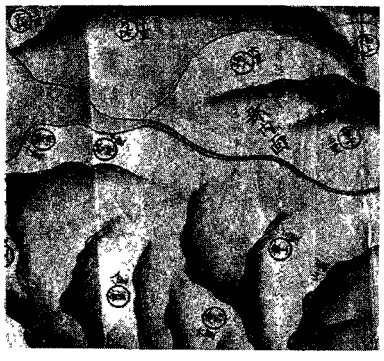
항구현·장구군의 관아가 장곡에 있었던 것은 확실하며 그 위치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대체로 장상동 노리울 밤석골에서 고깔봉으로 가는 큰 골 부근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항구현·장구군 관아는 그 후(시기를 알 수 없음) 안산군 치소에서 서쪽으로 30리 떨어진 안산군 와리면 능내리(현 안산시 목내동 능안)으로 옮겨졌다가, 세종 23년(1441) 이곳이 소릉(昭陵, 단종의 생모인 현덕왕후의 능)의 화소(火巢)로 편입되자 안산군 군내면 서정리(西亭里, 현 시흥시 수암동)로 옮겼다.

<참고문헌> 『安山郡邑誌』, 『朝鮮地誌資料』, 『安山邑城地表調査報告書』.

(2) 郡內面 官衙址

·소재지 : 시흥시 수암동 독수리마을

군내면은 안산군의 군치(郡治)가 있는 주변지역인데, 『안산군읍지』(1899) 「방리(坊里)조」에 "남쪽의 군내면은 관문(官門)에서 10리가 떨어졌다(南郡內面 距官門十里)"라는 기록으로 보아 안산군 관아에서 남쪽으로 10리까지임을 알 수 있다. 정조 13년(1789)에 발간된 『호구총수(戶口總數)』에 따르면 군내면의 호수는 597호에 인구는 2천 619명인데, 그 중 남자가 1천 436명, 여자가 1천 183명이다. 그리고 방리는 동암리(東庵里)를 비롯하여 서정자리(西亭子里), 장곡리(獐谷里), 부곡리(釜谷里), 신동리(新洞里), 점성리(占星里), 성곶리(聲串里), 성곶포촌리(聲串浦村里), 양등대리(楊等代里)인데, 이를 지금의 행정체계로 보면 시흥시의 수암동·장상동·장하동과 안산시의 부곡동·성포동·양상동이다.



『안산군읍지』지도(1899)의 군내면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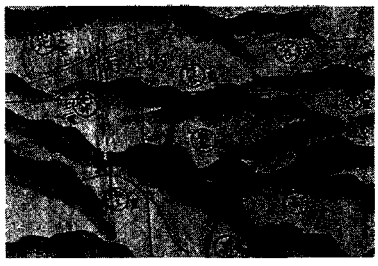
이상의 행정체계는 1914년 부·군·면 통·폐합으로 시흥군 수암면(秀岩面)이 되었다가 1979년 8월 10일 경기도 조례 제969호에 따라 양상동, 부곡동, 성포동은 반월지구출장소(현 안산시)로 편입되었고, 현 시흥관할 구역은 수암동, 장상동, 장하동이다. 군내면 관아가 있던 곳은 수암동 독수리마을로 옛 안산관아가 있었던 곳이다.

<참고문헌> 『戶口總數』, 『安山郡邑誌』, 『京畿邑誌』.

(3) 仍火面(仁化面) 官衙址

·소재지 : 시흥시 화정동 고주물

잉화면은, 일제강점기 이후에 나온 자료들에는 대개 인화면(仁化面)으로 기록되어 있다. 『안산군읍지』(1899) 「방리(坊里)조」에 "서쪽의 잉화면



『안산군읍지』지도(1899)의 잉화면 위치.

은 관문에서 15리 떨어져 있다(西仍火面官門十五里)"라고 하여 잉화면이 안산관아에서 서쪽으로 15리 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정조 19년(1789)에 발간된 『호구총수』에 의하면, 잉화면은 355호에 인구는 남자가 812명에, 여자가 686명으로 모두 1천 478명이었다. 방리는 5개 리로, 북곡리(北谷里, 현 시흥시 능곡동), 잉화곡리(仍火谷里, 현 시흥시 화정동), 와곡리(瓦谷里, 현 안산시 와동), 고잔리(古殘里, 현 안산시 고잔동), 월입피리(月入皮里, 현 안산시 월피동)이다. 이들 제지역은 1914년 부·군·면 통·폐합에 따라 시흥군 수암면(秀岩面)에 흡수 통합되었다. 그 후 1979년 8월 10일 경기도 조례 제969호에 따라 월피동, 와동, 고잔동이 반월지구 출장소(현 안산시)에 편입되었고, 현 시흥관할구역은 화정동과 능곡동이다. 조선시대에 발간된 안산군지도와 화정동 고주물 입구에 있는 박거겸(朴居謙) 묘비에 화정동 부근에 잉화곡(仍火谷)이란 골짜기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면명도 그 골짜기 안 또는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위치에 대하여는 자세히 알 수가 없다.

<참고문헌> 『戶口總數』, 『安山郡邑誌』, 『京畿邑誌』.

(4) 草山面 官衙址

· 소재지 : 시흥시 논곡동 또는 산현동



『안산군읍지』지도(1899)의 초산면 위치.

조선시대 안산군의 6개 면 중 4개 면이 시흥·안산 지역으로 분리되었으나, 초산면과 마유면만은 전 지역이 시흥시 지역이다. 초산면의 최후 면장은 하중동 관곡 출신 권호(權澔, 1886~1955)이다. 초산면의 관아지에 대하여는 설이 구구하나 대체로 논곡동 또는 산현동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다. 논곡동은 대대로 대신들이 많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이며, 산현동은 그 지명이 말해 주듯 산악지대이므로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초산면의 관할구역은 『안산군읍지』(1899)에 의하면, "서북쪽으로 관문에서 15리(西北草山面距官門十五里)"라고 하였다. 정조 13년(1795)에 발간된 『호구총수』에 따르면 호수는 484호에 인구는 2천 88명(남자 1천 119, 여자 971)이며, 방리는 두모곡리(豆毛谷里), 목감리(牧甘里), 논지곡리(論知谷里), 물항동리(勿項洞里), 상직곶리(上職串里), 광곡리(廣谷里), 중직곶리(中職串里), 하직곶리(下職串里), 하직곶중리(下職串中里), 하직곶하리(下職串下里)였다. 이상의 방리는 조선조 말에 이르러 다시 개칭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두모곡리→조남리 · 산현리(?), 논지곡리→논곡리, 물항동리→물왕리, 상직곶리→상직곶리→물왕동 월미, 광곡리→광석리 나분들(?), 중직곶리→하상리 요골, 하직곶리→하상리 하지골, 하직곶중리→하중리, 하직곶하리→광석리 둔터골

초산면은 1914년 부 · 군 · 면 통 · 폐합으로 전 지역이 수암면으로 된 후, 1989년 시흥시로 승격되자 논곡동 · 목감동 · 조남동 · 산현동 · 물왕동은 목감동(행정동)에, 하중동 · 하상동 · 광석동은 연성동(행정동)에 각각 편제되었다.

<참고문헌> 『戶口總數』, 『安山郡邑誌』, 『京畿邑誌』.

(5) 大月面 官衙址

· 소재지 : 시흥시 거모동 거무개

안산군의 6개 면 중 면적이 가장 적은 면이다. 소재지는 대체로 석곡리(石谷里→도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석곡역(石谷驛)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일은 현 군자동 동사무소가 소재한 곳이 아니고 군자국민학교 뒤편에 해당된다. 그러나 한준겸(韓浚謙) 신도비문에 '대월리(大月里)'라고 명기된 것으로 보아 한준겸의 묘가 있는 거모동 거무개 부근으로 추정된다. 대월면은 『안산군읍지』(1899)에 따르면, "관문에서 서쪽으로 25리에 있었는데(西大月面距官門二十五里)' 정조 13년(1789)에 발간된 『호구총수』에 의하면, 호수는 266호에 인구는 1천 144명(남자 616, 여자 528)이었고, 방리는 거모포리(去毛浦里→거모동), 석곡리(石谷里→거모동), 선부동리(仙府洞里→안산시 선부동), 달산리(達山里→안산시 선부동)이다. 대월면은 그 후 1914년 부 · 군 · 면 통 · 폐합에 따라 시흥군 군자면이 되었고, 1979년 8월 10일 경기도 조례 제 969호에 따라 선부리지역은 반월지구 출장소(현 안산시)에 편입되었으며, 거모리지역은 1989년 시흥시 거모동이 되었다.



『안산군읍지』지도(1899)의 대월면 위치.

<참고문헌> 『戶口總數』, 『安山郡邑誌』, 『京畿邑誌』.

(6) 馬遊面 官衙址

· 소재지, 시흥시 장곡동

대월면, 와리면과 함께 안산군 서쪽에 있어 안산서촌(安山西村)이라고 불리었다. 『안산군읍지』(1899) 「방리조」에 "서쪽의 마유면은 관문에서 30



『안산군읍지』지도(1899)의 마유면 위치.

리(西馬遊面距官門三十里)"라는 기록이 말해 주듯, 안산군의 서쪽 끝 해안지역이다. 면치(面治)는 『덕수장씨족보』에 장곡동의 매꼴 및 안골 일대를 마리(馬里)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이곳에 관아가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호구총수』에 의하면, 호수는 541호에 인구는 2천 307명으로, 그 중 남자가 1천 247명, 여자가 1천 60명이고, 방리는 조현리(鳥峴里), 장종리(長宗里), 응곡리(鷹谷里), 죽율리(竹栗里), 정왕리(正往里), 구지정리(九之井里), 산북리(山北里), 오이도리(烏耳島里) 등 8개 리이다.

이상의 방리는 조선조말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개칭되었다.

조현리(鳥峴里→장현동 새재), 장상리(長上里→장현동 뒤일), 장하리(長下里→장곡동 긴마루(?)), 도촌리(島村里→장곡동 섬말), 응곡리(鷹谷里→장곡동 매꼴), 월동리(月東里→월곶동 월동), 월서리(月西里→월곶동 삼밭·고잔·상골 등), 정왕리(正往里→정왕동 사래이·봉우재·배나루·삼한 등), 오이리(烏耳里→정왕동 오이도), 죽율리(竹栗里→죽율동), 구지정리(九之井里→군자동 구준물), 산북리(山北里→군자동 산뒤)

위의 방리는 1914년 부·군·면 통·폐합에 따라 시흥군 군자면에 흡수통합되었고, 그 뒤 1989년 시로 승격되면서 죽율동·정왕동은 정왕동(행정동)에, 월곶동·군자동은 거모동에, 장현동·장곡동은 연성동(행정동)에 각각 편제되었다.

<참고문헌> 『戶口總數』, 『安山郡邑誌』

(7) 新峴面 官衙址

·소재지 : 시흥시 포동 새우개



신현면 관아지. 1995.

영조조에 발간된 『여지도서(輿地圖書)』「인천도호부 방리조」에 의하면 신현면은 인천부에서 동남으로 30리에 있는데, 호수는 459호에 남자는 476명, 여자는 577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정조대(1789)에 발간된 『호구총수』에는 신고개면(新古介面)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신고개는 '신현(新峴)'의 한글명이다. 방리는 1리(一里), 2리(二里), 3리(三里), 4리(四里), 포촌리(浦村里) 등 5개리로 편제되어 있고, 조선조 말에는 신촌리(新村里~신천동 새말)를 비롯하여 사천리(蛇川里→신천동 뱀내장터), 대야동(大也洞→대야동), 3리(三里→은행동), 창동(倉洞→미산동·창동), 죽원(竹院

→방산동 다니), 산정리(山井里→방산동 산우물), 방곡리(芳谷里→방산동 방골), 포동(浦洞→포동), 국동(局洞→포동) 등의 제지역으로 오늘날의 방산동, 미산동, 신천동, 대야동, 포동지역이다. 신현동의 행정명은 여기서 유래한 것이다. 신현면의 관아가 있었던 곳은 포동 새우개당집 아래로 알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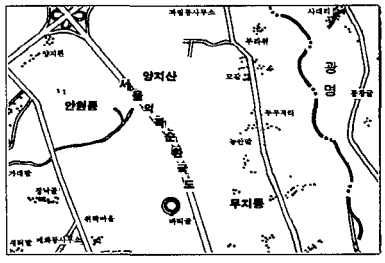
신현면은 1914년 부·군·면 통·폐합으로 부천군 소래면에 통합되면서 면치(面治)도 신천리(현 신천동 704-33)로 이전되었고, 그 뒤 1973년 시흥군 소래면이 되었다가, 1989년 시로 승격되자 일시 신관동(新官洞)으로 불리었고, 다시 하중동이 연성동에 편입되자 1992년 1월 1일 신현동(新峴洞·행정동 으로 개칭되었다.

<참고문헌> 『輿地圖書』, 『戶口總數』,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8) 田反面 官衙址

·소재지 : 시흥시 매화동 바티골(?)

『여지도서』「인천도호부 방리조」에 의하면, 전반면(田反面, 밭뒷면)은 인천부에서 동남 40리에 위치한 면으로, 호수는 303호에 남자 338명, 여자 435명인데, 안산(安山)과 경계한다고 하였다. 조선조 말에 발간된 자료에 의하면, 전반면의 방리는 일리양지리(一里陽支里→안현동 양지편)를 비롯하여 일리가대동(一里家垈洞→안현동 가대말), 일리송내동(一里松內洞→안현동 길마재), 이리장낙동(二里長樂洞→안현동 장낙골), 이리매착리(二里梅着里→매화동 매채기), 이리신기촌(二里新基村→매화동 샛터말), 이리율동(二里栗洞→매화동 섬말), 삼리도두리(三里道頭里→도창동 도두머리), 삼리강창리(三里江倉里→도창동 강창리), 사리진촌(四里陳村→금이동 진말), 오리검의리(五里儉義里→금이동 거멀), 육리도이리(六里道李里→금이동 도리재), 칠리능내동(七里陵內洞→무지동 능안말), 칠리중동(七里中洞→무지동 중동), 칠리신흥동(七里新興洞→무지동 신흥동), 칠리은행동(七里銀杏洞→무지동 은행동) 등인데, 오늘날의 안현동, 매화동, 도창동, 금이동, 무지동 등의 제지역이다. 이상의 지역은 1914년 부·군·면 통·폐합으로 부천군 소래면이 되었고, 1973년 7월 1일 시흥군 소래면이 되었다가 1989년 시흥시로 승격되면서 행정상으로 안현동은 은행동에, 그 외 지역은 매화동에 편입되었고, 그 뒤 1992년 1월 1일 무지동이 과림동과 합하여 과림동(果林洞)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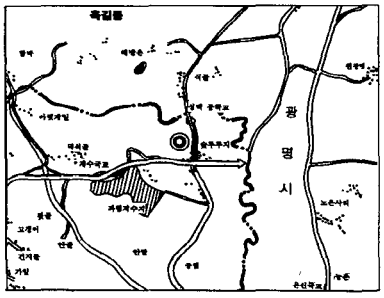
전반면 관아지 위치도. (⊙표)

<참고문헌> 『輿地圖書』, 『仁川府邑誌』,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관아터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매화동의 바티골이 본래 밭뒷골(田反谷)에서 나온 말이므로 관아 역시 이곳에 있었지 않나 추정된다.

(9) 黃等川面 官衙址

· 소재지 : 시흥시 과림동 숫두루지(?)



황등천면 관아지 위치도 (⊙표)

『여지도서』「인천도호부 방리조」에 의하면, 황등천면(黃等川面, 누릿개면)은 인천부에서 동쪽 40리로, 호수는 371호에 인구는 남자가 576명, 여자가 552명이었다. 광명시와 시흥시의 경계가 되는 목감천(牧甘川)이 조선시대에는 인천부(仁川府)와 금천현(衿川縣)의 경계였다. 조선시대에는 이 하천을 황등천(黃等川)이라고 불렀다. 하천에 게가 많아 야밤에 누런 등불을 밝히고 잡았다는 데서 유래하고 있다. 황등천을 따라 면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하천명을 취해 황등천면이라고 한 것이다. 황등천면의 관아터에 대하여는 알려진 사실이 없으나, 『신안주씨대동보(新安朱氏大同譜)』(1981)에 "주의동(朱宜東, 1773~1832)의 묘, 황등천 남 2리 중림에 있다"는 기록으로 보아 과림동 중림에서 북으로 2리 떨어진 과림동 숯두루지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황등천면의 관할구역은 일리두곡(一里杜谷→과림동 두무절이), 일리목과동(一里木果洞→과림동 모갈), 일리불아위(一里佛阿尉→과림동 부라위), 이리중림(二里重林→과림동 중림), 삼리탄평(三里炭坪→과림동 숯두루지), 삼리식곡(三里食谷→광명시 옥길동 식골)→사리두길(四里斗吉→광명시 옥길동 두길), 사리어연(四里魚淵→광명시 옥길동), 사리옥련동(四里玉蓮洞→부천시 옥길동 옥련동), 사리함박리(四里咸朴里→부천시 옥길동 함박), 오리계일(五里桂日→부천시 계수동 계일), 육리수노곡(六里壽老谷→계수동 수노골), 육리구미(六里九美→계수동 구미), 육리가일(六里佳日→계수동 가일), 육리건정리(六里乾井里→계수동 건지물), 육리고공리(六里古孔(公)里→계수동 고갱이), 칠리내곡(七里內谷→계수동 안골), 칠리후곡(七里後谷→계수동 뒷골?), 칠리덕석리(七里德石里→계수동 덕석골) 등인데, 이를 오늘날의 행정체계로 분류하면 계수동, 과림동, 옥길동(부천시, 광명시)이다. 이상의 행정구역은 1914년 부·군·면 통·폐합에 따라 부천군 소래면(蘇萊面)에 흡수 통합되었고, 이어 1973년 시흥군 소래면으로 개칭된 후, 1983년 2월 15일 옥길리 중 두길·식골 등은 광명시에, 함박·옥

현동은 부천시에 각각 편입되었다. 그 후 1989년 시로 승격되자 계수동은 대야동(행정동)에, 과림동은 매화동(행정동)으로 되었다가, 1992년 1월 15일 과림동과 무지동이 합하여 과림동(果林洞·행정동)으로 되었다.

<참고문헌> 『輿地圖書』, 『仁川府邑誌』, 『朝鮮地誌資料』

(10) 始興郡 官衙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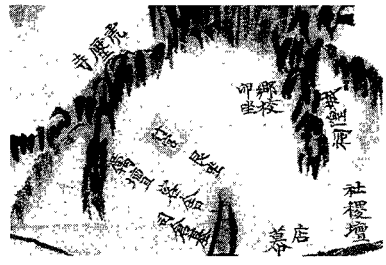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시흥 5동 831 일대

시흥은 고구려 때(475) 잉벌노현(仍伐奴縣), 신라 때(757) 곡양현(穀壤縣), 고려 때(940) 금주현(衿州縣), 조선조에 금천현(衿川縣)·금과현(衿果縣)·금양현(衿陽縣)을 거쳐 정조 19년(1795)에 안양에 만안교(萬安橋)를 가설하면서, 이 해 윤 2월 1일 고려 성종 때(991) 금주현의 별호인 시흥(始興)으로 개칭되었고, 이어 고종 32년(1895) 시흥군(始興郡)으로 승격되었다.



시흥군 지도(고종조).

이 당시의 시흥군 영역은 하북면(下北面, 상북면(上北面), 동면(東面), 군내면(郡內面), 남면(南面), 서면(西面) 등 6면인데, 이를 오늘날의 행정체계로 살펴보면, 안양시 만안구의 석수동·박달동, 광명시(옥길동 제외),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봉천동, 구로구 신도림동·가리봉동·구로동, 금천구 가리산동·독산동·시흥동, 영등포구 당산동·대림동·도림동·문래동·신길동·양평동·영등포동, 동작구 상도동 등의 제지역이다.



시흥관아 위치도(고종조). 조선 정조연간에는 시흥관아가 시흥행궁으로도 사용됨.

이상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던 관아는 구체적으로 어디일까? 이에 관하여 아직까지 밝혀진 사실은 없다. 그러나 읍지, 지리지 및 향토 원로들이 증언한 바를 종합하면 대체로 서울시 금천구 시흥 5동 107번 시내버스(범일운수) 종점 부근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시흥 5동 남쪽에 있는 금주산(衿州山·衿芝山·衿山·黔州山·虎岩)은 조선조 시흥현(또는 금천현)의 진산(鎭山)이었는데, 고려 초(940)부터 조선 정조조(1795)까지 옛 시흥지방의 행정명인 금주(衿州)와 금천(衿川)은 이 산명에서 취한 것으로 보이나, 일부에서는 금주의 관아 뒤에 있는 산이므로 금주산 등의 산명이 붙여졌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대원군(大院君), 신위(申緯), 강희맹(姜希孟) 등이 이 산을 찾아 읊은 시가 전해지고 있는데, 특히 강희맹이 지은 『금양잡록(衿陽雜錄)』은 이 산 아래에서 이곳 농부들과 농경생활을 하면서 저술한 것이다.*

*Ⅵ. 衿陽雜錄 참조.

호암(虎岩 또는 虎岩山) 이란 산명은 호랑이의 모양과 같은 바위가 이



시흥행궁의 배설(정조조).

산에 있기 때문인데, 이 호랑이 바위는 산 정상에서 서울 시흥동 쪽으로 면면이 뻗어 오다가 부러지듯 단절된 곳에 있다. 이 호랑이의 달리는 도참(圖讖)을 막지 않으면 금천(시흥) 고을은 흉재(凶災)를 못 면한다고 하여 이 기세를 꺾기 위하여 호암 아래에 호랑이를 짓누르는 호압사(虎壓寺)를 짓고, 또 그 호암이 뛰어내릴 만한 지점에 화살을 상징하는 궁교(弓橋)를 놓고, 다시 그 북쪽에 호랑이를 위압하는 사자암(獅子庵)을 지은 것이다. 현재도 그 지점에 호압사며 궁교며 사자암이 있다.

이 호랑이의 억센 지세는 호랑이바위 아래에 있는 세 개의 마이너스적 가치의 샘(泉)으로 나타났으니, 그것은 광천(狂泉), 음천(淫泉), 탐천(貪泉)인데, 이 물을 마시면 미치거나 탐욕해지거나 음탕해진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 금천(衿川, 옛 시흥) 삼성산 아래에서 태어나면 호랑이의 지세 때문에 슬기로움을 모조리 빼앗겨 어리석다는 속전이 지배적이어서, 이곳 주민들은 3월이 되면 친정 또는 이 마을을 피해 아이를 낳는 풍속까지 있었다.

이 풍수적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어리석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금천현감들이 부단히 노력했다. 오은지(吳隱之) 같은 분은 청백리로 유명한 분인데, 일찍이 금천의 현령으로 있으면서 탐천의 물을 직접 마시면서 자신이 탐해지지 않은 사실을 입증까지 하였고, 윤자(尹慈)는 호랑이 바위의 이름을 없애버리고자 우암(愚岩)이라 부르도록 계몽까지 하였는데, 이상의 사실들은 『동국여지승람』「금천현편」에 자세히 상술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虎岩山 : 현 읍치(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 있었음)에서 동쪽으로 5리 지점에 있다. 범 모양과 같은 바위가 있으므로 이름되었다. 尹慈의 說에 금천 동쪽에 있는 산의 우뚝한 형세가 범이 가는 것 같고, 또 험하고 위태한 바위가 있는데, 虎岩이라 부른다. 術士가 보고 바위 북쪽 모퉁이에다가 절을 세워서 虎壓寺라 하였다. 거기에서 북쪽으로 7리 지점에 있는 다리를 弓橋라 하고 또 북쪽 10리 지점에 獅子庵, 현 상도동 소재)이 있다. 모두 범이 가는 듯한 산세를 누르려는 것이었다. 내가 경오년 봄에 御史를 그만두고 이 고을에 현령으로 왔다. 고을 민속이 본래 어리석고, 나 또한 어리석었다. 사람들은 모두 바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전부터 그것을 진압하려 한 것도 어리석지 않기 위한 까닭이라 한다. 나는 말하기를, '옛적에 광천, 음천, 탐천이 있었다. 사람이 그 물을 마시면 미치거나 음하거나 탐하거나 하지 않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름되었다' 한다. 그런즉, 이 바위 밑에 살면서 여기에서 먹고 여기에서 놀고 여

기에서 자고 일어나고 하는 자가 어리석게 되지 않는 줄을 어찌 알겠나. 이치가 혹 그럴 듯하나 또한 알 수가 없다.

옛적에 오은지가 현령이 되어서 탐천 물을 마셨으나, 마침내 탐하지 않고 청백한 지조를 더욱 힘썼다. 그리하여 시험삼아 이제(백이숙제를 가리킴)에게 마시게 하여도 마침내 본심을 바꾸지는 않으리라는 시를 지었다. 하물며 사람의 슬기로움과 어리석음은 당초 태어날 때에 품수한 것이니, 산천이 어찌 바꾸어 지게 하리오. 가령 이 고을에 사는 자로서 혹 顔子의 어짊과 같이 어리석은 듯하면서 어리석지 않은 자가 있는지도 마침내 알 수가 없다. 이것으로써 미루어 보면, 민속과 나의 어리석음은 바위 때문이 아닌 것이고, 바위 때문이라 말하는 자가 진실로 어리석은 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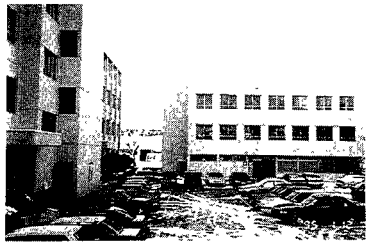
아, 당나라 柳子厚가 冉溪 풍경을 사랑하여, 거기에다 집을 짓고 愚溪라고 고쳤다. 이것은 자기의 어리석음으로 이름 붙인 것인데, 대개 예전 愚公谷의 남긴 뜻이며, 어리석지 않음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어리석은 나의 어리석음은 한마디 말과 한 번의 움직임과 공적·사적으로 어디에 가나 어리석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나도 유자후의 우계라는 우의 뜻을 가만히 본떠서 호암을 고쳐 愚岩이라 하였다. 그러나 그 참으로 어리석은 데에야 어찌하랴. 감히 설을 지어서 어리석지 않은 군자를 기다린다 하였다.

이 산에 虎岩山城이 있다.『신증동국여지승람』「금천현 고적조」에, '호암산성 : 석축이며 둘레는 1천 681척이다. 성안에 큰 못이 있는데, 날씨가 가물면 기우한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그 위치는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산 93-2로 면적은 75.053m^{2}에 이른다. 1989년부터 1990년까지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발굴조사 결과 축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우제를 지내던 한우물 내부에서는 한반도에서는 처음으로 鐵製도끼가 출토되었으며, 그 밖에 명문이 새겨진 청동숟갈 등 다량의 통일신라시대 유물이 나와 6세기 이후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 관련한 통일신라시대 문호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일부 문헌에 고성으로 기록되어 전하던 周邊山城, 퇴메식산성, 총연장 1.25km)의 존재가 확인되어 학술적으로도 뜻이 깊은 곳이 밝혀져 1991년 2월 사적 제343호(한우물 및 주변 산성지)로 지정되었다. 이 산은 본래 '虎岩山' 또는 '虎岩'이라고 불렀으나 조선 후기부터 금천현(시흥현)의 鎭山이 되면서 금주산, 금지산, 금산 등으로 개칭된 것으로 생각된다.

금주산 아래에 있던 시흥군 관아는 광무 3년(1899) 경인선 개통과 광무 9년(1905) 경부선이 개통되면서 시흥군 하북면 영등포리(현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영등포역이 설치되자 영등포 일대가 시흥군의 중심지로 발전되므로 1910년 12월 7일 방림방적 길 건너편(영등포세무소, 구로세무서 주변)으로 이전되었다.

<참고문헌> 『新增東國輿地勝覽』, 衿川縣條.
권상노,『韓國寺刹全書』下, 1979
李承彦,「行政區域變遷史」,『安養文化』3-1984.
———,「安養市 地名由來」,『安養市誌』, 1992.

(11) 始興郡 廳舍址 ①



시흥군 청사지 주변. 1995.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1가 23 주변

일제하의 시흥군 관아는 전술한 바와 같이 지금의 방림방적 길 건너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1가 23, 영등포세무서, 구로세무서 주변)에 있었다. 관아를 옮긴 지 4년 후인 1914년 3월 1일에는 안산군(安山郡)·과천군(果川郡)이 시흥군에 흡수 통합되자 그 관할구역도 종전의 시흥군보다 대폭 확장되었다. 3군 통합으로 시흥군은 6면 22리에서 9면 83리로 대편되었다. 당시 시흥군의 영역은 오늘날의 서울시 중 영등포구 영등포동·당산동·대림동·도림동·문래동·신길동·양평동, 동작구 전역, 관악구 전역, 구로구 신도림동·구로동 등, 금천구 독산동·시흥동 등, 서초구 반포동·방배동·서초동·신원동·양재동·우면동·원지동, 광명시(옥길동 제외), 안양시, 군포시, 과천시, 시흥시(옛 수암·군자 지역), 안산시(옛 수암·군자 지역) 등의 제지역인데 이때가 시흥군의 최융성기였다.

영등포역이 생기고 시흥군 관아 또한 이곳으로 이전하자 인구의 유입이 더욱 늘어나 1931년에는 하북면 영등포리가 영등포읍(永登浦邑)으로 승격되기에 이르렀다. 영등포 일대는 그 이후에도 도로, 하수, 위생 등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가옥을 신축해 이를 통제함과 아울러, 인구 증가로 날로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어 경성부를 확장해야 한다는 경성부회(京城府會)의 의결에 따라 총독부는 1934년 6월 26일 조선시가지 계획령을 공포하고 경성부 확장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리하여 동년 12월 중순에는 동 계획안을 경기도의 해당지역인 시흥군 등에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시흥군의 해당면 의회에서는 예정대로 심의를 했는데, 동면(東面)의 경우 시흥리(始興里), 가리봉리(加里峯里), 독산리(禿山里), 봉천리(奉天里), 상도리(上道里), 신림리(新林里), 안양리(安養里, 안양 석수동) 등 7개리 중에서 상도리 전부를 경성부에 편입시키기로 의결하였다. 이리하여 편입지인 시흥, 김포, 고양의 각 읍·면의회 의결사항을 1934년 12월 중순에 경기도에 보냈는데, 경기도에서는 영등포 일대의 세수입 감소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해를 넘겼다.

그러나 총독부의 강력한 지시에 따라 결국에는 1936년 4월 1일부터 부령 제8호에 의거, 영등포읍의 영등포리·당산리·양평리, 북면의 노량진리·본동리·흑석리·동작리·신길리·번대방리 일부, 도림리, 동면의 상

도리 등의 전역이 경성부(서울)에 편입되었다.

시흥군의 북부지역 특히 시흥군청사가 있는 영등포리 일대가 서울에 편입된다는 발표가 있자 시흥군의 각계 인사들은 군청사를 안양으로 이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은 물론 군청이전기성회를 조직하는 등 범군민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군청이전기성회에서는 영등포읍, 북면 등이 시흥군에서 분리되는 4월 1일 이전에 군청사를 이전시키기 위하여 기성회장에 당시 안양의 대표 회사였던 조선직물주식회사 안양공장장인 일본인 도타(桐田元次)를 선정했다. 당초 안양공회당에서 개최하려던 군민대회는 조선직물 안양공장 구내로 장소를 변경하고, 시흥군의 각 면의 공직자와 유지가 모인 가운데 경기도와 총독부에 진정키로 하고 한 시간 만에 산회했다. 기성회장단은 시흥군의 각계 인사 3천 225명이 서명 날인한 진정서를 경기도와 총독부에 제출하였는데, 진정요지는 시흥군민의 편익을 위해 시흥군청사를 시흥군의 중심지인 안양으로 이전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제는 남 되었으니 郡廳을 돌려 주오
—始興郡廳 移轉期成會員 入京活動, 永登浦에 있는 것은 安養으로 活動—

始興郡廳 이전기성회장 桐田元次 부회장 朴禧元 등 7人은 19일 총독부와 경기도 당국을 방문하고 현재 永登浦에 있는 시흥군청을 安養으로 이전해 달라고 진정하였다. 그 이유는 영등포는 원래 시흥군으로 보아서는 맨 북쪽에 있어서 군민 전반이 크게 불편을 당하여 왔으나 영등포는 시흥군 유일의 읍으로서 아직까지는 참아 왔다. 그러나 이제는 영등포는 경성부에 편입되게 되었으니 불편함을 당하면서까지 구태여 시흥군과 아무 상관도 없는 경성시내에 둘 필요는 없다. 안양으로 말하면 시흥의 중심지로 이 기회에 당연히 안양으로 이전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군민들은 3천 225명의 연서 날인한 진정서를 당국에 제출한 것이다. 경성부 확장에 즉면하야 서울로 시집가는 영등포로서는 친정 사당까지는 들고 가지 못하리라는 것으로서 당국의 처결이 주목되는 바이다.

—『동아일보』, 1936. 3. 20—

이렇듯 서이면민을 비롯한 시흥의 각면 유지들의 끈질긴 유치이전 운동에도 불구하고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광복 직후 안양으로 이전하였다.

<참고문헌> 『개벽』, 1924. 8
『동아일보』, 1936. 3. 20
李承彦, 「안양의 유래」, 『安養文化』 4-1985.
———, 「安養市地名由來」, 『安養文化』,5-1986
———, 「安養市地名由來」, 『安養市誌』, 1992.

(12) 始興郡 廳舍址 ②

· 소재지 :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4-251



시흥군 청사 ①. 현재 뉴코리아호텔이 들어섰다. 19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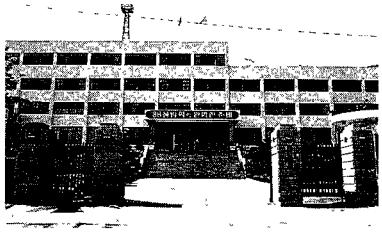
일제 때(1910~1945) 서울 영등포에 있던 시흥군 관아는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광복이 되자, 이 해 시흥군 안양면 안양리 660-7(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4-251, 뉴코리아호텔 자리)로 옮겼다. 안양리 번화가에 자리잡은 시흥군 관아자리는 본래 포도밭이었다고 한다. 군 관아 아래(동)에는 안양면(읍)사무소가 자리잡았고, 맞은편에는 안양역전 이화순가에 있던 안양경찰서가 자리잡는 등 이 일대는 어느새 관가의 거리로 급변했다.

광복 직후의 관할구역은 안양, 동, 신동, 과천, 서, 남, 수암, 군자 등 8개면 71리이었다. 그 뒤 1949년 8월 14일 안양면이 안양읍으로 승격됨과 동시에 동면의 구로리(九老里), 도림리(道林里), 번대방리(番大方里)가 서울시 영등포구에 편입되었다. 이어 1963년 1월 1일 신동면의 서초리(瑞草里) 등 8개리와 동면의 신림리(新林里) 등 5개리가 서울시에 편입되자 화성군 일왕면의 청계리 등 9개리가 시흥군에 편입되면서 의왕면(儀旺面)으로 개칭되었다. 1973년 7월 1일 안양읍이 시로 승격되자 부천군 소래면이 시흥군에 편입되어 시흥군은 1읍 6면에서 7면 74개리에 인구는 16만 1천 801명에 면적은 308km^{2}에 이르렀다. 그러나 안양 번화가에 자리잡은 군 관아는 건물(2층)의 노후로 터를 잡은 지 32년 만인 1977년 8월 30일 안양시 안양동 477-1에 새 건물을 짓고 이전하였다.

<참고문헌> 李承彦, 「안양의 유래」, 「安養文化』 4-1985
———, 「안양시지명유래」, 『安養市誌』, 1992.

(13) 始興郡 廳舍址 ③

· 소재지 :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77-1



시흥군 청사②. 현재 안양시 만안구 청사가 들어섰다. 1985.

시흥군 군내면 시흥리(始興郡 郡內面 始興里)에 처음으로 터전을 잡은 시흥군 관아는 그 후 하북면 영등포리를 거쳐 안양 번화가에서 다시 네 번째로 자리바꿈을 했는데, 그곳은 명산 수리산의 연봉인 관모산의 지맥이었다. 당시만 해도 이곳은 안양시가지에서 상당히 떨어진 외곳인데다가 교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군민들 사이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다. 숱한 우여곡절 끝에 이전이 완료된 것은 1977년 8월 30일이었다. 당시(1977) 시흥군의 관할구역은 광명출장소, 과천, 서, 남, 의왕, 수암, 군자, 소래 등

1출장소, 7면에 74법정리, 189행정리, 1천 528개의 국민반으로 편제되었으며 면적은 326.5km^{2}였다. 관아(청사)를 이전한 지 2년 후인 1979년 8월 10일에는 수암·군자면의 13개 법정리가 반월출장소에 편입되었는가 하면, 1981년 7월 1일에는 광명출장소와 소하읍이 광명시로 승격되었고, 이듬해 6월 10일에 과천면이 과천출장소에 편입되어 시흥군에서 각각 분리되었다. 그 뒤 1989년 1월 1일에는 시흥군의 급격한 팽창으로 말미암아 소래읍·수암면·군자면이 '시흥시(始興市)'로, 의왕읍·동부출장소가 '의왕시(儀旺市)'로, 군포읍이 '군포시(軍浦市)'로 각각 승격되어 분리와 함께 시흥군이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시흥군은 1895년 시흥군으로 승격된 지 93년, 3군(시흥군, 안산군, 과천군) 통합 후 74년 만에 끝났고(終於), 관아(청사) 또한 새로 입주한 지 11년 4개월 만인 이 해 5월 1일 안양시 만안출장소(→만안구)가 개소되자 청사로 사용되고 있다.



시흥군 지도, 1980.

<참고문헌> 李承彦, 「安養市地名由來」, 『安養市誌』,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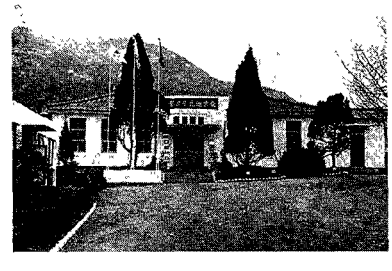
(14) 蘇萊面 事務所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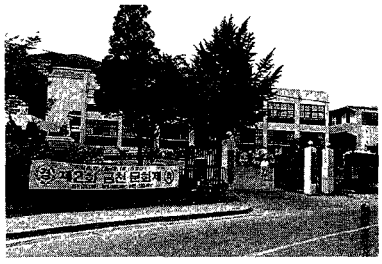
· 소재지 : 시흥시 신천동 704-33

조선시대 인천부의 신현(新峴), 전반(田反), 황등천(黃等川)의 3개면 지역으로, 1914년 부·군·면 통·폐합으로 부천군 소래면이 되었다. 면명(面名)은 소래산(蘇萊山)명에서 취한 것으로, 그 관할구역은 대야(大也)·신천(新川)·계수(桂壽)·은행(銀杏)·안현(鞍峴)·미산(米山)·방산(芳山)·포(浦)·매화(梅花)·도창(道倉)·금이(錦李)·무지(茂芝)·과림(果林)·옥길(玉吉) 등 14개 리였다. 이상의 제지역은 1973년 7월 1일 시흥군 소래면이 되었고, 1983년 2월 15일에는 계수리 일부가 부천시에, 옥길리 일부가 광명시에 각각 편입되었다. 이어 1989년 시로 승격되자 다섯 개의 행정동으로 분리되었는데, 신천동은 '신천동', 대야·계수동은 '대야동', 미산·방산·포동은 '신관동(1992, 신현동)', 안현동·은행동은 '은행동', 도창동·매화동·금이동·무지동·과림동은 '매화동'으로 각각 분리되었다. 그 후 1992년 과림동과 무지동은 '과림동'으로 분리되었다.

부천군 소래면 사무소의 첫 건물은 단층 일본식으로 부천군 소래면 신천리 308-2(1992년부터 신천동 704-33으로 지번 바뀜)로 현재의 제일문구 자리에 있다가, 건물의 노후로 1949년 이범섭(李範燮) 면장 재임 때 부천군 소래면 대야리 377-22(1992년부터 대야동 484-5로 지번 바뀜)로


소래면 사무소지. 1980.


소래읍 사무소 ①. 1984.



소래읍 사무소 ②. 1988.

현재의 시흥시청사 자리로 옮겼다. 1994년 현재 시청사 건물은 1986년 5월 10일에 신축했다(부지 808평, 연건평 366평). 1988년 12월 현재 소래읍의 면적은 50.36km^{2}에 13개 법정리, 44개 행정리, 255개 국민반으로 조직되었다.

역대 소래읍·면장

구 분	성 명	재임기간	비 고	출신
제1대	李範燮		面 長	연천군
제2대	白臺欽		面 長	도창동
제3대	金鎭瀅		面 長	인천
제4대	金鎭瀅		面 長	인천
제5대	尹泰宣		面 長	미산동
제6대	嚴翼龍		面 長	포동
제7대	文鍾赫	1965. 7. 1 ~1971. 12. 31	面 長	인천
제8대	李圭曒	1972. 1. 1~1975. 12. 22	面 長	계수동
제9대	任喆宰	1976. 1. 1~1976. 10. 23	面 長	미산동
제10대	尹泰壽	1976. 12. 2~1979. 11. 30	面 長	은행동
제11대	尹泰壽	1979. 12. 1~1982. 11. 10	邑 長	은행동
제12대	金鎭宅	1983. 11. 11~1988. 12. 31	邑 長	죽율동

(15) 秀岩面 事務所址

·소재지 : 시흥시 수암동 256→134-3

조선시대 안산군의 군내(郡內)·잉화(仍火)·초산(草山)의 3개면 지역으로 1914년 부·군·면 통·폐합으로 수암면(秀岩面)이 되었다. 면내 최

고봉인 수암봉(秀岩峯)에서 면명을 취했다.

수암면의 관할구역은 수암(秀岩)·장상(章上)·장하(章下)·부곡(釜谷)·성포(聲浦)·고잔(古棧)·월피(月陂)·양상(楊上)·와(瓦)·능곡(陵谷)·산현(山峴)·조남(鳥南)·목감(牧甘)·논곡(論谷)·광석(廣石)·물왕(物旺)·하상(下上)·하중(下中)·화정(花井) 등 19개 리였다. 1979년 8월 10일에는 고잔·부곡·양상·와·성포·월피 등 6개 리가 반월지구출장소(안산시)에 편입되어 시흥군 수암면에서 분리되었고, 이어 1989년 1월 1일에 시가 승격되자 수암·장상·장하·화정 등 4개 동은 '안산동(安山洞, 행정동)', 조남·논곡·산현·물왕·목감·광석·하상·능곡 등 8개 동은 '목감동(牧甘洞, 행정동)', 하중동은 '신관동(新官洞, 신관동)' 등 3개 행정동으로 분리되었다. 1992년 1월 1일에 신관동의 하중동, 안산동의 화정동, 목감동의 하상·능곡·광석 등 5개 동이 '연성동(蓮城洞, 행정동)'에 편입되었다.

시흥군 수암면의 첫 면사무소는 시흥군 수암면 수암리 256(현 수암동 256)으로 옛 안산군 관아의 건물인 객사(?) 건물을 사용하다가 1922년경 일부를 개축, 사용하였다. 그 뒤 건물의 노후로 수암리 134-3으로 옮겼다가 1989년 시로 승격되자 일시 안산동사무소로 사용되었다. 1988년 12월 현재 수암면의 면적은 39.51km^{2}에 법정리 13개리, 행정리 30개리, 국민반 108개였다. 한편 부지는 726평에 건평은 207평이었다.



수암면 사무소 ①.1959.



수암면 사무소 ②. 1988.

· 일제강점기의 역대 수암면장

- 1919 李光薰(산현동)
- 1927 柳箕馨(안산 부곡동)
- 1930 金用濟
- 1931 趙愼熙(수암동)
- 1933 李載侃(논곡동)
- 1935 姜貞元(안산 양상동)
- 1938 張淳鳳(장곡동)
- 1941 張淳鳳(장곡동)
- 1942 崔俊永(수암동)

※( )은 출신지임.

역대 수암면장(1945~1988)

구분	성명	재임기간	출신지
제 1 대	李 基 善	1945. 10. 1~1945. 11. 11	안양
제 2 대	柳 志 淵	1945. 11. 12~1948. 4. 6	목감동
제 3 대	李 源 宰	1948. 4. 7~1948. 9. 9	월피동(안산)
제 4 대	柳 志 淵	1948. 9. 10~1950. 4. 21	목감동
제 5 대	李 光 薰	1950. 5. 17~1950. 6. 25	산현동
제 6 대	柳 志 淵	1952. 5. 5~1956. 6. 25	목감동
제 7 대	鄭 淑 鉉	1956. 8. 5~1960. 11. 14	광석동
제 8 대	尹 起 烈	1960. 12. 30~1961. 6. 19	산현동
제 9 대	金 起 福	1961. 6. 30~1961. 12. 7	옹진
제 10 대	吳 敬 煥	1961. 12. 8~1965. 1. 8	
제 11 대	鄭 淑 鉉	1965. 1. 23~1968. 2. 23	광석동
제 12 대	鄭 基 憲	1968. 3. 5~1972. 4. 30	월피동(안산)
제 13 대	張 應 淳	1972. 6. 26~1973. 12. 16	하중동
제 14 대	朴 興 龍	1973. 6. 30~1975. 6. 30	화정동
제 15 대	金 盛 萬	1976. 1. 1~1977. 2. 17	수암동
제 16 대	金 光 鏞	1977. 2. 25~1977. 6. 10	조남동
제 17 대	姜 熙 泰	1977. 6. 21~1983. 1. 31	양상동(안산)
제 18 대	金 仁 煥	1983. 2. 1~1988. 12. 31	역곡동(부천)

(16) 君子面 事務所址

· 소재지 : 시흥시 거모동 1660-2

조선시대 안산군의 마유(馬遊)·와리(瓦里)·대월(大月)의 3개면 지역으로, 1914년 부·군·면 통·폐합으로 시흥군 군자면(君子面)이 되었다. 면내 최고봉인 군자봉(君子峯, 해발 199m)에서 면명을 취했다.

첫 군자면사무소의 위치는 군자국민학교 정문 앞에 있었는데, 단층 기와집이었다. 향토원로들에 의하면, 안산시 신길동 만해에 있었던 사옹원 분원(司甕院分院)의 건물을 헐어다 신축했다고 한다. 그 뒤 1949년 관내 유지인 정규창(丁奎昌, 1915~ , 거모동 1575-4)이 거모리 1660-2에 위치한 자신의 토지 800여 평을 희사하자 새 건물을 짓고 이사했다.



군자면 사무소 ①. 1952.

面事務所基地로 土地八百坪을 喜捨

'安養' 시흥군 군자면(君子面)은 면사무소를 신축하려고 이를 적극 추진하며 일방 신축기지를 물색 중이던바 동면 거모리(去毛里) 거주하는 정규창(丁奎昌) 씨가 자발적으로 자기 소유토지 800여 평(시가 二十만원)을 신축기지로 사용하여 달라고 기탁하여 왔으므로 관계 당국은 물론 일반 면민은 丁씨의 미거에 칭송이 자자하다.

—『동아일보』, 1949. 9. 26—



군자면 사무소 ②. 1983.



군자면 사무소 ③. 1988.

그 뒤 건물의 노후로 1987년 8월 1일 신축하였다. 1989년 시로 승격되자 군자동사무소로 사용되고 있다.

군자면의 관할구역은 군자리(君子里), 거모리(去毛里), 월곶리(月串里), 장현리(長峴里), 장곡리(長谷里), 죽율리(竹栗里), 정왕리(正往里), 신길리(新吉里), 선부리(仙府里), 원시리(元時里), 원곡리(元谷里), 목내리(木內里), 성곡리(城谷里), 초지리(草芝里) 등 14개 리였다가, 1979년 8월 10일 신길·목내·성곡·월곡·원시·초지·선부 등 7개 리가 반월출장소(안산시)에 편입되어 군자면에서 분리되었다. 1989년 시로 승격되자 거모·군자·장현·장곡·월곶 등 5개 동이 '거모동(去毛洞, 1994년 7월 1일자로 군자동으로 개칭)'으로 정왕·죽율 등 2개 동이 '정왕동(正往洞)'으로 분리되면서 군자면은 자연 소멸되었다. 이어 1992년 거모동 관내 장현·장곡동이 연성동에 편입되었다. 1988년 12월 현재 군자면의 면적은 42.6km^2

에 법정리 6개리, 행정리 25개 리, 국민반 100개로 편제되었다.

· **일제강점기의 역대 군자면장**

· 1919 崔俊鴻(안산 목내동)

· 1927~1941 柳志英(군자동)

· 1942 張淳鳳(장곡동)

※( )은 출신지임.

역대 군자면장(1947~1988)

구분	성명	재임기간	출신지
제 1 대	韓 中 鉉	1947. 4. 1~1951. 8. 6	거모동
제 2 대	安 鏞 載	1951. 8. 7~1953. 3. 10	죽율동
제 3 대	張 淳 鳳	1953. 3. 11~1957. 1. 24	장곡동
제 4 대	張 淳 鳳	1957. 3. 11~1960. 12. 20	장곡동
제 5 대	金 碩 圭	1960. 12. 15~1961. 6. 9	목내동(안산)
제 6 대	金 仁 鍾	1961. 6. 10~1967. 4. 6	정왕동
제 7 대	李 萬 根	1967. 4. 7~1967. 8. 20	황해 연백
제 8 대	金 仁 鍾	1967. 8. 21~1968. 3. 31	정왕동
제 9 대	元 用 翊	1968. 4. 1~1976. 3. 22	거모동
제 10 대	金 碩 圭	1976. 4. 1~1981. 5. 2	목내동(안산)
제 11 대	金 鎭 宅	1981. 5. 6~1983. 11. 11	죽율동
제 12 대	李 逈 洙	1983. 11. 12~1988. 12. 31	군자동

(17) 蛇川市場 警察官 駐在所址

· **소재지 : 시흥시 신천동 308-29**

인천경찰서 사천시장 경찰관주재소가 처음 설치된 것은 융희 1년(1907) 9월이었다. 이곳에 주재소가 설치된 것은 소시장(牛市場)으로 유

명한 뱀내시장(蛇川市場)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뒤 1914년 3월 1일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옛 인천군의 황등천면(黃等川面), 신현면(新峴面), 전반면(田反面)의 3개면이 부천군 소래면으로 개칭되면서 인천경찰서 소래경찰관주재소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해 부천군 소래면 신천리 308-29에 부지 145평에 와가(瓦家) 여덟 칸을 신축했는데, 주재소가 이곳에 위치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뱀내시장과 가까운 곳인데다가 바로 옆 건물이 부천군 소래면사무소이기 때문이었다. 그 뒤 1944년 7월 1일 경찰행정구역의 변경으로 부평경찰서 소래경찰관주재소로 바뀌었고, 1945년 광복이 되자 부평경찰서 소래지소로 되었다. 1969년 1월 15일 청사의 노후로 인하여 동 장소에 80만 원의 예산으로 33평의 건물을 신축했다.

그 뒤 1973년 7월 1일 소래면이 시흥군에 편입되자 안양경찰서 소래지서로 되었고, 이어 1984년 12월 1일 광명경찰서가 신설되자 광명경찰서 소래지서로 개칭되었으며, 1990년 1월 10일 광명경찰서 소래파출소로 되었다. 현 건물(대지 25평, 연건평 35평, 대야동 494)은 1992년 8월 17일에 신축되었다.



소래파출소.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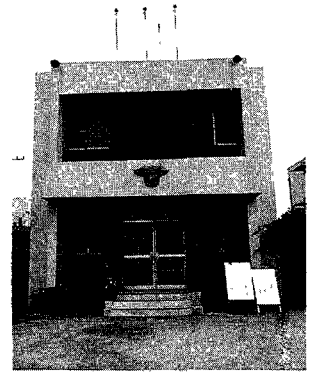
<참고문헌> 「소래파출소연혁지」.

(18) 安山警察官 駐在所址

· 소재지 : 시흥시 수암동 188

안산경찰관주재소가 있었던 곳은 지금의 수암유아원이 자리잡은 수암동 188번지이다. 이곳은 조선시대 안산군의 포도청관아가 있었던 곳인데 1910년 일제가 강점하면서 영등포경찰서 안산경찰관주재소란 현판을 걸고 경찰관 세 명이 수암면 일대 19개리의 치안을 담당했다. 이 주재소가 세인의 관심을 끈 것은 1919년 3월 30일 시흥군 수암면 일대에서 봉기한 3·1독립만세운동으로 수천 명이 이곳 앞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인 후 다수가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부터이다. 안산관아(수암면사무소)가 목조건물로 노후화되어 1922년 중수하자 그곳으로 옮긴 후, 1945년 광복이 되자 안양경찰서 안산경찰관주재소로 개칭되었다. 1955년 11월 26일 수암동 거주 최상찬이 안산동 육교(서편) 진입에 161평을 희사하자 구 청사 매각대금 30만 원 도합 110만 원으로 건물을 신축, 이전했다.

그 후 1984년 12월 1일 광명경찰서 신설로 광명경찰서 수암지서로 개칭되었으며, 이어 1985년 11월 18일 청사의 노후로 인하여 국고 지방비



수암파출소. 1992.

2천 600만 원의 예산으로 수암동 136-12에 대지 43평에 연건평 36평의 2층 슬라브 건물을 신축, 이전했다. 그 뒤 1988년 10월 15일 안산경찰서가 신설되자 안산경찰서 수암지소로 된 후, 다시 1990년 1월 12일 안산경찰서 수암파출소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참고문헌> 『安山邑城地表調査報告書』, 「수암파출소연혁지」.

(19) 君子警察官 駐在所址

· 소재지 : 시흥시 거모동



군자파출소. 1992.

군자경찰관주재소의 설치시기에 대하여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군자지역이 옛 안산군 관할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안산경찰관주재소와 같은 시기(1910)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첫 소재지는 녹원아파트와 망고개 사이 구 도로 옆에 있었다. 이곳은 1919년 4월 4일 군자지역에서 봉기한 3·1독립만세운동의 진원지이기도 하다. 그 뒤 군자면 거모리 1510-2로 이전(대지 94평, 목조기와집 23평)했다가 1945년 광복이 되자 이 해 6월 30일 안양경찰서가 신설되자 안양경찰서 군자경찰관주재소로 개칭됨과 동시에 동 청사의 노후로 인하여 동 장소에 벽돌 슬라브 2층 23.8평을 신축했다. 그 후 1982년 2월 17일 국유재산 교환승인(경무 1260~3688)에 따라 거모리 1515번지(대지 134평)의 사유재산과 교환했다. 이어 1984년 12월 1일 광명경찰서가 신설되자 광명경찰서 군자지서로 개칭되었고, 1988년 10월 15일 안산경찰서가 신설되자 안산경찰서 군자지서로 다시 개칭되었으며, 1990년 1월 1일 안산경찰서 군자파출소로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참고문헌> 「군자파출소연혁지」.

5. 壇·祠址

1) 概 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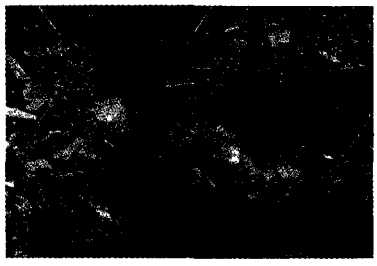
조선시대에는 각 고을(邑)마다 사직단(社稷壇), 여단(厲壇), 우사단(雩祀壇)등의 제단(諸壇)이 설치되었다. 사직은 토지신과 오곡신을 모시고 제사드리는 곳이며, 여단은 자손이 없어 제사를 못받는 사람과 염병의 전염 등을 막기 위해 설치되었다. 우사단은 천신에게 비내리기를 치제하던 단이다. 시흥지방은 전술한 바와 같이 안산군과 인천부(군)에 속했다. 특히 수암·군자 지역은 안산군지역으로 이 지역의 읍치(邑治)가 수암동에 있었던 관계로 제단 역시 읍치를 중심으로 설치되었으며, 소래지역은 인천부지역으로 이 지역의 읍치가 인천 문학동에 있었던 관계로 제단 역시 그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인천부의 진산(鎭山, 主山)이 소래산이었던 연유로 우사단(또는 기우제단)만이 그 아래에 설치되었다.

그 후 일제강점기를 거쳐 광복 이후 근대화과정에서 수많은 문화유적이 일실되었으나 이들 유적은 최근에 그 위치가 대부분 확인되어 그 규모와 성격의 일단을 엿볼 수가 있다. 성황사(城隍祠)는 옛 안산군의 두 곳에 설치되었는데, 그 중 한 곳이 군자봉 정상에 있던 군자성황사(君子城隍祠)이다.

2) 始興의 壇·祠址

(1) 安山社稷壇址

· 소재지 : 시흥시 조남동 산 71 일대



사직단 : 토축 안의 석축 노출상태. 1991.



사직단지 출토 와편. 1994.

사직(社稷)은 국토지주(國土之主)의 '사(社)'와 오곡지장(五穀之長)인 '직(稷)'의 두 신위(神位)에게 제사드리는 곳으로, 단(壇)을 쌓고 봉사(奉祀)하므로 '사직단(社稷壇)'이라 한다. 보통 사단(社壇)은 동쪽에, 직단(稷壇)은 서쪽에 설치한다. 국토와 오곡은 국가와 민생의 근본이 되므로 고대에는 나라에서 국가와 민생의 안정을 기원하고 보우(保佑)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반드시 사직을 설치하고 제사를 드렸다. 따라서 사직은 종묘(宗廟)와 함께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시되어 국가의 이칭(異稱)으로 '종사(宗社)'라 표현했다. 국가의 안위로 표현할 때는 '사직이 평안하다'든가 또는 '사직이 위태롭다'고 하며 정부중신을 '사직지신(社稷之臣)'이라 표현했다. 이러한 의미를 지닌 사직은 중국의 천자(天子)나 제후(諸侯)로서 새로 나라를 세워 백성을 다스리게 되면 모두 사직단을 만들어 백성을 위하여 복(福)을 비는 제사를 지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선덕왕이 738년에 처음으로 사직단을 세웠다. 그 뒤 고구려에서는 고국양왕, 고려는 성종 때(991), 조선은 태조가 즉위한 후 한양천도(漢陽遷都)의 뜻을 세워 1393년에 신도(新都)에 종묘, 사직 등의 행세지소를 만들었고, 이듬해(1394)에는 지금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에 높이 1m, 면적 72m^{2}의 규모로 건립되었다(사적 제121호). 현재는 국사단(國社壇)과 국직단(國稷壇)의 자취만 남아 있다. 이것은 신라 중기의 단과 고려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사방 3층의 돌층계로 꾸몄다. 그리고 이곳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직서(社稷署)를 두었다. 그 후 1897년에 이르러 이를 높여 태사태직(太社太稷)이라고 칭했으며, 지금의 사직공원이 이 사직단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으로, 동명도 사직동(社稷洞)이 되었다.

안산사직단의 설립시기는 알 수가 없지만 안산관아를 안산 목내동 능안에서 수암동으로 옮긴 1441년 이후로 보고 있다. 그리고 최초의 사직단의 위치 또한 알 수가 없지만 현존하고 있는 장하동 벌말(坪村) 뒷산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증거로 현장에 산재해 있는 와편 등이 적어도 조선

초기에 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곳은 안산관아의 서쪽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벌말에서 조남동 방화마을로 넘어가는 분지고개 위에서 서남쪽 능선을 따라 올라가면 해발 170m인 산 정상부에 사직단지가 있다. 이 산은 마산(해발 246.2m)에서 동쪽으로 뻗어내려온 지류가 경사가 완만하여 정상에서 서쪽으로 서해바다가 바라다보인다.

사직단은 정방형의 토축단(土築壇)으로 한 면의 길이는 13.5m이고, 높이는 1.5m 정도이다. 사직단의 내부는 외곽부보다 30~50cm 함몰되어 있으며, 외곽부의 안쪽에는 부분적으로 정연하게 쌓은 석축이 노출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토단(土壇)이 무너지지 않도록 폭 1m 정도의 석심을 쌓고 그 위에 흙을 다져 쌓은 것으로 생각된다. 사직단의 각면의 중간부분에 2m 폭의 함몰부가 있는 것으로 보아, 네 방향에서 정상부로 올라가는 흙으로 된 계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사직단의 각 면은 동, 서, 남, 북을 가리키고 있으나, 전체적인 방향은 약 20도 정도 틀어진 상태이다. 사직단 위에는 잡초와 잡목이 우거져 있으며 곳곳에서 와편(瓦片)이 다량 발견되고 있어 윗부분에 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발견되는 와편은 대체로 황갈색을 띠고 있으며 점토성이 강하다. 두께는 2cm 정도이며, 표면은 무문이 대부분이고, 이 면은 포문(布文)이 있는 조선시대의 기와들이다.

안산사직단의 폐치 연도는 알 수가 없지만 1899년에 발간된 『안산군읍지』 지도에 건물이 그려 있고, 또 안산군 사직단조(社稷壇條)의 기록으로 보아 1910년 일본제국주의가 강점하면서 곧 훼철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 사직단은 서울 사직단을 제외한 지방사직단은 거의 훼철되어 그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 점에 비추어볼 때 주변정리를 하면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 사직단에서는 장하동 벌말주민들이 해마다 음력 7월 1일에 마을의 안정과 풍년을 기원하는 우물고사(井祭)를 지내고 있다.

<참고문헌> 『安山郡邑誌』, 『서울六百年史』(文化史蹟編), 『내고장 安山』, 『安山邑城地表調查報告書』.

(2) 安山厲壇址

· 소재지 : 시흥시 수암동 산 1-3

여단(厲壇)은 자손이 없어 제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과, 결혼적령기에 죽은 처녀 총각의 혼이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귀신, 그리고 염병의 전염을 막기 위해 설치했던 것인데 일명 '여제단(厲祭壇)'이라 부르기도 한다.

여제(厲祭)에 성황(城隍)의 신좌(神座)는 단 위에 남향하고 제사 없는 귀신은 단 아래 좌우로 마주 향하게 한다. 신위(神位) 왼편에 두는 귀신은 전쟁으로 칼에 맞아 죽은 자, 수화(水火)와 도적을 만나 죽은 자, 남에게 재물을 빼앗기고 핍박을 당하여 죽은 자, 형벌을 당하여 억울하게 죽은 자, 천재(天災)의 돌림병으로 죽은 자이며, 또 맹수와 독충의 해침을 당하여 죽은 자, 얼어 죽고 굶어 죽은 자, 전투에서 죽은 자, 담과 집이 무너져 압사(壓死)한 자, 난사(難死)에 죽은 자, 벼락을 맞아 죽은 자, 떨어져 죽은 자, 죽어서 후사(後嗣)가 없는 자의 신위는 오른쪽에 두었다. 그리고 제사를 실시하는 날짜는 청명과 7월 15일, 10월 1일로서 1년에 세 차례에 정기적으로 실시케 하였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번 시행케 하였다.

『증보문헌비고』 권 63 「제단(祭壇)조」에, "궁내부에서 상주(上奏)한 내용을 보면 여제와 성황은 억울함을 씻어 주고 원통함을 풀어 주어서 여재가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민생의 화기를 구하고 보호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각 고을에서 단을 세우고 제사를 행하는 까닭은 8도에 제사 없는 귀신을 고르게 제사를 지내 주는 혜택에서 빠짐이 없도록 한 것이며, 장마와 더위로 가슴이 답답한 때와 추위가 처음 시작될 쌀쌀한 날씨 때에 여역(厲疫)과 요기(妖氣)가 성하기 때문에 청명일, 7월 15일, 10월 1일에 치제하는 것인데, 지금은 10월 1일에만 시행하므로 근본의미가 상실되어 청명과 10월 두 차례에 행사케 해야 한다"고 하자 고종이 윤허한 이후 두 차례만 지내다가, 1908년 칙령 제50호에 따라 폐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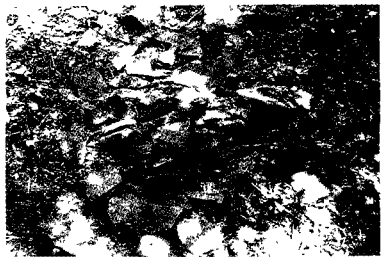

여단지 초석. 1989.

안산군 여단에 관한 문헌으로는 광무 3년(1899)에 발간된 『안산군읍지』와 『경기지』, 『경기읍지』 등이 있다. 이들 책 「단묘조」에 보면 "…여단재북군북일리(厲壇在北郡北一里)"라 하여 여단이 안산군 관아(수암동 256-1, 5)에서 북으로 1리 되는 지점(수암동 산 1-3)임을 밝히고 있다. 관아지에서 직선거리는 약 0.5km 로 수암봉에서 서쪽 능선을 따라 수암봉 중턱에 있다.

여단의 형태는 정방형에 가까우며 토단(土壇)으로 된 단의 윗부분과 주변에 잡목들이 많이 들어차 있다. 또단은 많이 무너져내리기는 했지만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여단의 네 모서리는 각각 동·서·남·북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안산군 여단의 규모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알려

진 바가 없다. 다만, 『안산군읍지』 지도에 한옥 한 동(一棟)만이 그려져 있을 뿐이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1에 있는 '북단터(北壇址)'가 사방이 21척, 높이 2척 5촌에 사방이 섬돌로 나와 있고, 축대 하나가 25보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곳 여단은 지방에 소재한 여단이므로 북단터보다는 그 규모가 작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안산군 여단의 토단 윗부분의 한 면이 11.1m 정도여서 면적은 121m^2(약 40평) 가량이 되지 않나 생각된다. 또 토단의 높이는 1.3m 정도로 약 60도의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북쪽이 남쪽보다 약간 높다. 단 위에서 많은 양의 기와편이 발견되는 점으로 보아 단 위에 건물이 세워지지 않았나 보여진다. 이곳에서 발견되는 기와편들은 무문와가가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파상문와(波狀文瓦)도 발견된다. 기와는 대체로 회청색의 경질와로 투박하며 견고한 느낌을 준다. 제작수법이나 문양 등으로 볼 때 대체로 조선 중기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안산여단지는 1989년 10월 17일 염충렬(시흥시 수암 2통장), 이한기(시흥시 향토사료실 상임위원)가 발견하였다.



여단터의 토단 윗부분(곳곳에서 많은 양의 와편이 발견된다). 1991.



여단터에서 채집된 유물. 1991.

<참고문헌> 『서울六百年史』(文化史蹟編)』, 『安山邑城地表調査報告書』, 『安山商議文化』.

(3) 安山雩祀壇址

· 소재지 : 시흥시 수암동 원당골 원당사지 위

우사단(雩祀壇)은 천신(天神)에게 기우(祈雨)를 하기 위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치제(致祭)하던 단으로, 치제신(致祭神)은 나무를 관장하는 신(大正)인 구망씨(句芒氏), 불을 관장하는 신(火正)인 축융씨(祝融氏), 흙을 관장하는 신(土正)인 후토씨(后土氏), 쇠를 관장하는 신(金正)인 욕목씨(蓐收氏), 물을 관장하는 신(水正)인 현명씨(玄冥氏), 그리고 농사를 관장하는 후직씨(后稷氏)로서 일정한 제일(祭日)을 정하지 않고 가뭄이 들 시기인 초여름에 치제하였으며, 입추(立秋) 뒤에 보사(報祀)를 지냈다.

우제(雩祭)란 곧 기우(祈雨)를 뜻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때(226) 혜수(惠樹)에서 처음으로 기우제를 지냈고, 이어 헌덕왕 9년(817)에 산천에 비 오기를 기원했다고 한다. 고구려에서는 평원왕 5년(563)에 가뭄이 심해 임금이 반찬을 줄이고 산천에 기도했으며, 백제에서는 402년에 화묘(禾苗)가 마르므로 임금이 횡악(橫岳)에 친히 치제했다. 고려시대에는 현종 2년(1011)에 종묘에 나아가 기우하고 시장을 옮김과 동시에 짐승의

도살을 금하고 억울한 옥사를 살피며 곤궁한 백성을 구출하였다.

조선시대에도 고려시대처럼 역대 임금이 우제에 정성을 기울였다. 1398년을 시작으로 태종 14년(1414) 5월 우사단을 처음 설치하고, 이듬해 큰 가뭄이 들자 임금은 날마다 한 가지 반찬만 먹고 그냥 뙤약볕에 앉았다가 병환을 얻기도 하였다. 숙종 때(1714) 가뭄이 극심하자 임금이 몸소 분향하고 묵도(默禱)를 하여 비가 내리자 임금이 어제시를 지어 오태주(吳泰周)에게 내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봄비가 때 맞추어 밤새도록 내리니,
건곤(乾坤)에 혜택을 만물이 모두 입네.
병중에 있으나 백성일 어찌 잊나.
보리농사 풍년들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안산우사단지. 1994.

우사단은 순종 2년(1908) 칙령 제50호에 따라 폐지시키고 구지(舊址)는 국유에 이속시켰다.

안산우사단은 시흥시 수암동의 원당사(元堂寺) 뒷편에 있었다. 『안산군읍지』에는 관아(수암동 256-1, 5)의 동편 수리산 아래에 원당사지(元堂寺址)가 있었고 그 뒤편에 우사단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곳에는 현재 국군 탄약폭파처리장이 있어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데다가 유적 주변은 수목이 우거져 있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우사단은 선농단, 선잠단 등과 함께 중사(中祀)에 속하며 관아의 동쪽에 위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단의 넓이는 보통 4장(丈)이다.

제사는 보통 맹하(孟夏)에 거행되었다. 축문에는 조선국왕 성(姓) 휘(諱)를 썼다. 민가에서는 산꼭대기나 냇가 등에 제단을 쌓고 신역(神域)을 정하여 정결히 하고 제사를 지냈다. 제주(祭主)는 마을의 장(長)이나 지방관원의 장이 맡았으며, 제물(祭物)로는 돼지, 닭, 술, 과일, 떡, 밥, 포 등을 올리고 때로는 무녀(巫女)의 가무(歌舞)가 있었다.

『용재총화』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기우제로 종묘사직과 흥인·숭례·돈의·숭정의 4대문에서 제사했고 오룡제(五龍祭)를 동·서·남·북 4교와 중앙의 종각 앞에서 거행했으며, 『연려실기술』에 따르면 모화관, 경회루, 춘당대, 성농단, 한강변 등에서 기우제를 거행한 기록이 있다.

안산우사단은 여러 종류의 읍지에 대체로 기술되어 있지 않으며, 지도에도 위치 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사직단, 여단보다 먼저 폐치된 것으

로 보여진다. 군 부대의 협조로 정확한 위치와 규모 성격 등이 파악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安山郡邑誌』, 『서울六百年史』(文化史蹟編), 『安山邑城地表調査報告書』.

(4) 仁川府雩祀壇址

· 소재지 : 시흥시 대야동 소래산 제터골

소래산은 조선시대 인천부의 진산(鎭山, 주산)이다. 예로부터 소래산에는 대소 명당이 많았다고 한다. 대야동 웃대야리에서 병풍바위를 향해 올라가다 보면 약수터가 나오고, 그곳에서 다시 약 50m쯤 올라가면 평퍼짐한 곳에 당도하게 되는데 이곳이 조선시대 인천부에서 기우제를 지내던 '우사단지(雩祀壇址)'이다. 마을에서는 이 일대를 '제터골(祭址谷)'이라고 부르는데 '기우제를 지낸 터'란 뜻이라고 한다. 주민들에 따르면 광복 직전까지만 해도 대야동 주민들이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냈다고 한다.



인천부 기우제단지. 1993.

우사단은 기우제를 지내던 제단이다. 기우제는 국가와 민간에서 비 오기를 기원하는 제사(祭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3, 4년에 한 번씩 한재를 당했으므로 조정과 지방관청, 민간을 막론하고 가뭄에 대처하여 기우제가 성행했다. 조정에서는 왕이 정치를 잘못한 천벌이라 하여 왕 스스로가 몸을 청결히 하고 하늘에 제사하였으며, 지방관아에서는 관아의 수령이 직접 기우제를 드렸다. 그리고 민가에서는 산상이나 냇가 등에 제단을 쌓아 신역을 정하고 제를 지냈다.

제주(祭酒)는 마을의 장(長)이나 지방관원의 장이 맡았으며, 제물로는 돼지, 닭, 술, 과일, 떡, 밥, 포 등을 올리고 때로는 무녀(巫女)의 가무(歌舞)가 있었다.

<참고문헌> 『서울 外廓循環高速道路文化遺蹟地表調査報告書』.
대담 : 한정석(韓貞錫, 1918. 6. 27～ , 대야동 117)

(5) 君子城隍祠址

· 소재지 : 시흥시 군자동 산 22-3

마을 수호신을 가리키는 말을 보통 성황(城隍) 또는 서낭이라고 한다. 이능화(李能和)의 주장에 따르면, 성황신앙은 중국 북제시대(北齊時代)에 출현하여 송대(宋代)에 이르러 크게 전파된 신앙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 성황신이 전래된 것은 고려 문종 때 신성진(新城鎭)에 성황사(城隍祠)를 둔 것이 성황의 시초라고 한다. 그 뒤 고려시대에는 각 고을마다 성황을



군자 성황사지 신목. 1986.



군자 성황사지 위에 있는 신단. 1993.

두고 이를 극진히 위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국행(國行) 성황과 민간에서의 성황으로 나누어진다. 이성계(李成桂)는 즉위 후 여러 산천의 서낭을 제사하였으며, 태종은 백악(白岳) 성황과 송악(松岳) 성황을 신도(新都) 성황으로 모셨다. 그 밖에 각 고을의 성황에서는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냈을 뿐만 아니라 국난이 있거나 가뭄이 있을 때 성황제를 거행하여 국태민안을 기하려 하였다.

군자동 군자봉(君子峯) 정상에 있던 성황사가 언제 설치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안산군 사묘조」에 "성황사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군의 서쪽 21리에 있고 하나는 군의 서쪽 32리에 있다(城隍祠有二祠一在郡西二十一里 一在郡西三十二里)"라는 기록으로 보아 조선 성종조 이전에 이미 성황사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위 기록에서 21리 떨어진 곳의 성황사가 군자성황사이고, 32리 떨어진 곳의 성황사가 안산시 성곡동에 있는 잿머리성황사(城頭里城隍祠)이다.

이곳에는 중국으로 가던 서희와 신라 제56대 경순왕인 김부와 왕비 홍씨, 그 어머니 안씨의 혼령과의 만남에 관한 전설이 내려온다. 이상의 전설로 보아 이곳의 성황당은 고려 성종 때부터 묘셔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속학자 장철수(張哲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전설에 나오는 신라 마지막 임금인 김부는 아마 착오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는 이곳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곳과 관계가 있는 고려시대 초의 인물로 안산군(安山君)으로 봉해지고 안산 김씨의 중시조로 알려진 김은부(金殷傅)가 아닐까 생각한다. 앞으로 보다 더 자세한 연구에 의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측을 군자산(봉)에 있는 또 다른 성황당이 경순왕 김부를 모시는 당이라는 전설과 함께, 이곳이 그 부인당이라는 전설과 함께 미루어볼 때 그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이곳의 성황당 기원전설에서 보듯이 한 지역 내에서 원한관계에 있는 인격신이 동시에 숭배되거나 신앙대상으로 모셔질 수 없기 때문이다. 소박맞았다는 내용은 두 당이 갈라지게 된 사상적 배경을 나타내는 것으로, 혹시 조선시대에 들어서 강화되기 시작한 유교적 남녀 윤리관은 부계(父系)와 모계(母系)를 구분하기 시작했던 사회구조를 반영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따라서 군자봉의 성황당은 김부를 모신 것이 아니라 이곳을 식읍으로 받았을 김은부를 성황신으로 모셨다고 볼 수 있다고 하겠다. 김부와 김은부의 이름이 유사한 데서 비롯된 착오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처음에는 양쪽 모두 안산군이었던 김은부 내외를 함께 모셨던 것이 조선시대 초부터 부계적 사회구조가 자리를 잡기 시작한 다음부터 모계인 김은부의 처가 쪽을 중심으로 한 후손들에 의해서 이곳의 성황당이 부인당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서희 가문과의 관계와 함께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서 밝혀질 문제라고 하겠다…."

이곳 촌로들에 의하면, 성황사는 최근에 설치된 성황단에서 약간 북쪽으로 떨어진 평평한 곳에 있었다고 한다. 이 성황사가 최후로 모습을 보인 것은 1960년대 초로 알려지고 있다. 즉, 외래종교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원인 모를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한다.

군자성황은 시흥의 대표적 민속신앙으로 시흥·안양·안산 지방은 물론 전국의 무속인이나 민속학에 관심 있는 인사들이 연중무휴 이곳을 찾는다.

<참고문헌>『新增東國輿地勝覽』, 『安山郡邑誌』, 『東國輿地志』, 『始輿郡誌』 上, 『내고장 安山』,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6. 院·驛舍址

1) 概 要



역참: 역마를 타고 여행하다가 역마를 갈아 타는 역참에 이르면 지친 말을 기운 나는 새 말로 바꾼다. 『사진으로 보는 조선시대 생활과 풍속』.

원(院)은 고려·조선 시대 때 출장하는 관리들의 숙박소(宿泊所)로, 공용(公用)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숙식의 편의를 주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원은 역(驛)과 함께 사용되기도 했는데, 이는 역과 관련을 가지고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원의 설치시초는 확실치 않으나 삼국시대 우역(郵驛)을 설치하고 사신의 왕래처에 관(館)을 두었던 점으로 보아 이때부터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시대에는 1천 310개소의 원이 설치되었다. 원에는 원우(院宇)를 짓고 서울지역은 5부, 지방은 수령이 부근의 주민 가운데 승려, 향리, 관리

로써 대로는 5호, 중로는 3호, 소로는 2호를 원주(院主)로 임명하고, 이들에게는 잡역을 면제해 주는 대신 원 운영의 책임을 맡겼다. 원은 교통사정이 원활하지 못한 당시에 여행자를 도둑이나 맹수로부터 보호하고 사신접대와 숙식을 제공하였으며, 때로는 굶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일반 행인에게도 휴식 및 투숙처로 제공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용자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점차 쇠락하여 임진왜란을 겪고 난 후부터는 그 피해가 많아 주막 또는 주점으로 변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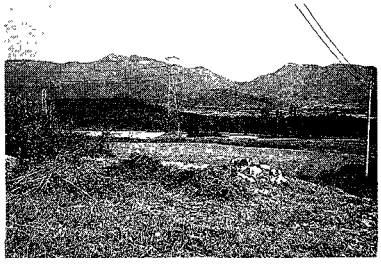
역(驛)은 국가의 명령과 공문서의 전달, 변경의 중요한 군사정보, 그리고 사신왕래에 따른 영송(迎送)과 접대 등을 위하여 마련된 교통통신기관의 하나로 우역(郵驛)이라고도 한다. 역의 시초는 신라 소지왕 9년(487)인 듯하며, 그 후 고려 때에는 전국의 도로를 대·중·소로 3등분하고 547개 역에 22명의 역승(驛丞), 역승 밑에 역장(驛長, 역정(驛丁)을 두었고, 병부(兵部)에 소속되었으며 역전(驛田)으로 경비를 충당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세조 3년(1457)에 역승을 찰방(察訪)으로 개칭하고 전국에 538개의 역을 두고 이를 40구역으로 나누어 각각 찰방을 두었는데, 찰방이 주재하는 역을 찰방역(察訪驛)이라 불렀다. 역은 대체로 30리에 하나씩 두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지역 등의 형편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옛 시흥(시흥군, 안산군, 과천군) 관내 조선시대에 있었던 역은 모두 8개 역이다. 즉, 시흥군은 시흥군치소(시흥군 군내면 시흥리, 현 서울 금천구 시흥 5동)에서 북으로 5리 지점에 위치한 반유구화역(盤乳仇火驛, 현 서울 금천구 독산동)이며, 안산군은 안산군치소(안산군 군내면 서정리, 현 시흥시 수암동)에서 남쪽 5리에 있었던 쌍록원(雙鹿院, 현 시흥시 장하동 원뒤)와 서쪽 7리에 있었던 석곡역(石谷驛), 그리고 과천군은 과천군치소(과천군 군내면 관문리, 현 과천시 관문동)에서 동쪽 17리에 위치한 양재역(良才驛), 북쪽 20리에 위치한 노량원(露梁院), 남쪽 15리에 위치한 인덕원(仁德院), 서쪽 15리에 위치한 미륵원(彌勒院), 북쪽 10리에 위치한 오금원(吾金院), 북쪽 5리에 위치한 요광원(要光院) 등 8개 역이다. 그리고 현 시흥시 관내에는 전술한 석곡역과 인천부 관내에 있었던 중림역(重林驛) 등 2개 역이다.

<참고문헌> 『始興郡邑誌』, 『安山郡邑誌』, 『果川郡邑誌』, 『仁川府邑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 始興의 院·驛舍址

(1) 雙鹿院址



쌍록원지. 1987.

<참고문헌> 『安山郡邑誌』, 『始興郡誌』 上, 『내고장 安山』.

· 소재지 : 시흥시 장하동 산 32-1

쌍록원지는 시흥시 장하동 원뒤(院後) 동북쪽 막둑목장 아래에 있었다. 『안산군읍지』(1899) 「역원조」에 "쌍록원, 군의 남쪽 5리 되는 곳에 있었으나 이미 없어졌다(雙鹿院 在郡南五里已廢)"라고 기록되어 있을 뿐 언제 설치되어 언제 폐치되었다는 기록은 없다. 이곳은 고려와 조선 시대 때 남양, 안산 등지에서 개성을 왕래하는 주요 교통로였다. '원뒤'란 마을이름은 이 원의 뒤편에 위치한 데서 붙여진 것이다. 이 터는 안산~시흥간 고속도로 옆에 있다. 지목상에는 임야이나 농지(밭)로 이용되고 있다.

(2) 重林驛舍址



중림역사지. 1987.

<참고문헌> 『新增東國輿地勝覽』, 『仁川府邑誌』.

· 소재지 : 시흥시 과림동 중림 안말

과림동 중림마을 안말에 있었다. 이 역에 대해『신증동국여지승람』「인천부 역원조」에 "중림역; 부(府) 서쪽 30리 되는 곳에 있다. 역승(驛丞)을 두었다. 본도(本道)에 예속된 역이 여섯인데 경신(慶信), 반유(盤乳), 석곡(石谷), 김륜(金輪), 종생(終生), 남산(南山)이다. 승(丞)이 한 사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여지도서』「인천도호부 역원조」에 의하면, 중림역에는 대마(大馬)가 한 필, 기마(騎馬) 두 필, 복마(卜馬) 세 필이고, 노비(奴碑) 쉰다섯 명이었다. 그러나 이 역이 언제 폐치되었는지 대하여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촌로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조선 후기에 서(徐)모가 경기감사로 있을 때 중림역사(重林驛舍)를 헐고 그 자리에 선친의 묘를 썼다고 한다.

(3) 石谷驛舍址

· 소재지 : 시흥시 거모동 도일

거모동사무소와 군자공고 사이에 위치한 마을을 '도일'이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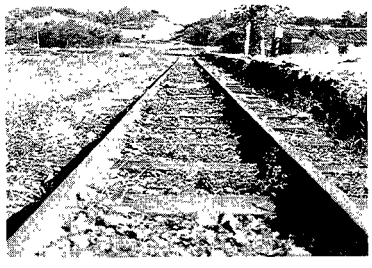
이 마을은 본래 군자국교 뒷산(환자산 또는 주라산이라고 일컬음) 골짜기에 있었는데, 조선 중기(?) 때부터 거모동 일대에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자 지금의 위치로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취락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돌골짜기에 자리잡은 마을이라 하여 돌고을, 돌고지, 돌골(石谷)이라고 부르다가 후대로 내려오면서 도일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보아 석곡역 또한 환자산 아래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나 정확한 위치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신증동국여지승람』, 『안산군읍지』 등에 "석곡역, 군 서쪽 7리 되는 곳에 있다"는 기록으로 보아 처음에는 도일에 있었다가 후대에 이르러 안산시 양상동으로 이전하면서 양상리역(楊上里驛) 또는 양상역(楊上驛)으로 개칭되었다.

<참고문헌> 『新增東國輿地勝覽』, 『安山郡邑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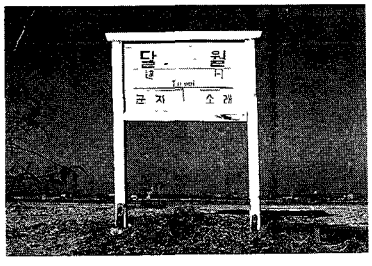
(4) 달월驛舍址

· 소재지 : 시흥시 월곳동 664-3

수인선은 인천과 수원간의 해안산을 따라 부설된 협궤열차로 총 연장은 52km에 달한다. 1935년 9월 23일 경동철도주식회사(京東鐵道株式會社)가 수원에 본사를 두고 강원도 오지의 풍부한 물자를 인천항으로 수송하는 한편, 군자, 소래, 남동 등의 염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을 오지로 수송하고, 또 당시 개장을 서두르고 있던 인천 송도유원지에 철도편을 연결시켜 유락인에게 교통의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간의 경제를 촉진시킨다는 목적으로 조선총독부로부터 철도 부설허가를 얻어 그 이듬해(1936) 5월 16일 250만 원의 예산으로 공사에 착수하여 1년 2개월 만인 1937년 7월 19일에 준공되었다. 그러나 영업은 약 20일 늦은 동년 8월 6일에 시작되었다.



달월역사 앞에 놓인 수인선 레일. 1994.



달월역 행선표.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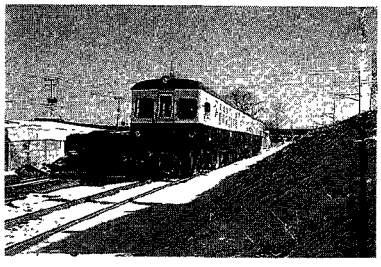
이 철도는 인천항을 출발하여 송도·소래·달월·군자·원곡·고잔·일리·야목·어천·고색 등의 역을 거쳐 수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중 군자역과 달월역이 시흥시 관내에 위치해 있다. 역명인 '달월'은 월곳동 전역을 통칭해 부르는 말이며 역사(驛舍)가 있던 마을은 이호정(二戶井)이다. 이호정은 달월역이 설치되면서 생긴 마을로 집 두 채(二戶)와 우물(井) 하나가 있어 붙여진 것이다. 첫 역사에 관하여는 자료가 없어 자세히 알 수가 없으나 1937년 수인선의 개통과 동시에 건립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 후 달월역사는 건물의 노후로 1962년경 월곳동 주민들에 의해

건립(블록 건물로 약 5평임)되었다. 달월역의 마지막 역장(驛長)은 이봉수(李逢洙)인데, 그는 1971년에 부임하여 1994년 8월 31일 달월역이 폐쇄될 때까지 23년간 봉직했다. 그는 서울 철도청에서 기차표를 가져다 팔고 판매가액의 10%의 수수료를 받아 운영했는데, 한창 수입이 좋을 때는 노동자 노임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익이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말 안산 신도시개발 이후 인근이 도시화되면서 승객이 점차 줄어 폐쇄 직전에는 1개월 수입이래야 기껏 3, 4만원에 불과해 그 수입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생계수단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이곳 역사를 이용하는 승객은 월곶동 주민들을 비롯하여 장곡동과 정왕동의 함줄, 뒷방울, 사래이 주민들로 이들은 대개 소매상인들이거나 학생들이었다고 역장 이씨는 말한다.

<참고문헌> 『始興郡誌』 下, 『내고장 安山』, 『仁川文化』 9-1987.
대담 : 이봉수(李逢洙, 1929. 2. 8~ , 월곶동 664-3).

(5) 君子驛舍址

· 소재지 : 시흥시 정왕동 876-55



수인선 협궤열차(촬영 : 류남해). 1990.



군자역 행선표. 1994.

수인선 원곡역(元谷驛)과 달월역 사이로, 피양촌(平安村)에 있었다. 즉, 1987년경 KBS TV에 방영된 「토지」(박경리 작)의 용정역(龍井驛)이 설치됐던 맞은편에 있었다. 역명을 '군자역'라고 한 것은 이곳이 군자면인데다가 인근에 대단위 염전인 군자염전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역을 설치한 이유도 승객의 이용보다는 군자염전에서 생산되는 소금의 원활한 수송을 위함이었다. 1922년에 조성된 군자염전은 단일염전으로는 남한 최대 규모의 염전으로, 염전의 공사를 대부분 피양(평양)의 노동자들이 참여하면서 거주하기 시작하자 이 일대를 '피양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군자역의 첫 역사(驛舍)도 달월역사와 같이 1937년 수인선 개통과 함께 건립되었다가, 건물의 노후로 일제강점기 말엽에 철도국에 의해 신축(와가 10평 정도)되어 역사로 사용되다가 1988년경 시화지구사업이 시작되면서 헐렸다. 운행횟수는 한때 객차만 하루에 8회 왕복 운행되다가 1973년 10월 1일부터 5회로 줄었고, 다시 1983년 6월 1일부터 1994년 8월 31일 폐쇄될 때까지 3회 왕복 운행했다.

이용하는 승객은 주로 정왕동, 죽율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이거나 아낙네들로, 특히 아낙네들은 농작물을 비롯하여 닭, 계란, 어패류나 농촌에서 나는 일용잡화 등을 꾸린 보따리를 들고 이곳에서 기차를 타고 남인천에서 하차하여 남인천역전 광장 오른쪽 공지에서 노점상을 벌였다. 아낙네

장수가 하나둘 수를 더해 가고, 시중보다 염가에 매매가 이루어져 인천 시내 곳곳에서 직접 소비자가 모여들고 아낙네 장수들로부터 도매값으로 물화를 사들이려는 소규모 소매상인들도 모여들어 남인천역 광장은 아침 장터로 변해 '수인역시장'이라는 말까지 생겨나기도 했다. 그러나 남인천역이 폐쇄된 후에는 아침장을 형성하던 아낙네 장수가 줄어들고 송도 역전으로 그 상권이 이동되었으나, 남인천역 시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규모가 적었고 거래 품목이나 물량도 크게 줄어 시장의 면모를 잃었다. 그나마도 1994년 8월 31일을 기해 군자역, 달월역 등이 폐쇄되자 먼 추억으로만 남게 되었다.

<참고문헌> 『始興郡誌』 下, 『내고장 安山』, 『仁川文化』 9-1987.
대담 : 이홍우(李興雨, 1931. 8. 1～ , 정왕동 1185-12).

7. 市場址

1) 概 要



조선시대 우시장. 『사진으로 보는 조선시대 생활과 풍속』.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물화(物貨)의 교환은 시전(市廛)조직과 시장(市場)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특히 시장은 일정한 장소와 소비자가 모여 물화를 교환하는 곳이어서 지방에서는 시장이 유일한 물화의 교환처가 되어 왔다.

시흥지방(옛 시흥군)은 수도인 한성(漢城)에 인접해 있어 입지적 및 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타지역보다 일찍이 시장이 발달하였는데, 조선 말에 시흥관내에는 방축장시(防築場市)와 산대장시(山垈場市) 및 수암시장(秀岩市場) 등 3개 시장이 있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영등포시(永登浦市)를 비롯하여 잠실리시(蠶室里市)·군포장시(軍浦場市)·삼거리시(三巨里市)·사천시(蛇川市) 등의 시장이

개설되었다. 영등포시는 3일, 8일에 개장된 시장으로 시흥군 영등포면 영등포리(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었고, 잠실리시는 정기시장으로 3일, 8일에 개장되어 시흥군 신동면 잠실리(현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었다. 삼거리시는 수암면 능곡리(현 시흥시 능곡동 삼거리)에 있었는데, 3·8일장이었다. 군포장시는 5·10일장으로 서이면 호계리(현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구군포)에 위치해 있었다. 사천시는 우시장으로 1일, 6일에 개장되었는데 부천군 소래면 신천리(현 시흥시 신천동)에 위치하였다.

광복 후에는 안양장(安養場, 5·10일장으로 안양읍 안양리), 군포장(軍浦場, 2·7일장, 남면 당리), 삼거리장(三巨里場, 5·10일장, 수암면 능곡리), 안산장(安山場, 2·7일장, 수암면 수암리), 사천장(蛇川場, 1·6일장, 소래면 신천리), 도일장(3·8일장, 군자면 거모리) 등이 비교적 활발한 시장을 형성하였으나, 그 후 교통의 발달과 대형 상가 및 슈퍼마켓 등의 등장으로 재래시장은 점차 사라지고 현재는 도일시장만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조선 말기 시흥지방의 시장현황

시장명	당시위치	시흥군 당시지명	현재지명
防築場市(廣石場市)	安山郡草山面廣石里	시흥군 수암면 광석리	시흥시 광석동
山坐場市	安山郡大月面仙府里	시흥군 군자면 선부리	안산시 선부동
秀岩市場 (邑內場→安山市場)	安山郡郡內面 秀岩里	시흥군 수암면 수암리	시흥시 수암동

자료:『安山郡邑誌』, 1841·『朝鮮地志』, 1919·『始興郡誌』下.

일제 강점기의 시흥의 시장현황

시장명	등급	구분	개장일	당시위치	현재지명
永登浦市	1호	공설	3·8일	시흥군 영등포면 영등포리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蠶室里市	1호	공설	3·8일	시흥군 신동면 잠실리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三巨里市	1호	공설	3·8일	시흥군 수암면 능곡리	시흥시 능곡동(삼거리)
軍浦場市	1호	공설	5·10일	시흥군 서이면 호계리	안양시 동안구 호계 3동 (구군포)
蛇 川 市	1호	공설	1·6일	부천군 소래면 신천리	시흥시 신천동·대야동

자료:『朝鮮의 市場』(1924),『始興郡誌』下.

1949년 시흥의 시장실태

시장명	위치	경영자	개장일	매 매 고 (단위 : 만 원)					
				계	농산물	수산물	직물	축산물	기 타
안양장	안양읍 안양리	안양읍	5·10일	24,840	6,600	2,510	5,300	4,130	6,300
군포장	남면 당리	남면	2·7일	115	50	20	25	-	20
삼거리장	수암면 능곡리	수암면	5·10일	1,252	-	-	-	1,252	0
안산장	수암면 수암리	수암면	2·7일	282	100	82	50	-	50
계	4개			26,489	6,750	2,612	5,375	5,382	6,370

자료 : 『衿川誌』, 1950 · 『始興郡誌』 下.

1) 始興의 市場址

(1) 防築市場址

· 소재지 : 시흥시 광석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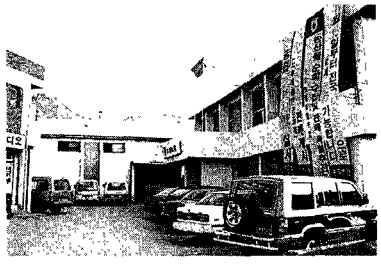
방축시장지. 1995.

<참고문헌> 『京畿誌』, 『始興郡誌』 下

물왕저수지 제방에서 서쪽 물왕로(物旺路)를 따라가다가 물왕동 월미마을 입구 삼거리에서 다시 서쪽으로 100m쯤 떨어진 곳(현재 과수원이 있음)에 있었다. 『경기지(京畿誌)』와 『안산군읍지(安山郡邑誌)』(1841)를 보면 읍(邑)에서 10리 떨어져 있는데 행인이나 소금장사들이 가끔 들르는 정도라 하였다. 광석리에 있어 일명 '광석장시(廣石場市)'라 부르기도 한다. 1920년대에 이르러 삼거리장(三巨里場)으로 개칭되었으며 1938년에 능곡리로 옮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시흥관내 최초의 시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2) 秀岩市場址(邑內場 · 安山市場)

· 소재지 : 시흥시 수암동 428 일대



수암시장지(우측은 수암농협 건물). 1995.

수암농협 일대에 위치하였다. 수암시장은 조선조 말엽에 형성된 시장으로 처음에는 3일, 8일에 섰다가, 그 뒤 4일, 9일로 바뀌었으며, 다시 5·10일장으로 변경되었다. 초창기에는 옛 수암면 일대는 물론 화성군 반월면 및 안양 등지의 주민들로 북적거렸다고 한다. 주요 거래품목은 일반 생활필수품이었다. 일명 읍내장 또는 안산시장이라고 불렸던 이 시장은

1960년대에 이르러 도시화 추세에 따라 폐시되었다.

<참고문헌>『朝鮮地誌資料』,『始興郡誌』下.

(3) 蛇川市場址

·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 대야동

한자로는 '사천시장(蛇川市場)'이라고 칭하나 보통 '뱀내시장' 또는 '뱀내장'이라고 부른다. 구전에 따르면, 뱀내시장은 본래 세종 때 영의정을 지낸 하연(河演)의 묘와 수인산업도로 사이에 있었는데 쇠똥과 쓰레기 등으로 악취가 나자 일제강점기 초에 당시 부천군 소래면장 꿈에 하연이 나타나 훈계하므로 지금의 소래농협 뒤에서 두성빌딩 사이로 옮겼다고 한다. 1일과 6일에 개장되었던 뱀내시장은 축산물, 농산물, 직물 등이 주로 거래되었는데, 특히 소시장(牛市場)은 수원장, 소사장 등과 함께 경기도 일대에서는 손꼽히는 큰 시장이었다. 1922년 통계에 따르면, 이 해 74회 개장에 연간 거래실적을 보면 농산물 2천 219원, 수산물 93원, 직물 270원, 축류 24만 7천 743원, 기타 2천 221원으로 모두 25만 2천 546원에 이르렀다.



사천시장(뱀내시장). 1977.

1928년 금이동 출신 신현순(申鉉舜, 1895~1969)이 소신여객회사를 창설한 것도 뱀내시장과 소사시장(素砂市場, 2·7일장) 상인과 소비자를 원활히 수송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이 시장의 개설로 오늘날 신천동, 대야동이 시흥시의 중심가로 번창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1970년대에 이르러 도시화의 추세로 인하여 폐시되었다.

<참고문헌>『京畿統計年監』,『朝鮮地誌資料』,『始興郡誌』上·下.

<참고문헌>『始興郡誌』上·下,『동아일보』, 1938. 9. 28·10. 26.

(4) 三巨里市場址

· 소재지 : 시흥시 능곡동 32, 34

능곡동 삼거리소재 정미소 뒤(동)에 있었다. 이 시장은 1920년대에 개시되었다가 일시 폐지된 후, 이 마을 출신 박경선(朴敬善)이 자신의 토지를 희사해 1938년 9월 30일에 재개시하고 성시를 이루었다. 1959년 군자시장(君子市場, 또는 도일시장)이 개설되자 급격한 쇠퇴를 보이다가 1962년에 폐시되었다. 삼거리시장은 우시장으로 5일과 7일에 개장되었다.



삼거리 시장지. 1995.

8. 生家址

1) 概 要

시흥은 소래산, 수암봉, 군자봉 등이 명산인데다가 산세가 수려해 예로부터 훌륭한 인물이 많이 배출된 고장으로 이름이 높았다. 특히 임금과 왕비의 배출이 두드러졌으며, 그 밖에도 정승, 학자, 장군 등 수많은 인물이 시흥 곳곳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이들 인물에 대한 출생지 위치가 현재까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시흥이 수도 서울과 인접한데다가 인천, 안양, 부천, 광명, 안산 등 대도시와 접격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도시화로 인하여 공장, 도로, 아파트 등이 건설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문화유산이 일실되었고, 또 증언을 해줄 만한 인사들이 대부분 타계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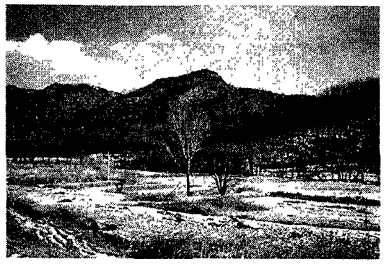
시흥관내에는 열한 개의 행정동과 서른세 개의 법정동 및 186개의 마을이 있다. 그 중 인물의 배출도가 비교적 많은 마을은 화정동의 너빌(廣谷), 고주물(元花井), 군자동의 구준물(九地井, 九井洞), 과림동의 중림(重林), 도창동의 도두머리(道頭里), 논곡동의 논줄(論谷), 하중동의 샌말(間村), 베실구지(官谷), 장곡동의 매꼴(鷹谷), 죽율동의 큰말(大村), 조남동의 장군재(張君谷), 거모동의 도일(石谷) 안현동의 길마재(鞍峴), 수암동의 안산(安山), 장상동의 동막골(東谷里), 물왕동의 물왕골(物旺谷), 금이동의 도리재(道李峴)·거멀(儉儀里), 포동의 새우개(新峴), 월곶동의 삼밭(麻田), 광석동의 나분들(元廣石) 등이다.

2) 始興의 生家址

(1) 元成·元惠·元平王后 生家址

·소재지 : 시흥시 장상동 노리울

원성왕후는 고려 제8대 현종의 비로 거란의 제2차 침입으로 현종이 남하하여 공주에 이르렀을 때 임금에게 어의(御衣)를 지어 바친 인연으로 납비(納妃)가 되었다. 그 후 그와 자매간인 원혜(元惠)·원평(元平) 왕후도 왕비가 되었다. 그의 조부 김긍필(金兢弼·肯弼)은 안산 김씨의 시조이며, 부 은부(殷傅)는 호부상서(戶部尙書), 오빠 충찬(忠贊)은 호부상서(戶部尙書), 난원(爛圓)은 경덕국사(景德國師)로 대각국사(大覺國師)의 스승이다. 이들 안산 김씨는 고려 초에 4대 50여 년간 집권한 벌족이었으나, 이들이 장상동 노리울(獐谷)에서 출생했다는 설을 빼고는 확실한 위치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향토 원로들이 증언한 바를 종합해 보면, 마을 뒤에 있는 산신우물(山神井) 일대가 이들이 태어난 곳이 아닌가 추정된다. 왜냐하면 이곳이 예로부터 명당터로 알려지고 있으며, 또 명문가의 집터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전문가의 고증을 토대로 발굴조사가 되면 보다 확실한 위치가 파악되리라고 생각된다.



원성·원혜·원평왕후의 생가지로 추정되는 산 신우물 주변(왼쪽). 1995.

(2) 仁宣王后 生家址

·소재지 : 시흥시 장곡동 안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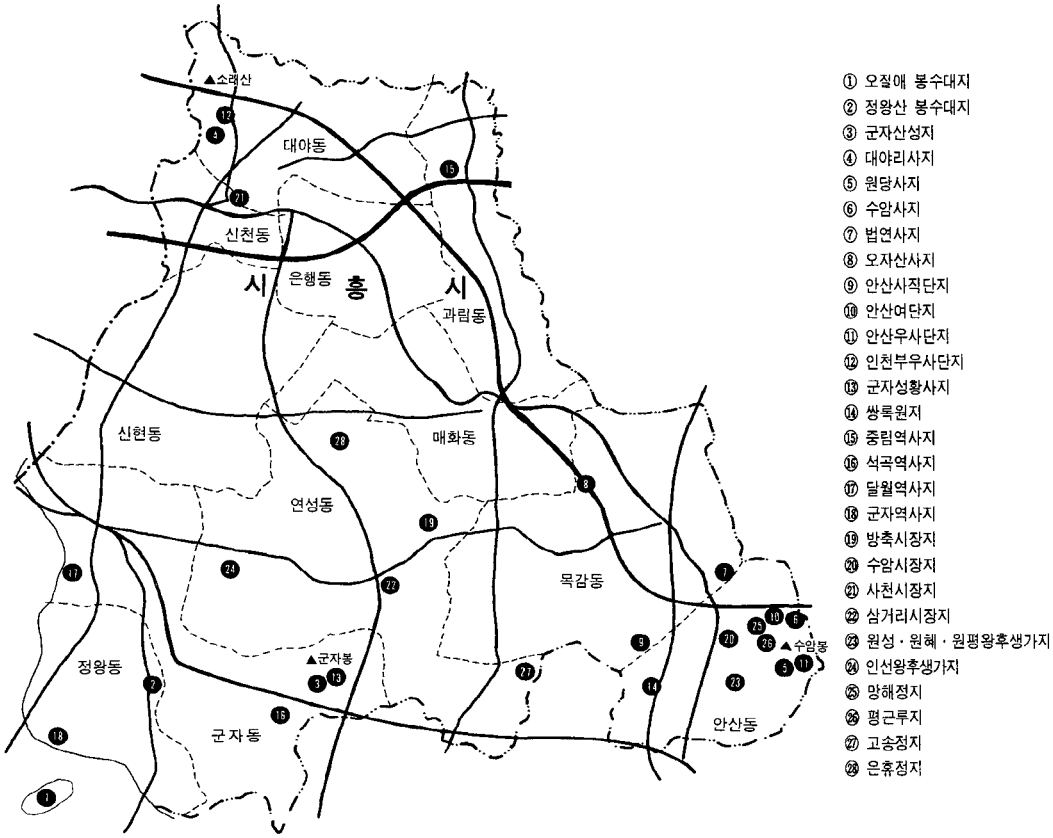
장곡동 안골 상양산(上陽山) 아래로 장범진(張範鎭)댁 뒤에 있다. 인선왕후(1618~1674)는 조선 제17대 효종(孝宗)의 비(妃)로, 조선조 4대 문장가의 한 사람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애연가로 유명한 장유(張維)의 딸이다. 광해군 4년(1612) 장유가 25세 되던 해, 김직재(金直哉)의 무옥(誣獄)에 연루되어 이곳에서 12년간 은거하던 중 인선왕후를 낳았다. 향토 원로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왕비가 어릴 때 어찌나 가난했던지 호구지책으로 마을 앞 소래갯벌로 게를 잡으러 갔다가 왕실에서 그를 찾으려 하였으나 찾지를 못하고 있을 때 별안간 하늘에서 서기(瑞氣)가 서려 그를 모시고 갔다고 한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가옥이 있었으나 현재는 나무토막



인선왕후 생가지. 1986.

<참고문헌>『始興郡誌』上·下

등이 흩어져 있어 철거된 집 같다. 조선조의 역대왕비 중 근검절약과 덕망이 높기로 유명한 인선왕후의 생가라 보기에는 너무 스산하다.



시흥의 역사 유적지 ①

9. 教育機關址

1) 概 要



조선시대 서당 풍경. 『사진으로 보는 조선시대 생활과 풍속』.

태고로부터 인간은 그들의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자녀들을 맡겨 교육을 받게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교육의 시초는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에 태학(太學)에서 자제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고려시대에는 관학(官學)으로 국자감(國子監)과 동서학당(東西學堂)이 있었고, 사학(私學)으로 십이공도(十二公徒)가 수도인 개경에 설립되었으며, 지방에는 향교(鄕校)와 서사(書社, 일명 서당) 등이 있었다. 향교는 언제 창설되었는지 뚜렷하지 않으나 대체로 인종 5년(1127)경이며, 서당은 지방에 설치된 서민교육기관이다. 서당의 사회적 기능과 교육적 의미가 증대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중기 이후인데, 그 목적은 학당이나 향교에의 입학을 준비하는 것이어서 지방의 청소년들에게 한자의 기초독해력과

유교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을 보급하는 큰 역할을 하였다. 서당의 구성은 7, 8세로부터 15, 16세의 학생들과 이들을 가르치는 훈장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서당을 설립함에 있어서 기본 자산이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뜻있는 사람이면 가능했다. 교육방법은 몇몇 학생을 한 훈장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 교과내용이나 진도에는 개인차가 있으며, 계절에 따라 학습의 효과를 위하여 과목을 조정하기도 하여 야학(夜學)이 상례로 되었다. 야학운동은 3·1운동 이후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청소년을 위한 야학이 곳곳에 개설되어 학교에 가지 못하여 교육을 받지 못한 아동과 부녀자들에게 우리 말과 글을 가르쳤다. 시흥 일대에서 야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곳은 수암동에 있던 안산청년야학(安山靑年夜學)이었다. 즉, 1926년 8월 22일부터 마을 유지들이 안산공립보통학교(현 안산국교)의 교실을 임시로 사용하여 아동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교육은 안산공립보통학교의 교사들이 무보수로 담당하고 교육내용도 보통학교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야학과 함께 일제강점기에 교육을 담당한 교육기관으로 강습소가 있었다. 강습소는 죽율동의 죽율학술강습소를 비롯하여 논곡동의 논곡강습소, 무지동의 흥업강습소등이 있었다. 그리고 강습소와 함께 일제강점기 말부터 광복 직후까지 활발한 교육기관으로 안산고등공민학교와 소성고등학교 및 성산중학원 등이 있었다. 이들 교육기관은 그 후 안산상고, 한인고교, 소래중학교로 발전되어 명실공히 시흥교육의 초석이 되고 있다.

<참고문헌> 『國史大事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 始興의 敎育機關址

(1) 安山鄕校址

· 소재지 : 시흥시 수암동 351, 352, 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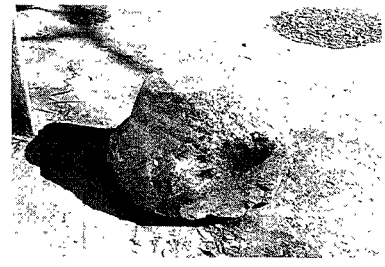
안산관아지의 정남쪽으로 시흥시 수암동 351, 352, 356번지에 있는데 351번지(1천 737평)와 356번지(213평)는 개인소유이고, 352번지(942평)만 안산군향교 소유로 되어 있다. 향교가 있던 곳은 현재 평탄한 밭(?)으로 변해 있고 향나무 등이 심어져 있다. 바로 뒤편(동남)에는 삼성의 창

업주인 이병철의 형 이병각(李秉珏) 묘가 있다. 이곳에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단을 이루며 건물터로 보이는 평지가 있는데, 윗부분은 26.6×12.4m이고, 아랫부분은 34.6×13.5m에 이른다. 아랫단에는 30×60cm 정도의 다듬은 돌로 쌓아 놓은 두세 단의 석축단이 남아 있다. 이곳에서는 많은 양의 기와편이 발견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무문와이며, 간혹 와전(瓦塼)도 발견되고 있다.



안산향교지. 1989.

안산향교가 이곳에 건립된 것은 조선 선조 때(1569)로 알려지고 있다. 즉, 조선 중기의 문신인 취죽(醉竹) 강극성(姜克誠, 1526~1576)이 쓴 「安山新校記」에 의하면, 유(劉)모가 선조 1년(1568) 안산군수에 부임한 후 처음 1년간은 정사(政事)를 보다가 이듬해(1569) 누추한 계곡 사이에 있는 안산향교가 너무나 허술하고 주변이 깨끗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기고 안산관아 남쪽 양지바른 이곳에 자리를 잡고 농한기를 이용하여 고을 사람들을 부역시켰고, 경비는 안산관아에 있는 곡식과 고을의 덕망 높고 연로한 인사들로부터 충당했으며, 자재는 한강 어귀에서 배로 수송하였다.



안산향교 초석. 수암동 노인회관앞 노변에 있다. 1994.

『안산군읍지(安山郡邑誌)』(1899)에 의하면, 안산향교는 축좌(丑座)에 미향(未向)으로 북북동-남남서향이다. 『안산군읍지』 「관직조」에 의하면, 안산군의 관원 중 향교직(鄕校職)이 한 명 있었음을 기술하고 있다. 이 향교는 1944년 1군 1향교의 제도에 따라 안산, 시흥, 과천의 3향교가 시흥향교(始興鄕校)로 통합되면서 그 기능을 상실케 되었다. 광복 이후에는 향교가 교육기관이라 하여 교육청의 관할로 들어갔으나, 관리비와 낡은 건물에 대한 보수비용이 없어 그대로 방치되었다. 그 후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 안산국민학교가 화재로 소실되자 임시학교 교사로 사용되다가 그 후 철거되어 목재의 일부는 수암동 노인회관을 짓는 데 사용되었다. 현재 새마을회관 앞마당 주변에 향교에서 가져다 놓은 초석과 장대석들이 많이 남아 있다.



안산향교지 출토 와편. 1994.

향교는 지방에 있는 문묘(文廟)와 이에 딸린 교궁(校宮)을 말하는 것으로, 공부자(孔夫子)를 비롯하여 여러 성현들에 석전(釋奠)하는 대성전(大成殿)을 중심으로 하여 유학을 강론하는 명륜당 등을 일괄하여 일컫는 말이다.

향교는 고려 인종 5년(1127)에 "제주에 조서(詔書)를 내려 학교를 세워 가르치는 길을 넓혔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때 완비된 제도로서 정착된 것

으로 보인다. 향교의 교육은 조교가 담당하였고 중앙에서 파견한 박사가 그 교육을 조언, 감독한 듯하다. 교과내용은 국자감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의종 이후 국정이 문란하고 학정(學政)도 따라서 퇴폐하였으나, 충숙왕 때에 이르러 향교를 진흥시켜 부흥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향교제도는 조선조에 그대로 계승되고 확장되었고, 학당은 국자감 향교와 더불어 유교이념에 입각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관학이었다. 각 주(州)·군(郡)에까지 설립된 조선시대의 향교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경기도지역의향교 실태를 보면 서른 여덟 개의 향교에 모두 서른 여덟 명의 선생과 1천 860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안산향교의 경우 훈도(訓導) 한 명과 쉰 명의 학생이 있었다.

현재 안산향교는 1950년대에 파괴되었으나 이곳에서 공부를 한 인사가 다수 생존해 있고, 또 훼철되기 이전의 건물을 목도한 인사가 있어 원형 복원을 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다음 글은 『진산세고(晉山世稿)』에 실려 있는 강극성의 「안산신교기(安山新校記)」역본이다.

안산신교기

강극성(姜克誠)

공손히 생각하니 우리나라는 문교(文敎)를 숭상하여 서울에는 태학(大學 : 성균관) 지방에는 향교가 있어 모두 공자(孔子)를 받들어 제사한다.

다만, 한(恨)스러운 것은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혹 공자의 가르침을 받드는 데 미진하여 성전(聖殿)이 잡초에 묻히고 제물이 미비하니 성스러운 세상에 잘못된 일이다. 많은 선비가 우렁차게 글을 읽으면서 그래서 되겠는가? 비록 조정에서는 겨를이 없어 일일이 검열을 못 하지만 그 임무를 담당한 자가 보기를 본분 밖의 일로 생각하니 참 개탄스럽다. 진실로 군자(君子)가 능히 자기 일로 생각하고 떨치고 일어나 일반인에 섞이지 않는다면 유교(儒敎)가 흥거할 수 있을 것이며, 능하지 못한 자도 보고는 감동될 터인데 애석하게도 그런 사람이 없다.

안산군은 경기지방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모든 일에 소홀하고 문교정책에 더욱 소홀하다. 무진년에 유학(儒學)선생인 유모씨(劉某氏)가 안산군수로 부임하여 풍속의 이롭고 병된 것을 풀어서 이로운 것은 더욱 인도(引導)하고 해로운 것은 제거하는데, 먼저 성묘(聖廟 : 孔子사당)를 참배하고서 좌우를 돌아보고는 슬픈 얼굴을 지으며 말하기를, "아! 너무 게으르도다. 사당이 더럽고 학교가 허술하니 이러고서 어찌 성령(聖靈)을 편히 모시며 유생(儒生)이 스승을 곁에서 모시겠는가? 내가 개선하리라" 하고 뜻을 세웠으나, 시기가 맞지 아니하여 즉시 착수하지 못하고 1년간 정사(政事)를 보고 농한기를 이용하여 부역을

시키고 세금을 적게 거두고 수입을 헤아려서 지출하니 백성에겐 힘의 여유가 있고 창고에는 곡식이 남아 있었다. 그런 후에 결단을 하고 기사년 봄에 공사(工事)를 시작하여 옛 향교가 누추한 계곡(溪谷) 사이에 있던 것을 읍(邑) 남동쪽 공간 양지바른 곳의 토질이 건조하고 위치 또한 높고 반듯한 자리에 지리에 맞도록 선정하니 사람들이 모두 좋은 터를 얻었다고 하였다. 자금을 모으는 데는 창고에 남은 곡식 몇 섬을 내어 놓고 마을에서 덕망이 높고 성실하며 연로한 사람을 선발하고 고을에 유능한 아전(胥吏)에게 맡기어 자재(資材)는 고가(高價)도 염가(廉價)도 아닌 것으로 하고, 또 수송의 수고로움을 근심하여 바다를 이용하여 배로 서울에 가고 한강 어귀에서 물건을 싣고 드리오니, 소로 운반하는 것보다 인력도 적게 들었다. 공사를 하는 데는 놀고 있는 사람을 부리니 농민을 번거롭게 아니하였지만, 농민에 현명한 자는 즐겨 일어나고 어리석은 자도 수줍어하면서 힘을 쏟아 몇 달 안 되어서 공사를 끝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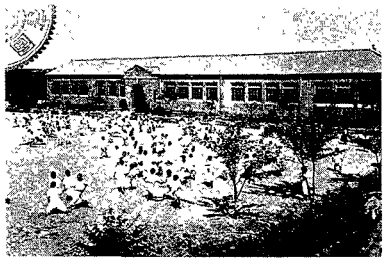
정전(正殿)에는 의젓한 스승을 거처하게 하고 유생들이 거처할 집도 있었다. 유생을 모으는 날 원근에서 모여 와서 보고는 감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며, 다른 곳에서 이사 온 아무씨는 소문을 듣고 탄식하기를 옛날 사람을 부러워했는데 옛날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하였다. 나도 마을 늙은이이다. 조정에 있을 때 이 고을을 다스린 사람이 많았다고 들었다. 견책(譴責)을 듣고 시골에 있으면서 시정(施政)득실이 또 적지 않음을 보았다. 성묘(聖廟)의 헐어 더러워진 문과 담장을 보고 더욱 개탄하였으나 더러운 것은 버렸는데, 지금은 그전에 보지 못하던 새로운 모습을 보고 어찌 감격하지 않으리오? 모든 읍민(邑民)의 심정도 나와 같으리라.

옛날 우강 이구(盱江 李覯)의 원주학기(袁州學記)를 지었는데 그 일이 서로 같다. 그러나 실정(實情)은 이것이 나을 것이다. 내가 그 실정을 쓰고, 또 이구의 원주대중에게 알린 말을 안산선비에게 말하여 스스로 힘쓰도록 하노라.

(2) 安山靑年夜學址

· 소재지 : 시흥시 수암동 180

수암동 거주 엄이섭(嚴履燮)과 정상시(鄭常時, 수암동 출신) 두 분이 마을 유지 성희경(成喜敬, 수암동 출신)과 안산공립보통학교 교장 임호장(林虎藏, 일본인)과 협력하여 1926년 8월 22일 창립하였다. 안산청년야학은 무산(無産) 아동 30여 명을 모집하여 무보수로 교수하는 무산야학이었다. 교실은 안산공립보통학교 교실을 당분간 사용하기로 하고, 이 학교의 교원 일동이 교사로서 가르쳤으며, 학과는 안산공보교의 교육과정과 동일하였다.



안산청년야학지. 1931.

<참고문헌> 『光明市誌』, 1993, 337~338쪽
『동아일보』, 1926. 9. 19.

(3) 竹栗學術講習所址



죽율학술강습소지. 1995.

· 소재지 : 시흥시 죽율동 371-1

옛 군자면의 유지였던 민병목(閔丙穆, 1888~1951, 안산 초지동 출신으로 죽율동 383에서 거주, 전 군자농협장 閔讚基 부친)이 설립한 사설 교육기관으로, 문명퇴치를 목적으로 노동야학 설치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1926년 가을경부터 이 지역 예배당에서 노동야학회를 가졌다. 처음에는 죽율진흥회(竹栗振興會)라 일컫고, 학령 초과 또는 학자가 없어서 배우지 못하는 남녀 아동 일흔여 명을 1927년 봄까지 가르치고, 농번기에 잠시 야학을 중지한 후, 다시 겨울부터 개학하여 일흔여 명의 남녀 아동을 가르쳤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적지 않은 불편이 있었다.

이에 민병목 등 죽율동 유지들이 뜻을 모아 열두 칸 교사(校舍)를 건설하기 위하여 설립자 민병목 자신의 토지를 기증하고(『동아일보』, 1928년 2월 17일에는 천형식이 토지를 기증했다고 보도함), 박교문(朴敎文, 죽율동 새말) 10원, 민병목 6원, 천형식(千亨植, 죽율동 새말) 6원, 문창영(文昌永, 전 인천일보 사장 文炳河 조부) 5원, 안희신(安熙臣, 죽율동 큰말) 5원, 김규홍(金奎興, 죽율동 큰말) 5원, 정춘근(鄭春根, 거모동 거무개) 5원, 예연직(芮連直, 죽율동 큰말) 4원, 김화준(金化俊, 죽율동 큰말) 4원, 김동환(金東煥, 죽율동 정촌, 전 시흥시 농촌지도자연합회장 金重淵 조부) 3원, 안희택(安熙澤, 죽율동 큰말) 2원 50전, 안철재(安喆載, 죽율동 큰말) 2원, 문창렬(文昌烈, 죽율동 댐) 2원, 안희철(安熙哲, 죽율동 큰말) 2원, 안재의(安在義, 죽율동 큰말) 1원 50전, 천종순(千鍾順, 죽율동 새말) 1원 50전, 문성옥(文成玉, 죽율동 댐) 1원 50전, 김수환(金壽煥, 죽율동) 외 열두 명 각 1원, 안희철 외 서른다섯 명 합출(合出) 정조(正租) 2석 5두, 정왕리 일동 정조 14두를 내었다.

야학의 담임교사는 김청환(金淸煥, 죽율동 댐), 안선재(安璇載, 죽율동 댐), 안재운(安在云, 죽율동 큰말), 김인준(金麟俊, 죽율동 정촌), 홍만종(洪萬宗, 죽율동 정촌), 안인덕(安仁德), 안흥준(安興俊, 죽율동 댐), 안붕수(安鵬洙, 광주 출신), 김숙정(金淑貞, 죽율동 출신), 한장수(韓長洙, 죽율동 출신, 도의원 韓相國 부친) 등이었다(『동아일보』, 1928년 2월 17일자).

『동아일보』의 다른 기사에서는 '죽율야학 낙성'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기사의 내용은 대체로 같으나 의연금의 내용

이 다소 다르다.

시흥군 군자면 죽율리에서는 1926년 가을부터 문맹퇴치를 목적으로 유지 몇 사람의 발기로 노동야학을 개최하여 오던 중 교사가 없어서 적지 않은 불편을 느꼈다. 이에 1927년 9월 15일 문창영의 방에서 이 야학의 강사와 유지 몇 사람이 모여서 강당을 건축하기로 결의한 이후 많은 기부를 얻게 되어, 총공비(總工費) 960원으로 1928년 2월 중순경에 기공하여 6월 10일에 초가 열세 칸의 교사를 준공하였다. 같은 달 12일 오후 1시부터 신축 교사에서 안광재(安光載, 죽율동 큰말)의 사회 아래 야학생 일동의 교가로 낙성식이 열리었다. 낙성식은 안희신의 개회사, 김청환의 식사(式辭), 김규홍의 축사(祝辭), 박교문의 고사(告辭)·경과보고·회계보고·수업식·수업증서수여·비품수여의 순으로 진행되었고, 내빈의 축사가 있은 후 대성황리에 폐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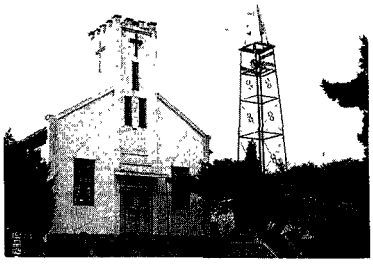
교사 건축에 기부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안희택 대지 150평(시가 60원), 문창영 22원, 천형식 21원, 안희신 18원, 김성현(金成賢) 16원, 박교문 15원, 김규홍 15원, 민병목 10원, 김덕현(金德賢, 죽율동 새말)·예연직(芮淵稷) 9원, 김원식(金元植, 정왕동 피양촌) 8원, 안희철 7원, 문창렬 7원, 김규순(金圭舜) 7원, 임병왕(林炳枉) 6원, 안사의(安仕義) 6원, 안배형(安培馨) 5원, 남덕원(南德元) 5원, 정춘근 5원, 안철재 5원, 문창옥(文昌玉, 죽율동 댐), 4원, 김기옥(金基玉) 4원, 안희송(安熙松, 죽율동 큰말) 4원, 홍재식(洪在植) 4원, 안선재 4원, 안희민(安熙敏 , 죽율동 큰말) 3원, 정성관(鄭聖寬, 죽율동 큰말) 3원, 안덕재(安悳載, 죽율동 큰말) 3원, 양성룡(梁聖龍, 죽율동 새말) 3원, 최상국(崔相國) 3원, 김함환(金咸煥) 3원, 김원필(金元弼) 2원, 박재항(朴在恒) 2원, 안희세(安熙世, 죽율동 큰말) 2원, 문창언(文昌彦, 죽율동 댐) 2원, 천흥관(千興寬) 2원, 천종순 2원, 박제훈(朴濟勳) 2원, 한영전(韓榮錢, 죽율동 정촌) 2원, 유성삼(劉成三) 2원, 김성일(金聖一) 2원, 안희흥(安熙興, 죽율동 큰말) 2원, 박교근(朴敎根) 2원, 김경수(金景秀) 외 38인이 3원씩 내어 총액 180원 58전이었다.

—『동아일보』 1928년 6월 25일자 —

이에 앞서 1928년 2월 18일에 죽율소년회(竹栗少年會)에서는 죽율노동야학 교사를 건축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였는가 하면, 이 해 8월 16일에는 연극과 영화를 상영해 기금을 모았는데 이것이 시흥에서의 첫 연극 공연인 동시에 영화상영이었다.

죽율학술강습소터는 죽율동 371-1로 농경지(밭)인데 안산거주 이현구 소유로 되어 있고, 그 면적은 100평이다.

<참고문헌> 『始興郡誌』 下, 『光明市誌』 1993, 338~340쪽, 『동아일보』, 1928. 2. 17, 6. 25.
대담 : 한장수(韓長洙, 1915. 2. 11~ , 죽율동 410)
민찬기(閔讚基, 1921. 9. 17~ , 죽율동 383)



흥업강습소지. 1991.



흥업강습소 졸업사진(1943?).

<참고문헌> 이진호, 「안양지방의 개신교 전래」, 『안양문화』 10, 1993.
대담 : 이정호(李正鎬, 1913~)
김한경(金翰經, 1925. 1. 5~ , 무지동 428).



논곡 강습소지(왼쪽), 1995.

대담 : 김수기(金壽基, 1923. 7. 10~ , 논곡동 277).

(4) 興業講習所址

· 소재지 : 시흥시 무지동 351-1

전도사 김동일(金東一, 1884~1954)이 전도사를 사임하고 1920년대에 세운 학교로 지금의 시온교회 목사 사택 자리에 있었다. 당시 교사(校舍)는 교실 2동과 그 옆에 'ㄱ'자형 교사 1동이 있었고, 평일에는 무지내교회에서도 수업을 하였다.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무지동, 금이동, 과림동 등지와 광명시 가학동 등과 멀리 월곳동에서 다니는 학생도 있었다. 흥업강습소의 선생은 초창기에는 김동일 자신이 가르치다가, 일제강점기 말엽에는 안양시 석수동 삼막골 출신 하규홍(河奎泓)이 부임하여 교육하다가 1940년경에는 오산 마루보시(丸帽子, 현 대한통운)에 취직이 되어 나간 후, 점차 학생이 늘자 이정호(李正鎬), 김한경(金翰經, 1925~), 송은자(宋恩子, 1929~), 신씨(申氏, 여), 김씨(金氏, 여)가 교육을 맡았다. 광복 후 의무교육이 실시되자 학교는 폐교되고 도창국민학교 등에 편입되었다. 폐교 후에는 그 자리에 성인교육을 위한 소성고등공민학교가 설립되었다.

(5) 論谷講習所址

· 소재지 : 시흥시 논곡동 243-1, 2, 3, 7, 8

논곡강습소(또는 논곡학원)는 논곡동 논줄마을 초입인 논줄슈퍼와 그 주변으로, 1940년 이 마을의 대지주인 조덕준(趙德俊)이 서울 배재고등보통학교 출신 최긍렬(崔兢烈, 1901~1963)을 초빙, 인가를 받아 설립한 사설 교육기관이다. 이 강습소 학동(學童)들의 출신지는 논곡동을 비롯하여 물왕동, 금이동, 조남동, 목감동 등과 광명시 가학동 등인데, 초창기에는 논곡동 아랫말에 있는 공청(공회당)에서 수업을 받을 만큼 학동들이 많았다고 한다. 설립자 조씨는 학동들이 점차 늘자 도루코공장 옆 과수원자리에 학교를 짓기 위해 터를 닦던 중 장남이 일본 명문대학에 유학 후 귀국(?)하다가 사망하자 중단하였다. 1947년 폐교되자 교사 최긍렬은 곧 안산국민학교 교사로 전근하였다.

(6) 鳥峴講習所址

· 소재지, 시흥시 장현동 186

일제강점기 때 장현동 199에 거주하는 정재익(鄭在翼, 1918~)이 사재를 들여 설립한 사설 교육기관으로, 장현동 새재 가운데말에 있었다. 이 강습소는 장현·능곡·하중·하상·장곡·광석동 등의 7, 8세 어린이와 생활형편상 국민학교에 취학치 못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설립자 정재익을 비롯하여 정성옥(정재익누이), 강성두(하상동 출신), 윤모(여), 권오선, 안문옥 등이 교육을 담당하였다. 교사(校舍)는 초가(草家) 한 동으로 약 50여 평이었다.



조천강습소지 1995

이 강습소는 광복 직후에 폐교되었다가 1950년 교육자 최긍렬(崔兢烈, 1901~1963)이 월곶동에 군자고등공민학교를 설립한 후 이듬해부터 이곳에서 교육하였는데 이것이 군자중학교(君子中學校)의 모태이다. 현재 강습소 자리에는 민가(金龍泰댁)가 들어섰다.

(7) 祥谷講習所址

· 소재지 : 시흥시 월곶동 475-1

일제강점기 월곶동 445에 거주하는 조병덕(趙秉悳, 1913~1980)이 세운 강습소로 월곶 2통새마을회관에서 동쪽으로 약 20m 떨어진 월곶동 475-1에 있다.

교사(校舍)는 단층 초가(草家) 한 동으로 열 칸 정도였다. 교사(校舍)는 설립자 조병덕을 비롯하여 서울출신 김상희(金祥熙, 1915~), 월곶동 출신 조병하, 김포(?) 출신 김씨 등이었는데, 김상희에 의하면, 월곶동, 죽율동, 장곡동의 어린이 50~80명을 대상으로 낮에는 국민학교 2, 3학년의 교육과정을 가르쳤고, 밤에는 가정주부, 성인을 대상으로 야학을 실시했다. 광복 직전에는 간악한 일제의 탄압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월곶동 출신 최재남(崔載男, 1909~1967, 월곶동 215, 인천교대 崔永鎭 교수 부친)이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끝내는 왜병의 협박이 극심하자 1945년 4월 만주로 도주, 이 해 여름에 돌아오니 강습소는 이미 폐교가 되었다고 한다. 그 후 강습소 교사(校舍)는 민가로 개축되어 현재는 조관훈(趙寬勳, 1940~)이 살고 있다.



상곡강습소지 1995.

(8) 錦湖簡易學校址

· 소재지 : 시흥시 거모동 566-1



금호간이학교지 1995

대담 : 한장수(韓長洙, 1915. 2. 11~, 죽율동 410).

금호간이학교는 본래 오이도 안말(큰말) 버스종점 뒤에 설치되었는데, 이곳이 외지여서 거모동, 정왕동, 죽율동 등지의 어린이들이 통학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자, 당시 군자면 유지였던 이명규(李明奎)가 자비로 거모동 566-1 소재 토지 955평을 매입, 교사(校舍) 두 칸을 신축하여 교육하면서 교명을 금호간이학교(錦湖簡易學校)로 개칭하였다. 교육 연한은 보통 2년이며, 이곳을 수료하면 대체로 군서국민학교 또는 군자국민학교로 전학하였다.

광복 후에는 시흥군 학무과에서 토지를 매각, 죽율학술강습소 교사를 지낸 한장수(韓長洙, 1915~ , 죽율동 410)가 매입하였으며, 현재는 그의 3남인 한상국(韓相國, 1945~ , 도의원)이 거주하고 있다. 한편 학교의 교사는 광복 후 헐어다 장곡국민학교 교사를 신축하는 데 사용되었다.

(9) 聖山中學院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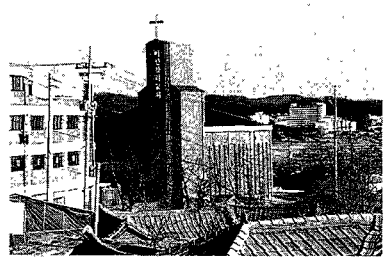
· 소재지 : 시흥시 미산동 335-2



성산중학원 건물(1950년대) 중앙은 미산감리교회 건물이고 왼쪽이 성산중학원 건물이다. 멀리 미산동 창동 마을이 보인다.
(사진 제공 : 성산중학원 4회 졸업생 이명우)

1994년 5월 현재 전국 최대의 학급(56학급)과 학생(3천 32명)을 보유하고 있는 소래중학교(蘇萊中學校)는 미산감리교회 자리(미산동 335-2)에 있었던 성산중학원지(聖山中學院址)가 그 모체이다. 미산감리교회는 광무 7년(1903)에 설립된 교회로, 시흥시 관내에서는 무지내교회(현 시온교회) 다음으로 긴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1947년 이 교회 제11대 목사로 부임한 최진규(崔眞圭)가 미산동 교인 30여 명과 정명환, 정수종, 정학종, 김금성, 서병수 등 마을유지의 도움으로 성산중학원을 설립하고 한국전쟁중인 1952년 12월 1학년생 40명을 모집, 박동화, 김상일, 노을형, 이계홍, 윤용성 등이 미산감리교회에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이것이 성산중학원의 효시이다. 이듬해, 설립자 최진규는 사립학교 설립에 따른 원대한 희망을 갖고 서울 진명여고에 근무하는 김영균(일본 명치대 졸업)을 원장에 보하고, 학생과 학부형들의 도움을 받아 흙벽돌로 4개 교실을 미산감리교회 구내에 신축했다. 교사(校舍)가 마련되자 1953년에는 제2기 입학생을 모집했다. 40명 모집에 60명이 응시했다. 이때 정성운 · 정치경 · 윤원섭 선

생이 보강되었다.


성산중학원지(미산감리교회 왼쪽이다). 1995.

1957년 김영균 원장이 사립학교의 설립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임하자 정치경이 원장에 취임하였다. 정치경 원장은 문교부 비인가 학교인 성산중학원 수료자들의 상급학교 진학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당시 부천군 소래면장 김진형(金鎭瀅, 신천동 315)과 각 이장을 위원으로 하는 '소래중학교 설립추진위원회(기성회)를 조직하고(1958. 2), 고문에 장경근(張暻根, 국회의원)·이도영(계수동)·이순필(신천동), 회장에 김진형, 총무에 김인수(방산동) 등이 선임되었다. 이들 추진위원들은 성산중학원을 소래중학(공립)으로 전환키 위해 소래면 내 모든 세대에 중학교 건축기금을 모금키로 하여 그 해 2천여 세대에서 가구당 500환을 갹출하여 100만 환의 기금이 조성되었다.

1958년 동 추진위원회(기성회)는 장경근 주관하에 인천 항만사령부(현 5해역사)에 협조를 요청하여 공립 소래중학교를 신축할 세 교실분의 자재를 지원받아 회장(김진형)을 비롯한 각 이장이 신천동 377-23에 거주하는 최석천에게 6천여 평을 학교부지로 희사토록 하여, 최석천 소유 은행동 107번지 일대 6천여 평을 희사받았다. 그 뒤 학교설립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회장을 비롯한 각 이장들의 협조로 각 리에서 동원된 주민들의 노력 동원으로 터를 닦고 시멘트벽돌로 3개교실(90평)을 신축했다. 이듬해(1959) 3월 12일에는 문교부로부터 소사중학교 소래분교로 2학급 인가를 받아 소래·도창·포리·계수국교 졸업생과 성산중학원생(2·3학년)이 은행동에 신축된 소래중학교 신교사에 합류하여 첫 수업을 받았다. 당시 교직원의 편성체제를 보면, 교장 석성균(소사중학교장 겸임), 분교장 박철규(1학기)·김철회(2학기)와 소사중학교에서 수시로 파견되는 한석인·김옥래·김항명 등 교사와 성산중학원에서 봉직한 정서운·정치경·노을형 교사 등이다.

이후 1960년 2월 10일에는 문교부로부터 공립 소래중학교로 6학급 인가를 받아 초대교장에 김철회가 부임했다. 소래중학교는 1959년 소사중학교 소래분교로 입학한 학생이 제1회 졸업생이 된다. 기독교인과 미산동 유지들의 협력으로 세워진 성산중학원은 1952년 1기부터 1956년 6기까지는 입학생이 느는 추세였으나, 당시 경제사정에 의해 학업을 중도 포기한 일부 학생과 고교진학을 위해 인가된 학교로 비공식 편입을 함으로써 입학생에 비해 졸업생의 숫자가 극히 적었다. 그리고 사설 성산중학원에서

공립 소래중학교로 변신하게 된 동기는, 성산중학원 5기(1959) 졸업생 일곱 명이 인천공고(현 인천기계공고) 입시에 응시하여 그 중 방산동 거주 안능수가 동 시험에 1위를 하였으나 학교측에서 1위인정을 해주지 않자 입학생이 이를 학교측에 항의하였다. 그러나 학교측에서는 끝내 비인가 학교 출신이라 하여 입학을 무효화하였다. 이후부터 성산중학원의 입학생이 점차 줄기 시작하자 성산학원 교직자와 면민 유지들이 소래면사무소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성산중학원을 소래중학으로 전환한다는 협의점을 찾아 이를 실현한 것이다. 성산중학원은 설립 7년 동안에 23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시켰다. 한편 소래중학교로 교명이 바뀐 뒤 1993년 2월 15일 현재 34회의 졸업식을 거행했고 배출된 졸업생은 모두 8천 686명에 이른다.

* 성산중학원의 학사자료는 그동안 미산감리교회에서 보관되어 왔으나, 지난 1992년 미산감리교회 화재 때 모두 소실되었다. 위의 기록은 소래중학교 제2회 졸업생 김홍래(金弘來, 시흥시청 근무, 1946~ , 미산동 533)가 미산동 거주 노인들과 성산중학원 3대 원장을 지낸 정치경 및 성산중학원을 졸업한 각기별 동문들의 증언을 요약, 서술한 것임.

(10) 安山高等公民學校址

· 소재지 : 시흥시 장상동 120, 9



안산고등공민학교 생도들이 교장 김완종(왼쪽) 지휘하에 운동장 정리공사를 하고 있다(김완종 제공). 1947.

옛 수암지역 최초의 중등교육기관으로, 장상동 출신 김완종(金完鍾, 1916. 1. 16~)이 설립했다(실제 설립자 명의는 수암면장이다). 설립자 김완종은 장상동 노리울마을에서 태어나 안산국민학교(제15회)를 거쳐 일본대학 법문학과를 졸업한 후, 안양여중·고 교장을 역임한 교육자이다. 특히 일제하인 1930년대 초에는 동아일보가 주도한 브나로드(V narod) 운동에 참여하여 고향에서 농촌계몽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일본 유학생시절에는 '조선유학생동창회'에 간부로 활약, 반일사상을 고취하여 왜병의 끈질긴 감시를 받아 온 요시찰인물이었다. 일본에서 귀국하자 곧 자신의 집 뒤에 있는 공회당에 가교사를 마련하고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국민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처음에는 '안산공민학교(安山公民學校)'라고 불리었다. 또 노리울에 있는 학교라 하여 일명 '노리울학교(獐谷學校)'로 일컬어지기도 하였다. 당시의 교사는 설립자 김완종과 그의 아우 김후종(金厚鍾, 1922~)·배성희(裵聖姬, 여) 등 3인이었다. 1941년 일제가 진주만을 폭격하자 왜병의 감시도 극에 달해 김완종은 학교의 뒷일을 아우에게 일임하고 만주로 피신했다가 1945년 광복이 되자 고향으로 돌아와 학교 재건에 나섰다.

1947년 9월 5일에는 공민학교 설치령에 의거하여 당국으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아 개교했다. 안산고공은 교육법 제137조 및 129조에 의거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보통교육과 공민적 사회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농업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함으로써 확고한 농도(農道) 정신하에 우리나라 농촌경제발전과 농촌문화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견인물을 양성함에 그 목적을 두고 설치하였다. 수업료는 현물로 받았다. 즉, 가을에 벼, 봄에 보리로 1년에 2회에 걸쳐 징수한 것이다. 처음에는 1개 교실 1학급으로 발족하였다.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교사는 파괴 또는 일부는 소실되고, 숙직실, 창고, 축사, 변소 등은 전소되어 일시 재기불능의 절망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학부형을 비롯하여 수암면민들의 절대적인 협력과 교직원들의 노력으로 교사 일부를 수리하여 1951년 9월 3일에 재개교를 하였다. 이듬해에 다시 2개 교실을 신축하였는가 하면 약간의 실습지도 매입하였다. 1955년에는 수암면의 협조로 지금의 안산중 자리로 교사를 옮긴 데 이어 1955년 9월에는 6천 992평의 막대한 실습지를 매입하여 재정적 기반을 견고히 하였고, 1956년에는 축사 재건에도 힘을 쏟았다.



1950년대의 안산고등공민학교 교사(장상동 9). 멀리 수암봉이 보인다.

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주로 옛 수암면 소재 안산국교 및 화정국교와 인접면인 군자면과 반월국교, 본오국교 출신자로 그 대부분이 경제적 빈곤으로 인하여 중학진학을 못하는 어린이와 농업에 관심 있는 어린이들이었다. 졸업 후에는 이들이 그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중견인물로 활동하였고, 한편 상급학교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매년 90% 내외 고입 검정시험에 합격하여 경기도 내 고등공민학교로서는 최고의 합격률을 보인 명문교였다.

안산고공의 교육은 전술한 바와 같이 농업교육에 치중하였다. 즉, 농업과 실습(여학생은 가사배당시간에 50%는 가사, 50%는 실습실시)을 실시하고, 수시로 사계의 독지가를 초빙하여 강연을 실시하는가 하면 인근 독농가에게 현장실습을 시켰다. 그 실례(1954)로,

- 온상육묘법 : 강사 이호철(李鎬喆, 인천 후생농장 대표)
- 가축방역에 대하여 : 강사 임문영(林文永, 안양가축위생연구소)
- 소채채종법 : 강사 김성도(金聖道, 서울 정치대학농장 대표)
- 조선농업사 : 강사 정병학(鄭秉學, 장상동 출신, 서울대 교수)

등의 강연을 실시했다.

『안산고등공민학교 기밀서류철』에 의하면, 안산고공의 연간 예산액(1956)은 세입·세출액이 각각 338만 5천 환이었다. 세입에 있어 설립자

보조금 24만 환, 교납금(校納金) 115만 7천 환, 시설비 6만 환, 농장수입 180만 환, 이발부 수입 2만 5천 환이고, 세출은 인건비 1백 62만 환, 교무 및 사무비 58만 환, 문화비 7만 환, 보건비 10만 5천 환, 실습비 72만 환, 수선비 12만 5천 환, 후생비 6만 5천 환, 잡비·예비비 각 5만 환이다.

학교의 설비 현황(1956)을 살펴보면,

- 운동장 : 1천 평
- 교사 : 2동(교실수 5에 각 20평), 직원실 1(10평)
- 축산설비 : 계사 30평, 토사 65평
- 실습지
  - 보통작물포 2천 650평
  - 과수원 396평
  - 소채원 5천 614평
  - 화훼원 100평
  - 임업묘포 200평
  - 견본원 200평

등이다.

학생수는 1956년의 경우 모두 150명으로 그 중 1학년 1학급 55명, 2학년 1학급 52명, 3학년 1학급 43명이다. 수업 연한은 각 학년 210일 이상이고, 학년별 주당시간은 1·2학년이 각각 서른다섯 시간이고 3학년이 서른여섯 시간이다. 교과과목은 국어, 사회 등 9개 과목인데 각 학년의 교과과목은 다음과 같다.

各 學年의 敎科科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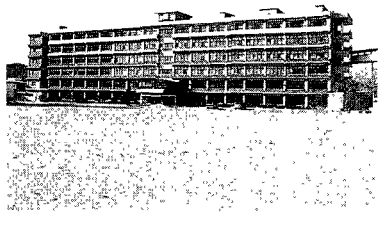
科目 / 學年	國語	社生	數學	科學	英語	農業實習	體育	音樂	美術	計
一學年	5	5	5	5	5	5	2	2	1	35시간
二學年	5	5	5	5	5	5	2	2	1	35시간
三學年	5	5	5	5	5	6	2	2	1	36시간

*안산고공 학칙 제4장 제8조에 의해 작성함.

1947년 설립 이후 1966년 안산중학으로 인가되기까지 19년간 안산고공의 교직에 몸담았던 인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안산고등공민학교 기밀서류철』과 당시 교사로 재직했던 인사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약 40여 명에 이르는데, 열거하면 양태현(梁泰鉉, 동국대), 류보형(柳普馨), 최중보(崔中甫), 김일환(金日煥, 소설가 김동인 아들), 조영하(曺永夏, 연세대), 백용기(白龍基, 국민대), 이정환(李鼎煥, 서울의대), 서선석(徐宣錫, ?), 심귀섭(沈貴燮, 단국대), 이봉(李鳳, 예대), 허영(許影, 이대), 윤강렬(尹康烈, 국민대), 김중연(金重淵, 서울농대), 허성숙(許聖肅, 이대), 손관용(孫寬鏞, 서울법대), 한기영(韓基榮, 대동공업전문), 이기현(李起鉉, 예대), 박정채(朴精彩, 해주사범), 강신원(姜信元, 국민대), 최광준(崔光峻, 평양음악학교), 장도영(張鍍英, 명치대), 주영환(朱寧煥, 서울농대), 김장원(金長元, 중등교사양성소), 이기숙(李紀淑, 서울문리사범대), 유배근(兪培根, 서울문리사범대), 이유명(李維明, 서울대 중퇴), 정진영(鄭鎭永, 수도여자사범대), 윤병수(尹秉秀, 고려대), 서재덕(徐在德, 경기대), 김동진(金東鎭, 홍익대), 이병석(李丙錫, 동국대), 조기순(趙己順, 수도여자사범대), 권매자(權梅子, 수도여자사범대), 김복산(金福山, 중앙대), 장문순(張文順, 이대), 이근영(李根榮, 인하대), 이보권(李輔權, 고려대), 김태원(金泰元, 이대), 이충자(李忠子, 수도여자사범대) 등이다.

졸업생은 20년간(1950~1959) 모두 502명을 배출했다(1951년에는 한국전쟁으로 졸업을 못함). 첫 졸업자는 1950년 3월 17일에 졸업한 이용한(李容漢)으로 안산 부곡동 출신이며, 졸업생수가 가장 많았던 때는 1963년에 졸업한 13회로 마흔다섯 명의 졸업생을 냈다. 그리고 가장 적게 배출한 때는 1952년으로 불과 다섯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연도별 졸업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안산고등공민학교는 설립자인 김완종 초대교장을 거쳐 유문정(2대), 한긍교 서리(3대, 안산국교장 겸임), 윤방렬(4대), 박윤옥(5대), 이승복(6대) 등 여섯 명의 교장이 재임하였다. 김완종과 한긍교는 2개 학교의 교장직을 동시에 수행하였고, 류문정과 이승복은 교감으로 있다가 교장으로 승진하였다. 류문정은 1955년부터 4년간 교장서리로 있다가 1959년에 교장으로 발령을 받았고, 이승복은 8년간으로 최장수 교장으로 있었다. 특히 이승복은 교장으로 취임하던 해(1966) 12월 27일 학교법인 안산학원 설립인가를 받은 데 이어 이듬해 2월 10일 안산중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아



안산중학교 교사전경. 1995.

안산고등공민학교 졸업생 현황(1950~1969)

회 수	졸업연월일	회별 첫 졸업자			졸업생수
		성명	출생연도	출 신 지	
1	1950. 3. 17	李 容 漢	?	안산 부곡동	16
2	1952. 3. 27	沈 元 輔	1935	안산 둔대동	5
3	1953. 2. 26	柳 茂 馨	1935	안산 부곡동	14
4	1954. 2. 27	柳 承 龍	1938	안산 부곡동	20
5	1955. 3. 5	李 齊 衡	1937	경기도	38
6	1956. 3. 3	白 順 奉	1938	서울	26
7	1957. 2. 28	池 貞 哲	1938	경기도	27
8	1958. 3. 5	鄭 葉 子	1941	강원도	21
9	1959. 3. 16	柳 承 姬	1943	경기도	37
10	1960. 3. 12	張 節 子	1944	서울	20
11	1961. 3. 11	金 榮 彩	1945	시흥 장상동	41
12	1962. 2. 13	朴 健 裕	1945	경기도	39
13	1963. 2. 12	文 理 均	1945	황해도	45
14	1964. 2. 10	李 延 淑	1949	경기도	23
15	1965. 2. 10	金 喜 淑	1950	경기도	27
16	1966. 2. 10	崔 善 洛	1950	경기도	16
17	1967. 2. 18	金 鎭 哲	1951	경기도	40
18	1968. 2. 12	金 喜 根	1952	경기도	40
19	1969. 1. 25	李 順 容	1953	경기도	27

*자료 : 안산고등공민학교 졸업대장.

초대교장에 부임하였다. 그 뒤 1974년 3월 6일에는 서울 용산공고교사 전삼용(全三用)이 동 학원을 인수하여 오양월(전삼용 부인)이 이사장에 취임하였고, 1975년 2월 20일에는 전삼용 자신이 제2대 교장에 부임하였다. 이후 안산중학교는 발전을 거듭하여 1994년 6월 현재 9학급에 총학생수는 361명(남자 177, 여자 184)에 이른다.

역대 안산고등공민학교 교장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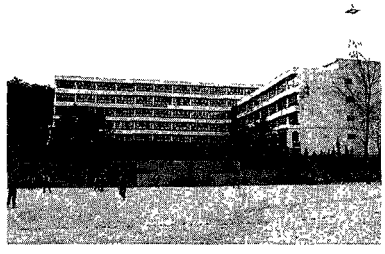
대수	성 명	성별	재임기간	출신지	학 력
1	金完鍾	男	1947~1955	시흥시 장상동 126	일본대 법문학부
2	柳文楨	〃	1955~1961	안산시 부곡동 347	일본 농우회 실습소
3	韓兢敎(서리)	〃	1961~1962	군포시 산본동 791	경성 사범학교
4	尹昉烈	〃	1962~1964	시흥시 산현동 369	경기대 국문과
5	朴潤玉	〃	1964~1966	광명시 일직동 1	일본 청산학원
6	李承復	〃	1966~1974	안양시 비산동 171	건국대 정외과

<참고문헌> 『안산고등공민학교기밀서류철』.
대담 : 김완종(金完鍾, 1916. 1. 26~ , 장상동 126)
양태현(梁泰鉉, 1927. 5. 13~ , 안양시 안양2동 821-24)
김동진(金東鎭, 1934. 9. 1~ , 장하동 57)
윤방렬(尹昉烈, 1939. 1. 19~ , 산현동 369)

(11) 昭城高等公民學校址

· 소재지 : 시흥시 무지동 351-1

흥업강습소 폐교 후 그 자리에 무지내교회(현 시온교회) 장로 이정호(李正鎬, 1913~ ,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출신)가 인가를 받아 설립하고 교장에 취임하였다. 명예교장은 흥업강습소 설립자인 김동일(金東一, 1884~1954)로, 그는 이곳이 통일신라 때(757) 소성현(昭城縣)이었다 하여 교명을 소성고등공민학교(昭城高等公民學校)로 명명하고, 아울러 토지 800여 평을 희사, 운동장 기지로 활용케 하였다. 성인교육기관인 이 학교는 시흥시의 무지동·과림동·안현동·도창동·금이동·논곡동·하중동·매화동 등지와 광명시의 가학동·노온사동 등이 학구였으나, 무지동 주민들의 자제는 수업료를 받지 않다가 학교의 재정이 곤란해지자 봄에는 보리, 가을에는 벼 등으로 수업료를 받았고, 교사들은 대부분 무보수로 재직했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교회와 전 교사(校舍)가 폭격으로 파괴되자 현 한인고교 자리(무지동 341-2)로 옮겼다. 교사를 이곳으로 옮긴 것은 학교 뒷산이 귀속재산인데다가 산 아래 토지를 전 인천시장 김정렬(金正烈, 1902~76, 김동일의 아들)이 학교부지로 희사했기 때문이었다.



한인고등학교 교사전경. 1993.

소성고공의 교장은 1960년을 전후하여 무지동 출신 김흥렬(金興烈)이 재임했으며, 1961년 7월 24일에 안양시 비산동 출신 이승복(李承復, 1934. 2. 28~ , 건국대 졸업)이 교장서리로 임명되었다가, 이 해 9월 11일 교장에 취임하였다. 그 뒤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자 1969년 4월 12일 양만영(楊萬英, 1902년생)이 인수, 이사장이 되었고, 이어 1976년

12월 15일 미산동 창말 출신 한상호(韓相浩, 1936. 1. 4~)가 인수, 이사장에 취임하여 이듬해 6월 25일 한인고등기술학교(자동차기술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았고, 이어 1981년 11월 28일 한인고등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소성고공은 1979년 5월 1일 경기도 교육위원회 제200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설립 34년인 1982년 2월 28일에 폐교되었다.

• 교직원

1948년 설립 이후 1950년대 말까지의 소성고공 교직원 현황에 대하여는 자료가 전무한 관계로 파악이 어렵다. 소성고공의 문서철에 등재된 소성고공의 교직원 명단을 알아본다. ( ) 안은 출생 연도.

이승복(1934), 이근영(1935), 이용상(1933), 신세철(1933), 이교의(1934), 위승진(1933), 이영자(1941), 이종태(1936), 구진회(1939), 김광웅(1940), 김만용(1944), 이금숙(1946), 송용숙(1947). 다음은 폐교 직전(1981)의 교직원 현황이다.

교직원 현황

직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출신교	소 지 자 격 증			채용일자
					종별	과목	발급일자	
교장	조도현	남	1925.1.10	고려대	학교장		1976.10.19	1976.10.2
교사	윤태섭	남	1933.11.9	고려대	고등준교사	일반사회	1963.9.9	1977.7.2
교사	구광회	남	1936.12.1	고려대	고등2급정교	역사	1961.3.16	1977.6.2
교사	임인규	남	1921.2.15	서울대	중학2급정교	체육	1961.10.30	1978.9.1
교사	이종수	남	1952.10.13	인천공전	실기교사	자동차기술	1973.6.26	1978.9.21
교사	유학현	남	1958.9.15	인천공전	실기교사	전자과기술	1978.4.19	1979.3.1

· 1981년 현재

• 졸업생

소성고공은 1951년 열두 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 29년간 489명(8회 및 11회 각 한 명 추가)이 졸업하여 회별 평균 16.25명이 졸업했다. 졸업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회는 제6회(1956)로 51명인 데 반하여, 그 이듬해(1957) 졸업한 7회 졸업생은 한 명에 불과하다. 다음은 회별 졸업생 현황이다.

소성고등공민학교 졸업현황

회수	졸업연월일	졸업생수	졸업연번	첫 졸 업 생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1	1951. 3. 6	12	1~12	金仁泰	1933. 5. 12	안현동
2	1952. 3	19	13~32	成喜鏞	1934. 6. 11	광명 가학동
3	1953. 3. 10	11	33~43	朴炅鍾	1933. 6. 23	매화동
4	1954. 3. 5	25	44~68	南榮銀	1938. 10. 5	금이동
5	1955. 3. 10	26	69~94	李炳國	1936. 11. 25	과림동
6	1956. 3. 5	51	95~145	鄭吉鍾	1940. 9. 20	광명 노은사동
7	1957. 3. 5	1	146	孫秀雄	1942. 9. 2	광명 가학동
8	1958. 3. 5	4	147~149-1	薛鎭憲	1938. 12. 18	광명 가학동
9	1959. 3. 5	9	150~158	李春鎬	1943. 7. 17	무지동
10	1960. 2. 28	11	159~169	崔寬基	1941. 4. 9	논곡동
11	1961. 2. 25	10	170~178-1	申然玉	1943. 10. 10	금이동
12	1962. 2. 13	15	179~193	金在龍	1946. 3. 23	무지동
13	1963. 2. 9	21	194~214	李昌淳	1946. 8. 11	무지동
14	1964. 2. 10	17	215~231	李正在	1948. 5. 27	과림동
15	1965. 2. 10	3	232~234	李鍾彦	1949. 3. 14	광명 가학동
16	1966. 2. 5	7	235~241	李正得	1950. 9. 18	광명 가학동
17	1968. 2. 16	8	242~249	崔基洙	1950. 4. 5	무지동
18	1970. 2. 25	9	250~258	薛鎭赫	1954. 12. 5	광명 가학동
19	1971. 2. 13	17	259~275	梁聖藝	1954. 5. 24	과림동
20	1972. 2. 3	22	276~297	이석규	1956. 11. 21	금이동
21	1973. 2. 12	21	298~318	유순환	1957. 9. 18	논곡동
22	1974. 2. 9	16	319~334	張文好	1958. 7. 25	광명 가학동
23	1975. 1. 10	28	335~362	장종관	1958. 12. 4	광명 가학동
24	1976. 2. 10	28	363~390	薛鎭蒙	1960. 8. 20	광명 가학동
25	1977. 2. 10	19	391~409	李聖浩	1963. 2. 16	전북 장수
26	1978. 1. 26	23	410~432	배긍종	1962. 1. 22	충남 청양
27	1979. 1. 26	20	433~452	成必武	1963. 4. 27	광명 가학동
28	1980. 1. 15	22	453~474	李昌秀	1965. 6. 30	무지동
29	1981. 2. 10	13	475~487	廉圭軓	1965. 8. 3	광명 가학동

*자료 : 소성고등공민학교 졸업대장.

● 건물현황(1976년 현재)
· 교사 : 3개 연와조 60평
· 서무실(17평), 실험실습실(8평), 강당(30평)
숙직실(12평), 창고(205평), 축사(15평), 변소(4평)
● 토지현황(1976년 현재)
· 대지 : 939평
· 실습지 : 434평
● 비품현황(1961년 현재)
· 사무용 책상 : 4개 · 흑판(교실용) : 3개
· 사무용 의자 : 4개 · 흑판(사무실용) : 2개
· 책상(학생용) : 36개 · 의자(학생용) : 36개
· 교단 : 1개 · 서류함 : 2개
· 등사판로 : 1조 · 주전자 · 물통 : 각 4개
● 보건시설(1961년 현재)
· 배구장 : 1 · 배구공 : 2
· 탁구대 : 1 · 수평대 : 1
· 철봉대 : 1 · 체육장 : 1
● 학급수 및 학생수
· 학급수 : 1 · 2 · 3학년 각 1, 합계 3개
· 학생수 : 1학년 27명(남 15, 여 12)
2학년 30명(남 19, 여 11)
3학년 16명(남 9, 여 7)

<참고문헌> 이진호, 「안양지방의 개신교 전래」, 『안양문화』 10-1993 「소성고공인가폐소철」, 「소성고공 발령대장」, 「소송고공졸업대장」.
대담 : 이정호(李正鎬, 1913~)
김한경(金翰經, 1925~ , 무지동 428).

(12) 君子高等公民學校址

· 소재지 : 시흥시 월곳동 616-2

1950년 교육자 최긍렬(崔兢烈, 1901~1963)이 고잔마을 공회당(월곳동 616-2)에 세운 학교이다. 교사(校舍)는 단층 목조건물로 약 열 평이었다. 교육대상은 국민학교 졸업 후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월곳동, 죽율동, 정왕동, 장곡동, 장현동 등지의 어린이로, 설립자 최긍렬이 혼자 가르쳤다. 설립 이듬해(1951)에는 장현동 새재에 있는 조현강습소(鳥峴講習所)로 옮겨 교육했다. 이 학교는 근대적인 의미에서 옛 군자지역의 첫 중등교육기



군자고등공민학교 제2회(1954) 졸업생. 앞줄 좌측으로부터 양명순(음악)·박연종(체육)·이찬종(한문)·최긍렬(교장)·안문옥(영어, 전 인천고교장)·문석윤(국어)·변수용(수학) 교사이고 이찬종 교사 뒤에 있는 학생이 이형수 군자 동장.

관이자 현 군자중학교의 모태가 되었다.

군자중학교는 1954년 1월 23일 설립인가를 받아 이 해 4월 28일에 개교를 보았다. 3학급 215명으로 개교한 군자중학교는 1955년에 첫 졸업생을 배출한 후 1994년까지 1만 1천 703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고, 1994년 6월 현재 19학급에 재학생수는 937명(남자 468명, 여자 469명)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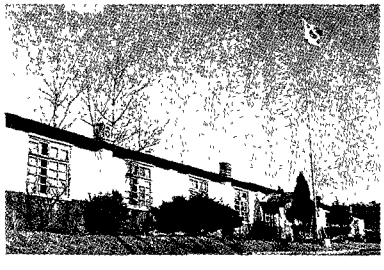
대담 : 안종락(安鍾樂, 1933. 9. 17~, 월곳동 476)
안철옥(安哲玉, 1935. 3. 14~ , 월곳동 609).

(13) 陵谷再建學校址

· 소재지 : 시흥시 능곡동 58

능곡동 삼거리마을에서 화정동 가는 노변에 있었다. 설립자는 능곡동 출신 김규성(金圭晟, 1941~ , 본적 : 능곡동 19)으로 건국대 농과 출신이다. 설립자 김씨가 대학을 졸업한 후 지역사회 개발에 투신키로 결심하고 고향을 찾은 것은 1966년 1월이었다.

이 해 2월 10일에는 가난에 찌들어 진학을 못 하고 실의에 빠진 마을 어린이 열두 명에게 권병국(權炳國, 장현동 출신), 유기환(劉基煥, 능곡동 출신), 강재원(姜在遠, 능곡동 출신) 등과 함께 안산감리교회(목사, 최인혁)에서 중학과정(강의록)을 야학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능곡재건학교의 첫 수업이었다. 그 후 날로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키 위해 재건국민운동본부 시흥군지부 산하 능곡재건학교(교장 : 김규성)로 등록한 후, 교회 소유 빈터에 학생들의 노고와 박희병 등 지역주민들의 협조로



능곡재건학교 교사전경(김규성 제공) 1971

열 평의 흙벽돌 교실을 짓기 위해 벽돌을 찍어 벽을 쌓았으나 지붕을 올릴 자재가 없자, 김교장 등은 이해 5월 1일 능곡재건학교설립추진위원 일동 명의로 「호소문」을 작성, 각계에 재정후원을 요청했다.

여기 한국 농촌의 피맺힌 현실이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한 연쇄적 비극! 그러나 이 빈곤의 그늘 아래 자라나는 한국의 미래상인 농촌의 어린 싹들이 피어나는 향학열마저 그대로 밝혀야만 한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배울 터전을 우리의 힘으로 세우자고 3년을 두고 하루같이 몸부림쳤으나, 30여 명의 학생과 교사들이 쌓아올린 흙벽돌교실 열평! 이것은 우리의 핏방울이며 땀방울, 눈물방울이 쌓여진 고귀한 상아탑입니다. 한국의 현실과 장래를 명찰하시는 유지제현 여러분! 지붕도 창문도 책상도 없는 흙바닥 교실에서 하늘을 지붕삼고 구름을 천장삼아 '아는 것이 힘이 된다. 배워야 산다! 잠자는 자 잠을 깨고 눈먼자 눈떠라! 부지런히 일을 하여 살길을 터닦자!'고 노래하며 배우는 가엾은 이들의 부푼 꿈을 식지 않게 희망찬 내일의 꿈을 약속주실 분은 안 계십니까?

보십시오! 저 어린 생령들을 그대로 버려 두겠습니까? 제현 여러분! 이 눈물겨운 광경을 양찰하시와 물심양면의 협력을 바랍니다.



지붕 없는 교실에서의 수업광경. 1966.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할까. 학교의 어려운 사정이 각계에 알려지자 권시용(權時容), 박희병, 정숙현(鄭淑鉉), 권상규 등의 후원으로 지붕을 올렸다. 그러나 어렵게 신축한 교사(校舍)가 준공한 지 1년여 만에 붕괴되자 김교장의 부친 김광수(金光洙, 1911~92)가 부지 300평을, 능곡동 출신 사업가 권시용이 운동장 부지로 640평의 토지를 기증하였다. 그리고 교사 80평은 능곡동 자매결연기관인 서울공작창과 원성희, 권창 등 지역유지와 시흥군 약사회 및 김 교장의 모교인 건국대 등의 협조로 공사를 시작한 지 2년여 만인 1968년 12월 17일 준공식을 거행했다. 이어 1970년에 85평의 교사를 증축하는 등 지역 교육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였다.

알도록 배우자
몸바쳐 일하자
고난을 이기자

라는 교훈과, 설립자 김규성이 지은 교가(校歌)의 노랫말은 이 학교의 설

립취지와 성격을 잘 말해 준다.

참아라 오늘의 고난을 이기자
우리들은 가난하고 힘은 아직 약하나
오늘도 배움터엔 기백이 높고 높다
하늘이 주신 나라 조국을 위해
달려간다 우리는 일터로 간다
희망이 벅차 온다 능중의 건설자

설립 11년이 되는 1977년에 능곡청소년(중·고등)학교로 교명(校名)을 변경한 후, 비정규학교로서 중학생 신입생들이 점차 줄기 시작하자 1979년부터 고등학교 실업과정을 설치하고 학생 전원을 기숙사생활로서 야간수업으로 전환하였다. 한편 1978년 고려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초대 김규성 교장이 1981년 원주 상지대학교로 전임되자, 제2대 교장에 김영호(金榮浩)가 취임, 운영하였으나 재정난으로 설립 17년 만인 1983년에 폐교되었다.



교직원·학생기념촬영. 1978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모두 1천 280명으로, 그 중 중학과정 졸업자는 1천 150명에 고등학교 과정 졸업자는 130명인데, 이들은 검정고시를 거쳐 일부는 대학, 전문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현업에 종사하거나, 그 외 지역의 새마을지도자, 통장, 반장 등으로 활동하는 인사가 많다. 학교터는 1988년에 개인에게 매도되어, 이 해 대영특수포장센터가 들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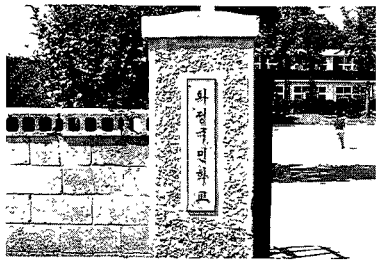
<참고문헌> 『능곡재건학교자료철』.

(14) 花井國民學校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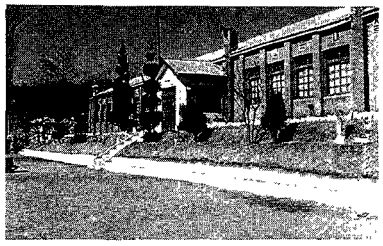
·소재지 : 시흥시 화정동 519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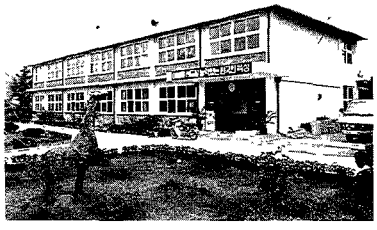
화정동 고주물에 있던 학교. 1933년 3월 31일 안산공립보통학교(현 안산국민학교) 부설 화정간이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아 동년 4월 9일 화정기독교회당에서 개교식을 거행하였다. 동년 가을(10. 15)에 조한영(논곡동 출신, 작고)이 밭 682평, 김홍권(화정동, 작고)이 밭 618평, 이학봉(서울 논현동, 작고)이 밭 452평 등 1천 752평의 토지를 교지로 희사받아 화정리(동) 주민 일동이 학교신축기금으로 거금 700원을 시사하고, 노역봉사로 2개교실을 신축하여 현 위치(화정동 519)로 이전하였다. 이때의 학구



화정국민학교 교판. 1994.



화정국민학교 전경 ①. 1977.



화정국민학교 전경 ②. 1994.

는 현 시흥시의 화정동·하중동·하상동·산현동·능곡동·광석동·물왕동과 안산시의 와동·고잔동 등의 제지역이었다. 그 뒤 1943년 3월 31일에 안산공립국민학교 화정분교장으로 개편되었고, 광복 직후인 1946년 8월 31일에 구교사를 개축함과 동시에 3개교사를 신축했다. 이듬해 다시 교사 한 동(3개 교실)을 신축하였고, 이해 4월 30일에 화정국민학교로 승격인가를 받았다. 설립 3년 후인 6월 27일에 촉성과 졸업식을 거행, 48명(남 37, 여 11)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그러나 정식졸업은 1950년 5월 9일에야 비로소 50명(남 41, 여 9)이 졸업했다(이후 졸업회수가 시작됨). 이듬해(1951. 9. 16)에 한국전쟁으로 구교사 한 동이 전소되었고, 신교사 한 동은 대파되었다.

1957년 4월 1일에 광석동에 연성국민학교가 설립되자 광석·하중·하상·물왕동 등의 제지역이 학구 변동된 데 이어 2년 후인 1963년 3월 1일에 고잔분교실이 독립분교로 승격을 받아 고잔, 와동이 학구 변동되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교세가 번창하던 화정국교도 인근의 안산시가 도시화로 급팽창한 데 반하여 화정국교의 학구는 그린벨트 정책에 따른 건축의 신축규제와 도시의 전출 등으로 인하여 1991년에 87명, 1992년에 85명, 1993년에 69명으로 점차 감소추세를 보였다. 그런데 교육부의 '소규모 국민학교 통·폐합 추진지침'에 따르면, 쉰 명 이하의 학교는 단계적으로 전학교를 통·폐합하고 51~100명 이하는 단계적으로 통·폐합하며, 180명 이하는 통·폐합 또는 분교장 개편 추진토록 되어 있다. 그래서 1990년부터 학생의 급격한 감소를 보이자 학교측에서는 그린벨트의 완화조치로 학생의 증가를 기대했으나, 오히려 더욱 감소되어 1994년에는 전교생이 59명(1학년 8명, 2학년 8명, 3학년 7명, 4학년 11명, 5학년 8명, 6학년 17명)에 학급수도 4학급(1·2·3·4학년 2학급, 5·6학급 각 1학급)밖에 되지 않자 1994년에 이르러 학교 통·폐합에 관해 수차에 걸친 논의 끝에 결국 1994년 9월 1일부터 개교되는 화정국교(안산시 선부동 1100)에 흡수 통폐되었다. 화정국민학교의 교명은 그대로 승계되나, 1995년 졸업생이 제1회 졸업생이 되어 화정동 화정국민학교는 화정간이학교로 문을 연 지 실로 61년 만인 1994년 9월 30일(경기도조례 제2485호) 종어를 고했다.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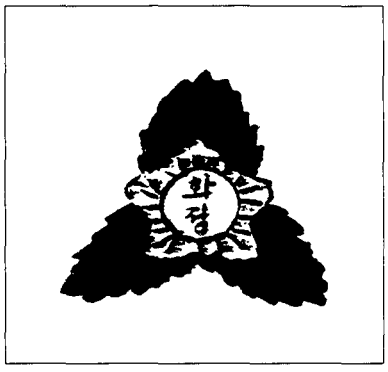
① 화정국민학교 전교생 및 교직원. 1994.
② 노인위안 잔치. 1985.
③ 마지막 수업 광경. 1994.
④ 정든 학교 문을 떠나며. 1994.



③



④



학교 심벌마크.

• 개관

· 교화(校花) : 개나리

· 교목(校木) : 향나무

• 교지(총면적 : 8천 811m^2)

· 대지 : 3천 74m^2, 운동장 : 2천 687m^2, 밭 : 3천 50m^2

• 교육목표(1994)

1. 정직하고 예의바른 어린이
2. 탐구하며 공부하는 어린이
3. 근면하고 협동하는 어린이
4. 깨끗하고 튼튼한 어린이

• 교가

마산은 아름답다 정든 내고장
새나라 아들딸들 자라나는 곳
충효얼 이-으며 골은 푸른데
종소리 우-러나는 꽃우물학교
배우라 씩씩하라 희망의 새싹
기쁘다 어여쁘다 이 땅의 자랑

역대 교장명단(1947~1994)

대수	성명	발령연월일	근무연수
1	이 보 협	1947. 7. 18	0.8년
2	김 영 기	1948. 3. 31	5.11
3	구 연 홍	1954. 2. 10	2.7
4	마 동 휘	1956. 9. 14	0.1
5	김 영 기	1957. 7. 2	3.9
6	권 상 린	1961. 4. 27	0.6
7	황 득 렬	1961. 10. 7	3.4

대수	성명	발령연월일	근무연수
8	정 진 종	1965. 2. 1	3.1
9	신 천 균	1968. 3. 1	2
10	송 종 호	1970. 3. 1	2
11	이 완 철	1972. 3. 1	5
12	홍 승 표	1977. 3. 1	4.6
13	장 두 훈	1981. 9. 1	5.6
14	한 정 렬	1987. 3. 1	2
15	방 태 원	1989. 3. 1	2
16	김 정 환	1991. 3. 1	2
17	이 종 덕	1994. 3. 1 1994. 8. 31	0.5

*자료 : 화정국민학교 자료철.

역대 교감명단(1949~1994)

대수	성명	발령연월일	근무연수
1	김 현 표	1949. 4. 12	0.8년
2	권 혁 세	1950. 2. 21	1.4
3	이 병 일	1951. 6. 30	6
4	이 병 조	1957. 6. 18	4.8
5	김 창 해	1962. 7. 28	1
6	송 영 식	1963. 7. 31	1.8
7	강 봉 선	1965. 3. 1	4
8	김 창 성	1969. 3. 1	1
9	김 규 성	1971. 3. 1	1
10	김 정 호	1972. 4. 10	9.1
11	이 명 환	1980. 9. 1	0.6
12	이 형 주	1981. 3. 1	1
13	진 희 종	1983. 3. 1	2

대수	성명	발령연월일	근무연수
14	권 태 용	1984. 9. 1	3
15	유 창 수	1987. 3. 1	1
16	윤 기 수	1988. 3. 1	1
17	이 성 문	1989. 3. 1	1.6
18	김 병 석	1990. 9. 1	1
19	강 형 원	1991. 9. 1	1.6
20	배 명 수	1993. 3. 1 1994. 8. 31	1.5

*자료 : 화정국민학교 자료철.

화정국민학교 졸업생 현황(1949~1994)

회수	졸업연월일	졸업생수	졸업연번	회별 첫 졸업생		
				성명	생년월일	주소
촉성과	1949. 6. 27	49	1~49	朴泰烈	1936. 4. 6	화정리 553
1	1950. 5. 9	50	50~99	李龍熙	1933. 10. 2	
2	1951. 8. 27	22	100~121	金載浩	1938. 8. 15	
3	1952. 3. 23	56	122~177	趙商鎬	1936. 1. 5	능곡리 223
4	1953. 3. 21	96	178~273	李明山	1938. 9. 19	하중리 395
5	1954. 3. 23	79	274~352	崔潤吾	1937. 6. 27	하중리 346
6	1955. 2. 28	100	353~452	孫德仁	1937. 11. 28	능곡리 280
7	1956. 3. 2	91	453~543	李光洙	1941. 1. 20	광석리 109
8	1957. 3. 22	86	544~629	金在浩	1940. 6. 18	하중리 186
9	1958. 3. 15	48	630~677	張殷錫	1941. 11. 29	와리 139
10	1959. 3. 24	57	678~734	洪光杓	1942. 2. 25	와리 474
11	1960. 3. 23	76	735~810	元龍洙	1943. 9. 10	고잔리
12	1961. 3. 6	52	811~862	方慶五	1946. 4. 25	와리
13	1962. 2. 8	45	863~907	金裕澤	1947. 10. 3	와리

회수	졸업연월일	졸업생수	졸업연번	회별 첫 졸업생		
				성명	생년월일	주소
14	1963. 2. 11	47	908~954	崔光日	1952. 1. 18	능곡리
15	1964. 1. 30	41	955~995	權聖行	1950. 7. 9	능곡리
16	1965. 2. 12	58	996~1053	姜信榮	1953. 4. 16	능곡리
17	1966. 2. 3	43	1054~1096	裵弘淳	1952. 3. 3	화정리 553
18	1967. 2. 17	57	1097~1153	李德煥	1953. 11. 13	능곡리 62
19	1968. 2. 9	54	1154~1207	柳浩善	1953. 9. 2	산현리
20	1969. 2. 8	58	1208~1265	車根有	1955. 6. 20	능곡리 30
21	1970. 2. 5	67	1266~1332	金富權	1957. 2. 7	화정리 200
22	1971. 2. 13	38	1333~1370	金五貞	1957. 6. 14	화정리 306
23	1972. 2. 10	52	1371~1422	이방기	1956. 2. 10	화정리 604
24	1973. 2. 7	60	1423~1482	金憲柱	1959. 1. 19	산현리 202
25	1974. 2. 12	59	1483~1541	尹寧烈	1961. 4. 13	화정리 472
26	1975. 2. 18	41	1542~1582	朴弼遠	1961. 1. 5	화정리
27	1976. 2. 18	67	1583~1649	吳世昌	1962. 9. 8	군자리
28	1977. 2. 14	35	1650~1684	徐承完	1963. 10. 5	화정리 578
29	1978. 2. 14	51	1685~1735	劉基鉉	1965. 11. 5	화정리
30	1979. 2. 13	47	1736~1782	鄭明基	1963. 11. 16	화정리
31	1980. 2. 14	35	1783~1817	呂眞洙	1965. 7. 21	와리
32	1981. 2. 19	40	1818~1857	金振泰	1968. 4. 24	능곡리
33	1982. 2. 18	28	1858~1885	姜學洙	1966. 1. 23	화정리
34	1983. 2. 14	27	1886~1912	金貞庚	1970. 10. 28	화정리
35	1984. 2. 14	26	1913~1938	黃泰勳	1971. 2. 26	화정리
36	1985. 2. 14	21	1939~1959	李正雲	1971. 11. 2	능곡리

회수	졸업연월일	졸업생수	졸업연번	회별 첫 졸업생		
				성명	생년월일	주소
37	1986. 2. 17	19	1960~1978	金周鉉	1973. 4. 2	산현리
38	1987. 2. 17	25	1979~2003	李正福	1973. 10. 18	능곡리 230
39	1988. 2. 16	17	2004~2020	金炯秀	1978. 3. 18	
40	1989. 2. 16	10	2021~2030	朴在德	1976. 4. 7	
41	1990. 2. 16	9	2031~2039	權誠皓	1977. 6. 16	
42	1991. 2. 12	9	2040~2048	朴千一	1978. 6. 22	
43	1992. 2. 15	13	2049~2061	金龍賢	1979. 6. 15	
44	1993. 2. 16	18	2062~2079	金柱連	1980. 4. 10	
45	1994. 2. 16	11	2080~2090	金鍾烈	1981. 4. 9	

<참고문헌> 『화정국민학교 자료철』, 『화정국민학교졸업대장』.

10. 亭子址

1) 概 要

정자(亭子)는 작은 건물로서 벽이 없고 기둥과 지붕만으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놀거나 휴식할 장소로서 산수 좋은 높은 곳에 세운다. 정각(亭閣) 또는 정사(亭榭)라고도 한다. 정자는 또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마을 속의 살림집과 달리 자연을 배경으로 한 남성 위주의 유람이나 휴식 공간으로 가옥 외에 특별히 지은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 방이 없고 마루만 있으며 사방이 두루 보이도록 막힘이 없이 탁 트였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높은 곳에 건립하는 것이 특색이다.

한편 누정(樓亭)은 누각(樓閣)과 정자를 함께 일컫는 명칭으로 정루(亭樓)라고도 하는데, 누(樓), 정(亭), 당(堂), 대(臺), 각(閣), 헌(軒) 등을 일컫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소개된 우리나라의 누정은 모두 553동에 이른다. 그러나 『신증문헌비고』, 『대동지지』, 『동국여지비고』 등의 기록을 참고하면 885동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를 다시 분류하면 누(樓)는 416동, 정(亭)은 365동, 당(堂)은 45동이고 나머지는 대, 헌, 각, 관, 기타 등으로 누가 가장 많다. 누는 정자와 달리 성문(城門) 혹은 성루(城樓)로 세워지기도 하고, 객사 등 관아의 부속으로 건립된 경우가 많다. 옛 문헌에 의거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누정에는 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시흥은 경관이 좋은 산과 해안을 끼고 있어 곳곳에 누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안산관아의 정문인 평근루(平近樓)와 조선 초기 실권자였던 김정경(金定卿, 1345~1419)의 망해정(望海亭), 김충주가 도

성을 탈출하여 화정동 마하산에 은거하며 살던 곳에 후손이 세운 고송정(枯松亭), 그리고 하중동 안동 권씨가에 의해 세워졌다는 은휴정(恩休亭) 등이 있었으나 대부분 기록으로만 전해지고 있으며, 현재는 고송정만이 최근에 중수되었을 뿐이다.

<참고문헌> 『安山郡邑誌』, 『忠孝五世錄』, 『蓮社名帖』,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 始興의 亭子址

(1) 望海亭址

· 소재지 : 시흥시 수암동 산 27(?)



망해정지. 1992.

조선 초의 실권자인 김정경(金定卿, 1345~1419)의 정자이다. 그는 삼군절도사(三軍節度使)를 역임하고 정종 2년(1400)에 박포(朴苞)의 난을 평정하여 연성군(蓮城君)에 봉군된 후, 관직에서 물러나 수암동에 소재한 안산읍성 내에서 살았다고 한다. 그가 거처한 곳은 안산관아 뒤(수암동 253-5)로 추정되고 있다. 그 이유는 김정경이 생존시 심었다는 은행나무 한 그루가 현존하고, 또 이곳에서 출토되고 있는 와편 등이 고려초에 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정자터로 추정되는 곳은 대광빌라(수암동 산 27) 옆 야산이다. 이 일대는 수암봉에서 내려온 산줄기가 멈추는 언덕 위에서 경관이 좋고 앞을 조망할 수 있어 정자터로서는 최적지로 손꼽힌다. 이 정자로 인하여 이 일대를 서정리(西亭里)라 했다가, 1914년 일제가 부·군·면을 통·폐합할 때 수암리(秀岩里)에 편입시켰다. 망해정이 언제 훼파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김정경 사후 그의 후손들이 이곳에서 살았다는 문헌이 없는 것으로 보아 조선 초에 훼파된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安山邑誌』, 『朝鮮地誌資料』

(2) 平近樓址

· 소재지 : 시흥시 수암동 256

『안산군읍지』(1899) 「누정(樓亭)조」에 "평근루, 군아(郡衙)의 정문이다(平近樓郡衙正門)"라는 기록으로 보아 안산관아의 정문임이 틀림없다. 여

타 읍의 경우와 같이 평근루도 관아의 부속으로 건립된 것으로 보이며, 현종 10년(1669) 안산객사, 동헌, 옥사 등을 신축할 때 함께 건립된 후, 일제강점으로 수암면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해 1992년경에 중수할 때 철거된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安山郡邑誌』, 「安山縣館舍重建記」, 『安山邑城地表調査報告書』.

(3) 枯松亭址

· 소재지 : 시흥시 화정동 산 58

화정동 너빌(廣谷) 마하산 아래에 있다. 이 정자는 조선 초에 단종복위 사건에 조부 김문기(金文起)와 부 김현석(金玄錫)이 참화를 당하자 손자인 김충주(金忠柱)가 도성을 탈출하여 이곳에 은거하며 숯을 구워 파는 것을 업(業)으로 하면서 스스로 호를 탄옹(炭翁)이라 하고, 매일 단종의 묘가 있는 영월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자 소나무가 말라 죽었다는 소나무에 그의 후손들이 지은 것이라고 한다. 본래 정자는 조선조 말에 초창된 후 몇 차례의 중수를 했고, 현재의 정자는 1992년에 중수하였다. 일명 탄옹고지(炭翁古址)라 일컫는다. 정자 왼쪽(서)에 「炭翁古址」라고 암각한 바위가 있고, 뒤쪽(북)에는 수백령 수령의 느티나무가 있으며, 오른쪽에는 김충주가 심었다는 향나무가 있다. 정자 앞(남)에 있는 연못은 1994년에 보수되었다



고송정은 일명 탄옹고지라 부르기도 한다. 1984.

<참고문헌> 『安山郡邑誌』, 『始興의 傳統과 文化』, 『始興郡誌』 上.

(4) 恩休亭址

· 소재지 : 시흥시 하중동 산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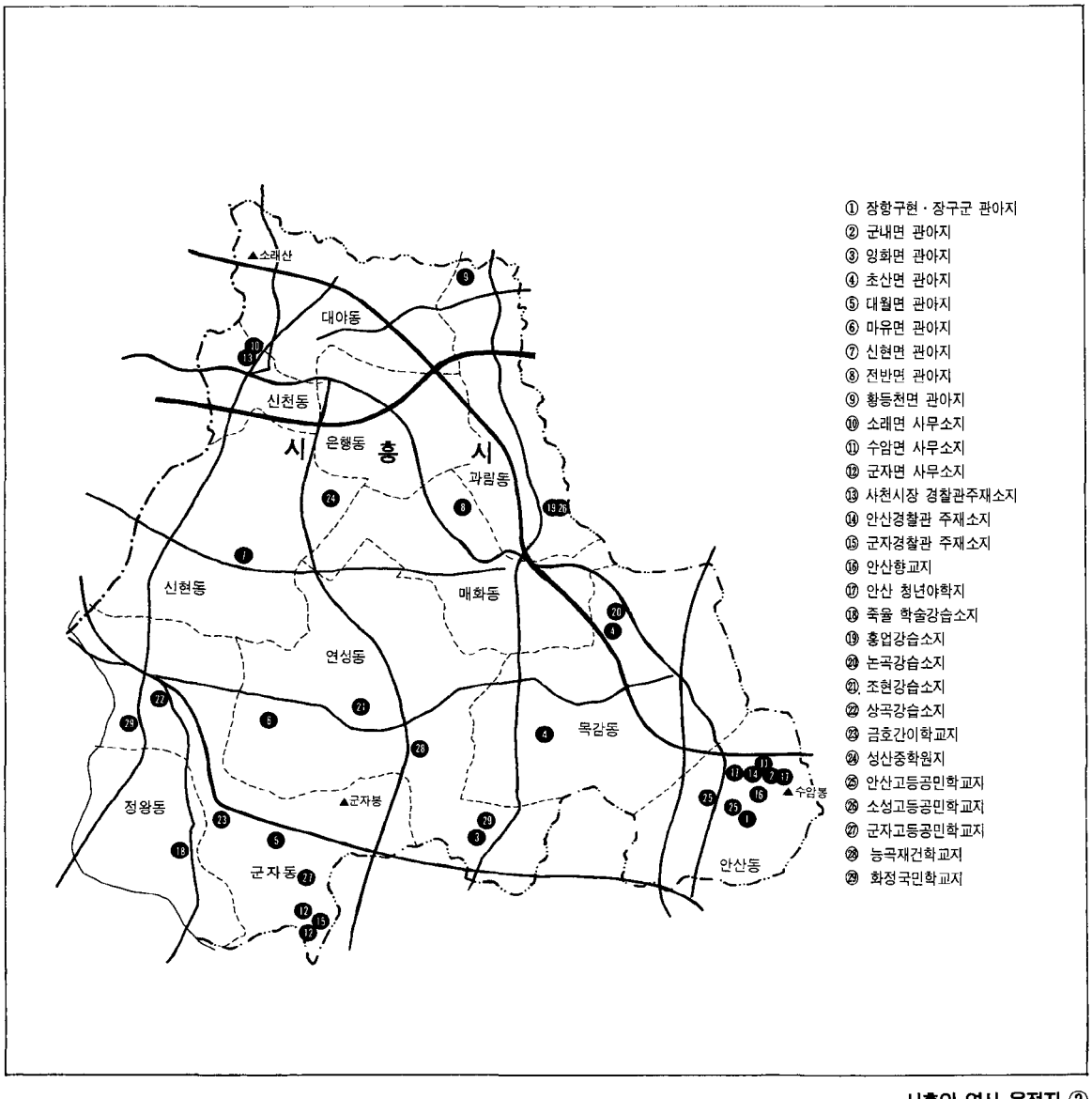
향토유적 제8호인 관곡지(官谷池)에서 동북쪽으로 약 70m 떨어진 야산에 있었다고 한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정자터가 완연하였으나 현재는 잡목 등이 무성해 분간하기가 어렵다. 구전에 따르면, 조선시대 효도대왕으로 일컬어질 만큼 어버이(정조)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던 정조(正祖)가 하중동 돌장재(石場) 앞 일대에 대한 간척사업을 실시할 때 인부를 위무하기 위해 행차하는 길에 친히 이곳에 들러 쉬어 갔다고 할 만큼 조선시대에는 이름난 정자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정자가 누가 언제 지었으며 언제 훼파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1927년 연성음사(蓮城吟社) 주최 전국 한시(漢詩) 공모에 은휴정이란 시구(詩句)가 인용되는



은휴정지. 1994.

것으로 보아 널리 알려진 정자임에는 틀림없다. 하중동에 거주하는 권희원(權熙元, 1930~)에 따르면, 정자의 현판을 하중동 출신 권(權○○)의 증조모가 소장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는데, 현재는 그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한다.

<참고문헌> 『蓮社名帖』, 『蓮城吟社 第壹回集』.
대담 : 권희원(權熙元, 1930. 6. 4~ , 하중동 392-1).



시흥의 역사 유적지 ②